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과 북한당국의 언어정책

통일교육원 김석향
feelfree@unikorea.go.kr

목차

제1장 시작하는 말	1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관련 인식 현황	9
1. 문제의 제기	9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1
3. 연구방법과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4. 면접 내용의 분석	25
1)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일상적 언어생활의 어려움과 그 원인	25
2) 남북한의 우리말 사용실태에 관한 인식	29
3) 우리말과 글의 역사와 형태적 특성에 관한 지식	44
5. 소결	62
제3장 해방 전후 한반도 언어생활의 환경	68
1. 일제치하 한글날 제정의 역사	70
2. 분단 이후 우리의 한글날 계승과 북한의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제정	72
3. “한글마춤법통일안”과 분단 이후 북한에서 변경한 내용	74
4. 남북한 언어이질화를 추구해 온 북한당국의 의도	83
제4장 로동신문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	92
1. 로동신문 소개	93
2.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전개	96
1)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진행과정	97
2)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과 김일성의 관계 변화	100
3. 당시 북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	105
1) 주체사상의 본격화	106
2) 김정일의 후계자 등장과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예고 없는 게재중단	111
제5장 맺음말	114
부록 1. 질문지	
부록 2. 한글마춤법통일안 (1933)	
부록 3. 1964년 1월 3일 김일성의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부록 4.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	

제1장 시작하는 말

“북한은 순수한 우리말을 지켜 왔는데 남한은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죠?”

필자는 2001년 이후 통일교육원과 전국 각지의 교육연수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인교육 기관에서 강의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 보았다.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좀더 적극적으로 “물론이죠” 하는 식의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았다. 통계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비율을 계산하여 확인해 보았던 것은 아니지만 강의 참석자 대다수가 이 의견에 동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남북한 언어를 비교해 보면 소위 북한의 “문화어”도 남한의 표준어 못지 않게 다양한 외래어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초·중·고 국어 교과서에서 자주 쓰인 외래어를 비교해 본 결과 남한은 텔레비전·스케이트·버스·에너지·라디오·리듬·메리 크리스마스·컴퓨터·피아노 등이었고 북한은 땅크·톤(단위)·빨찌산¹⁾·빠스·빠라·뜨락또르·트렁크·부르쥬아·중심 모멘트·프로(%) 등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²⁾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품의 명칭이 많은 반면에 북한의 외래어는 전쟁 무기나 생산현장에서 쓰이는 도구를 나타내는 용어가 많았을 뿐이며 막상 외래어 사용 빈도 면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 한반도에 사는 주민의 언어생활을 [남쪽=외래어 남용 vs. 북쪽=순수한 우리말 지키기] 논리로 단순화하여 설명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쉽게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언하건대 이런 현상은 굳이 필자가 직접 강의했던 현장에 국한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닐

1). 북한에서 빨찌산은 혁명적 영웅을 의미한다. 중앙일보 1997년 9월 22일 59면 창간 32주년 기념 “분단 52년 남과 북: 같은 점 달라진 것”

2). 김희진 “남북한 외래어의 표기와 사용 실태” 『남북한 언어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1997 pp. 96-104

것이다. 최근 남남갈등의 첨예화로 이 분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아도 합의
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하지만 유독 [남쪽=외래어 남용 vs. 북쪽=순수한 우리
말 지키기] 논리는 예외적으로 너무 쉽게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항목
에 해당한다. 한반도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이렇게 도식화된
논리에 동의해 왔기 때문이다.

북쪽 사람들은 어떤가? 아예 한 술 더 뜬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쪽을 찾는 북쪽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산가족 방문단을 비롯하여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와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응
원단 등 몇 백 명이 한꺼번에 남쪽을 찾는 일도 많아졌다. 그런데 북쪽 손님
들은 올 때마다 소위 “남조선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는” 현실을 개탄하
는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e-mail 주소를 알려주면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을
건네는 기자에게 “조선말로 하지, 왜 영어를 쓰느냐” 하고 대응하거나 건물
간판을 보고 “OO중앙이라고 하거나 OO중심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OO센터
라고 하느냐” 하고 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북쪽은 남쪽과 달리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켜 왔다는 점을 애써 과시한다.

만약 그런 자리에서 북쪽 사람들도 외래어를 많이 쓰지 않느냐고 반문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좀더 구체적으로 북쪽에서 영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표
기한 구락부와 같은 단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일이다.³⁾ 대체로 별다른 반응이 없겠지만 간혹 북한
에서 자주 쓰는 구락부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
성도 있다. 그 정도로 북한주민 대부분은 자신들은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데
남쪽에서는 외래어를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에 푹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북쪽을 떠나 남쪽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
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쪽=외래어 남용 vs. 북쪽=순수한 우리말 지키기] 논
리에 가장 첨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국내에 입국하여 살아가는

3) 구락부는 일제시대가 남겨 놓은 흔적이다. 남쪽에서도 1960-70년대 당시에는 흔히 들을 수 있
는 단어였다. 필자는 어린 시절 서울의 명동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자리잡은
외교구락부 간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남쪽의 언중(言衆)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
락부를 비롯하여 벤또·고뿌·쯔메끼리·고데 등과 같은 일본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
했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일제시대가 남겨 놓은 흔적을 언어사용의 주체인 언중(言衆)이 자
연스럽게 지워버렸던 것이다. 북쪽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거나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누
다가 이렇게 남쪽에서 지워버린 일제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필
자는 그 현상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필자도 북쪽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쓰기 때문에 외래어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언어의 이질화야말로 자신들이 남쪽에서 적응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남쪽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행주를 사려고 나간 자리에서도 주로 영어로 말하는 남쪽 사람들이 행주를 뭐라고 하는지, 자기가 행주라고 말하면 웃지나 않을지 걱정하느라 결국 사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경험담도 털어놓는다. 간혹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남쪽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게 말해도 알아 못 듣는,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짬뽕이니까 알 필요도 없는” 영어를 쓰지 않고 “조선말”로 한다면 자신들은 적응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우리의 언어습관을 [남쪽=외래어 남용 vs. 북쪽=순수한 우리말 지키기] 논리로 규정하게 된 것은 그 유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남쪽의 외래어 남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남북한의 누구에게나 쉽게 공감을 얻게 되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글은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하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과연 남쪽은 외래어를 남용해 왔는데 북쪽은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켜 왔는가? 유리잔을 놓고 컵이라고 하는 남쪽 사람에게 북쪽 사람이 왜 “조선말”을 사용하지 않고 외래어를 쓰느냐고 힐난하면서 막상 자신은 “고뿌”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남쪽 사람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북한에서 도시락을 곱밥으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으로 기대하는 남쪽 사람에게 북쪽 사람이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보통 벵또라고 한다, 곱밥은 기차에서 먹는 밥이다, 밥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벵또라고 할 때가 많다” 등과 같은 말을 했을 때 남쪽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북한이탈주민이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할 때 당근이라고 하면 모르겠다, 북한에서는 당근을 닌징이라고 하는데...” 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쪽은 영어와 일본어 잡탕말을 쓰지만 북쪽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이 막상 훈민정음 창제

와 반포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종대왕, 집현전 학사들의 존재를 비롯하여 일제 치하의 냉엄한 상황에서 온 몸으로 우리말을 지키려고 노력해 온 조선어 연구회와 그 뒤를 이었던 조선어학회의 활동 내역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대다수 남쪽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의 실체는 무엇인가?

남쪽 사람의 입장에서 세종대왕을 모르는 북쪽 사람에게 우리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남북한의 어린이에게 한글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일은 누구의 몫인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남쪽에 와서 비로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벤또·고뿌 등이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상대로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표현하는 문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가꾸며 지켜 왔는지 그 과정을 교육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 일인가?

과연 남쪽은 외래어를 남용하는데 북쪽에서는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켜 왔다는 말에 한 치의 오류도 없는가? 분단 이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쪽은 외래어를 남용하는 일이 없었는가? 남쪽에서 다이어트·스트레스·와이프·빌딩 등과 같이 외래어를 쓰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북쪽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땡크·뜨락또르·우라까이·뽀트·깜빠니아·테제 등과 같이 동유럽 국가의 발음을 차용한 외래어를 많이 쓰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게다가 상당수 북한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말이 외래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하는 실상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만약 북쪽에서도 남쪽에 못지 않게 외래어를 많이 쓴다면 무엇 때문에 남쪽이 “외래어 남용” 및 “우리말의 순수성 파괴” 주범으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인가?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는 세월의 흐름을 돌이켜 볼 때 북쪽에서는 무심코 놓쳤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는데 오히려 남쪽에서 우리말의 순수성을 온전하게 지켜 온 측면은 없는가?

만약 북쪽에서 분단 이후 의도적으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훼손해 왔다면 앞으로 그 측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혹시 남쪽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말을 지키는 노력에 게을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유식함

과시하거나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외래어를 더 선호해 왔다는 죄책감 때문에 북쪽의 우리말 지키기 운동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실제보다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보이는 초현실의 차원으로 밀어 올려놓았던 측면은 없는 것인가?4)

이런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의심하지 않았던 [남쪽=외래어 남용 vs. 북쪽=순수한 우리말 지키기]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감히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분단 이후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운동이 지닌 의미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북한당국이 추진해 온 우리말 다듬기 운동의 성과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 관찰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관련자료를 고찰해 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북한당국이 추진해 온 우리말 다듬기 운동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만큼 남한에서도 우리말 지키기 분야에서 쌓아 올린 성과가 존재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 제대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 글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논리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면담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우리말 사용 습관을 확인하고 그와 더불어 이들이 우리말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와 같은 언어 습관과 우리말 관련 지식을 갖게 된 배경요인을 살펴보고 그 시기를 분단 이전과 분단 이후로 나누고자 한다. 먼저 분단 이전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우리말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온 과정을 돌이켜 보겠다. 그리고 분단 이후 북한 정권이 추진해 온 우리말 다듬기 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쪽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

4) 최근에 만난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은 북한에서 아이스크림과 얼음보숭이 중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남쪽 학생과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활경험을 근거로 북쪽에서도 얼음보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남쪽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주고 또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고찰해 보는 순서를 갖고자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엮어 보았다.

우선 다음에 이어지는 제2장에서 2002년 8월-10월 현재 국내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5명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바, 우리말 관련 인식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래 전체적인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완성하려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리말 관련 인식을 진단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작업은 현재의 조건에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과 가장 가까운 특성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을 면접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의 주요 항목은 이들이 남쪽에 온 뒤 언어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자 스스로 생각할 때 남북한 언어습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한글창제 및 일제 치하에서 우리말 지키기 운동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수한 우리말과 외래어 및 한자어 표현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지, 분단 이후 북한당국이 추진해 온 우리말 다듬기 운동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제3장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당국이 추진해 온 언어정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분단 직후부터 언어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의 속성상 북한당국이 아무리 의도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도 과거의 역사와 완전한 결별을 이룬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먼저 분단 이전부터 남과 북이 공유해 온 우리말 지키기의 역사적 과정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생각해 보면 남과 북은 분단되기 몇 천 년 전부터 동질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공동체를 유지해 왔다. 이 땅 한반도에서 어린 시절을 거친 사람은 누구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를 비

못하여 “심청전·춘향전·별주부전”과 같이 여러 세대를 거쳐 구전되어 온 이야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의 은혜를 오늘날까지 톡톡히 입고 있다. 또한 어렵고 힘들었던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었던 활동의 내역은 그 이후 북한당국이 주체성의 구호를 높이 외치는 순간에도 소리 없이 북쪽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 이전 남북한이 공유했던 우리말 지키기의 역사적 자산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남과 북의 구분이 없이 함께 공유했던 문화적 자산으로서 한글창제와 반포, 일제치하의 한글날 제정과 “한글마춤법 통일안” 발표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훗날 북한당국의 언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제3장의 목표라 하겠다.

제4장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당국이 추진해 온 언어정책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단 이후 북한당국의 언어정책은 오늘날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알고 있는 우리말 관련 인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북한당국의 주도로 국어사정위원회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등 북한의 주요 일간신문을 통해 몇 년 동안 추진했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 북한주민의 일상적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제4장의 목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남쪽의 우리들은 앞으로 북쪽 주민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며 또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 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아마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순수한 우리말 용어로 다듬어 온 북쪽 사람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비록 수령을 찬양하는 표현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살펴보면 남쪽에 사는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쪽에서는 지켜 왔으나 북쪽에서 분단 이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짐짓 도외시해 왔던 우리말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어떻게 북쪽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무게를 두고 진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

를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여러분께 감사한다. 우선 이 글이 나오도록 기회를 준 통일교육원 원장님과 개발지원부 부장님, 연구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자료조사에 협조해 준 북한이탈주민 35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누구보다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종류도 다양한 설문조사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자료를 들이치는 일 자체가 또 한 번의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함이 앞섰다. 그런데 이렇게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호응해 준 북한이탈주민이 35분이나 계셨던 것이다. 단순히 필자가 고맙다는 말 한 마디 하는 것으로 35분에게 진 마음의 빔을 다 갚을 수 없으리라.

또한 자료조사에 호응해 줄 북한이탈주민을 찾아 무섭게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날에도 두 손에 짐을 잔뜩 들고 서울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누비며 지하철과 버스로 옮겨 다니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박정란의 도움을 잊을 수 없다. 박정란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글은 처음부터 빔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고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필자가 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김홍락 사무관의 마음고생에도 새삼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관련 인식 현황

1. 문제의 제기

2003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3,900명 내외의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3년 이전 매년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10명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해마다 입국 규모가 2배 가량 늘어 2001년에는 583명이 들어왔으며 2002년에는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 1,140명을 기록하였다. 분단 이후 2003년 8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총 3,911명이지만 그 중에서 249명이 사망·이민 등의 사유로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2003년 8월 3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3,662명에 이른다.

[표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현황⁵⁾

단위: 명

연도	1989 이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입국	사망 이민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40	781	3,911	249	3,662

사실상 4,700만 인구 중에서 3,700명 내외의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남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행동 유형을 연구하는 것은 3,700명이라는 소수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앞날을 가늠하는 측정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5) www.unikorea.go.kr -> 주요업무 현황 -> 북한이탈주민 지원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2003년의 경우 8월 31일 기준으로 781명이 입국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관련 인식의 현황을 연구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관련 인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 일상생활에서 언어로 인해 곤란함을 겪을 가능성을 줄이고 혹시 난처한 경우가 생겨도 잘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의 본질적 의의는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적 차원에서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주민 사이에 일상적 언어생활의 이질감이라는 사안이 부각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대처 방안을 미리 모색하는 시도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상 분단 58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남북한의 언어이질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문제가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된 배경에는 남북한의 상호 방문 인원이 증가하면서 북한주민과 만났던 유명인사들이 달라진 단어의 뜻이나 어휘의 사용으로 인해 곤란했거나 어려웠던 경험담을 소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도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한편에서는 언어 이질화가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주민들이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혼란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⁶⁾ 사실상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점은 앞으로 좀더 본격적인 연구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사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한 주민들이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 주요 언론매체에서는 잇을 만 하면 한 차례씩 오늘날 남북한의 언어는 통역이 필요한 만큼 이질화되었으니 큰일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곤 한다.⁷⁾ 이런 논조의 기사는 그렇지 않아도 국내 입국 이후 한국사

6) 김민수는 북한이 1966년 이후 5만 개의 외래어와 한자어를 순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가 심화되었지만 그 중에서 현재 남북한주민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되는 단어는 사용빈도가 높은 27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언어 통일의 문제는 273개의 이질적 단어를 상호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김민수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2002

7) 중앙일보 2003년 9월 16일자 제10면 “물참봉이 된=>물에 흠뻑 적은; 통역이 필요한 南北 언

회에서 소수집단(minority)의 일원으로 살아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언어 이질화에 따른 문제점을 더욱 첨예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누구도 이렇게 통역이 필요한 만큼 이질화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혹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선에 그치곤 한다. 따라서 막상 언어 이질화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또 그들을 대상으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는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리말 관련 인식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어쨌든 언어 문제에 관한 한 국내 입국 이후 소수자의 입장에서 살아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말 관련 인식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게 될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논의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과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은 상호 연계성이 높지 않은 학문의 영역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우리말 사용 문제로 곤란함을 겪었다는 경험담은 많이 나와 있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느 날 낯선 사회에 뚝 떨어진 나그네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화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차원에 그쳤을 뿐이다.

사실상 국어학자와 사회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학문적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도 일반적인 적응 상태와 취업 현황을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언어생활과 같은 분야별 현황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어”

돌이켜 보면 오늘날까지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을 분석해 온 연구는 주로 국어학 분야의 전유물이었다. 이 분야의 연구물은 이질감의 원인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어휘와 단어를 사용하는 현상에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체로 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반면 북한에서는 1966년 이후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통해 외래어와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늘날 언어 이질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⁸⁾ 이들은 또한 앞으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가 심화되어 서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태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한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맞춤법과 표기법, 띄어쓰기 형태의 차이 등 관련 현상 등을 분석하는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휘와 단어의 차이를 통해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질감의 원인을 어휘와 단어의 차이에서 찾는 만큼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이 사용하는 어휘와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질감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오늘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하는 1종 교과서를 비롯하여 각종 검인정 교과서와 참고도서 및 텔레비전의 관련 프로그램, 교육용 시청각 자료 등에서 통일 및 남북관계를 소재로 다룰 때마다 남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를 비교하는 도표가 빠짐없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되는 남북한 어휘/단어 비교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비롯한 학교통일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 과정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교 교사와 사회교육기관의 강사들은 특히 수업을 시작할 때 무관심한 학생과 수강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남북한의 어휘와 단어를 비교하여 제시한 도표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시도는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과 수강생은 원래 교육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식을 배우게 된다.

남북한 단어 비교표를 제시하고 남쪽에서는 도너츠라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가락지빵이라고 한다고 알려줌으로써 피교육생의 호기심을 이끌어 내는 방

8) 김태식 “언론의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 『새국어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1년 봄호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북한에서 서로 다른 어휘와 단어를 사용하는 현상이야말로 이질화의 결정적인 증거이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외래어를 남발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지키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⁹⁾ 다시 말하면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방식을 진행하고 나면 분단 이후 언어이질화의 귀책 사유를 남쪽의 외래어 사용에서 찾도록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심각성을 느끼는 현상이 과연 단어와 어휘와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언어의 형태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일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남발하는 반면 북한은 순수한 우리말을 지켜 온 결과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어 왔기 때문에 한자어나 외래어를 쓰지 않는다고 배웠던 남쪽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북쪽에서 “자력갱생·간고분투·이신작칙·원문통달·강연제강” 등 한자어는 물론이고 “와리바시·벤또·고뿌·넌징·우라카이·뜨락또르·깜빠니아·노르마” 등 외래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일종의 당혹함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유리잔을 놓고 컵이라고 하는 남쪽 사람에게 북쪽 사람이 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뿌”라고 말할 때 남쪽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단순히 단어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자신들이 “밀차”라고 부르는 물건을 남쪽에서는 “휠체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쪽에서 우리말을 쓰지 않고 영어를 쓰는 현상”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면 이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본질이 순수하게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 현상에서 유래한 이질감인가?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쪽

9) 최근에 만난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은 북한에서 **아이스크림**과 **얼음보숭이** 중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남쪽 학생과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활경험을 근거로 북쪽에서도 **얼음보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남쪽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은 영어와 일본어 잡탕말인데 북쪽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집현전 학사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남쪽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언어적 표현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내면화해 온 가치관과 태도, 의식구조 등이 무의식적·의식적 과정을 통해 작용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되는 감성적 판단의¹⁰⁾ 측면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감성적 판단의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주민이 아무리 상대방의 단어와 어휘 사용법,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 등을 정확하게 배우고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이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남북한의 주민은 각자의 언어생활에 대해 서로 다른 감성적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일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반가움과 거부감, 친밀감과 낯설음, 편안함과 불안감/두려움 등의 감성적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사회적·정치적 경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관련 인식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일상적 언어생활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원인을 분석하되 단어와 어휘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른 차이점 이외에 다른 현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것이 이 글의 일차적 관심사라 하겠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리말 관련 인식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언어 이질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생각해 본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지금까지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원인을 어휘와 단어, 맞춤법 및 표기법, 띄어쓰기 등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학제간 연구를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어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어학적 측면에 국한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 온 결과로 보인다.

10) 이 논문에서 말하는 감성적 판단이란 한 개인의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우월감과 열등감, 친근감과 거부감, 동질감과 이질감, 기분의 좋고 나쁨 등 모든 정서적 선택의 근거로 작용하는 감정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언어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단어와 어휘의 차이, 맞춤법과 표기법, 띄어쓰기 등이 이질감과 동질감의 중요한 근거이며 그런 만큼 어학적 측면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를 통해 감정적 판단도 교환하기 때문에 어학 분야의 연구가 곧 인간의 언어생활 전반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주민의 언어생활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어학적 연구와 시각을 달리 하여 감정적 판단의 근거를 분석하는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사실상 남북한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일상적 언어생활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원인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면, 남북한 언어의 형태적·문법적 요소의 차이점 이외에도 이런 차이에 대해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 및 의식구조를 근거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주민의 언어생활을 실증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현재의 여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면접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스스로 그 원인을 무엇으로 규명하는지 추정하고자 했다. 또한 이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남북한의 언어사용 실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글을 창제하고 지켜온 우리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순수한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분하는지 등 다양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개입하는 특유의 감성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언행을 살펴보면 이들은 남쪽에 살면서도 분단 이후 특성화된 소위 북한식 감성구조를¹¹⁾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특성을 지닌 채 남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에 입국한 뒤 비록 몸은 남쪽에서 살지만 이들의 정신세계는 아직 북쪽사회 특유의 감성구조와 결별하지 못한 채

11) 북한식 감성구조라 함은 북한식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사물과 현상의 좋고 싫음, 정서적 친근감과 낯설음을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남쪽과 북쪽의 행위 기준이 교차적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남쪽 사람이 “예절”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으면 “레절”로 고쳐주고 싶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살펴보면 이들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잘 모르겠다·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유형

잘 모르겠다. “레-예”로 하는지..“o”은 글자로 안 보는데 여기서서는 동그라미를 글자로 대우한다.

림-임으로 하는데 발음하기 쉽게 간략하게 하는구나 하고 신경 안 쓴다.

말할 땐 예절이고 쓸 때나 레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든다.

2) 남쪽에 왔으니 이 곳 방식을 따른다는 유형

여기 와서 현재 “레절”이란 걸 까먹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굳이 여기서 그걸 주장할 필요는 없다.

르을 o으로 발음하는 것은 여기서 이전부터 그렇게 써 왔다. 여기서 여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남북이 법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건 다르게 인정해야 한다. 너무나 다른 게 많은데 이걸 아무 것도 아니다.

“예절”로 하는 것...여기서 사는 이상 따르고 이해해야 한다.

3) 북쪽에서 배운 레절이 옳다는 유형

“레절”이 우리 고유한 말이라 이게 맞지만 남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입에 굳은 말이니 까 꼭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아니다.

“레절”이 고유한 말 같다. 여기서 하는 게 다 틀려 보인다. 회사에서 서로 틀렸다고 분쟁할 때가 있다.

북한에서는 어떤 때는 르, 어떤 때는 o을 쓴다. 예를 들어 “리발”이라고 할 때는 르을, “이빨”이라고 할 때는 o을 쓴다. 헛갈리기는 하지만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남한에서는 무조건 o을 쓴다.

북에서 교육 받았는데 “레절”이라고 쓰는 게 맞아 보인다. 글 쓸 때, 레포트 쓸 때 “리-”라고 쓰니까 교수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북한에서 왔다는 게 콤플렉스, 열등감인데, 말이라도 북에서 쓰는 말이 맞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그런 기대와 함께 ‘레절’ 같이 ‘르’하는 게 맞는다고 한참 주장했었다.

위에서 인용한 북한이탈주민의 답변 내용을 관찰해 보면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예절과 레절로 표기하는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 그 속에 숨은 감성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 단초가 나타난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남쪽에서 일반화된 생활문화에 대해 낯설어 하거나 거부감을 표명하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북한식 감성구조의 개입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은 남쪽에 살면서 자신과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 좋고 싫음·친밀감과 낯설음 등 감정적 판단을 내릴 때 북쪽 방식을 의식적으로 고수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언행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남쪽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거나 내면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겉으로 순응하는 등 다양한 반응 양식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분단 상황에서 필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의식구조가 이른바 북한식 감성구조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내용이 해당사안을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하는 일은 무리한 욕심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점에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하며 앞으로 관련사안에 대해 좀더 종합적으로 연구할 기회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점을 밝혀두고 싶을 따름이다.

3. 연구방법과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논문에서는 2002년 8월-10월 현재 국내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5명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바, 우리말 관련 인식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면접의 주요 내용은 이들이 남쪽에 온 뒤 언어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와 원인, 남북한 언어습관의 차이, 한글창제 이후 우리말 역사에 대한 지식, 순수한 우리말 표현과 외래어·한자어 구분, 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면접을 통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쪽에 와서 살면서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할 때 무엇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그 불편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지, 이들이 남북한의 언어생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이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과 태도·의식구조의 실체는 무엇인지, 남북의 언어습관이 차이가 날 때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또 어느 한 쪽을 선호하는 정서적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자료인 만큼 현재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통계적 기법에 따라 선발한 뒤 면담한 것과 비교할 때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추진했던 작업이 앞으로 남북한주민들이 상대 지역 사람의 일상적 언어생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나타내며 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사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응답자를 선정할 때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한 뒤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방식을 활용했다. 면접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는 대체로 호의적이었으나 간혹 질문 내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면접 대상자와 처음 접촉했을 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면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면접을 하다가 중단해도 좋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세-40세 사이로 주로 청·장년층에 몰려 있다. 그 중에서도 21-25세 응답자가 가장 많아 11명으로 31.4%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연령은 18-40세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²⁾ [표 2]·[표 3]를 보면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령별로 구분할 때 가장 인원이 많은 집단이 30-39세이며 20-29세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그런 만큼 이들이 이번 연구의 응답자로 선정된 비율이 그만큼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2) 면접 과정에서 40세 이상 장년층 대상자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이 연령층의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확률이 낮았다.

[표 2]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¹³⁾

단위: 명

나이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1989년 이전	-	104	288	131	55	25	4	607
1990년 - 2002년	145	333	716	802	275	137	115	2,523
2003년 7월 이전	25	87	182	244	103	27	36	704

[표 3] 2002년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¹⁴⁾

단위: 명

연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인원	55	155	332	368	130	61	40	1,141
비율	4.8	13.6	29.2	32.3	11.3	5.3	3.5	100(%)

이번 연구의 면접 대상자들은 1960년대 초반-1980년대 초반에 출생하여 성장기를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남쪽의 동년배 집단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및 미국과 남미, 유럽 등지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 또래 집단의 우리말 관련 인식과 비교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 남쪽에 사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말 연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지역별 비교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는 작업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처럼 지구상에 퍼져 있는 한민족 구성원의 언어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성별 분포를 볼 때 이번 연구의 면접 대상자 중에서 남자는 20명으로 여자보다 많았다. 그러나 여자도 15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각각 57.1%와 42.9%를 기록했다. [표 4]를 보면 분단 이후 2003년 7월 이전에 국내에 입국

13) 통일부 내부자료

14) www.unikorea.go.kr -> 주요업무 현황 -> 북한이탈주민 지원 ->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2003-01-27 등록)

한 북한이탈주민 총 3,911명 가운데 여자는 1,705명으로 2,206명을 기록한 남자에 비해 4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의 면접 대상자를 성별 분포 측면에서 비교할 때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이다.

[표 4]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현황¹⁵⁾

단위: 명

성 별	1989년 이전	1990년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월 이전	계
남	564	158	56	53	90	180	294	515	296	2,206
여	43	25	30	18	58	132	289	625	485	1,705

셋째, 교육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면접 대상자 중에서 60.0%에 해당하는 21명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으며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가 6명이었고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학 및 대학을 다녔던 응답자는 8명이었다.

넷째, 출생지별 분포를 보면 이번 연구의 면접 대상자는 함경북도 24명, 함경남도 5명으로 함경도 출신이 29명에 이르러 82.9%를 기록했다. 면접 대상자가 이와 같은 함경도 출신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은¹⁶⁾ 우선 [표 5]·[표 6]·[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출신 지역에 따라 분류해 보면 함경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면접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단 면접에 응한 사람들의 연고 관계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함경도 출신을 제외하면 양강도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등을 출생지역으로 대답했다. 태어난 곳과 북쪽에 있을 때 주로 생활하던 지역을 구분해서 질문했는데 굳이 구분해서 대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15) 통일부 내부자료

16) 이번 면접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함경도 출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제로 면접 대상자는 아니었으나 이번 면접을 앞두고 만났던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은 개성출신이었는데 북한을 떠난 지 오래 되지 않았으나 발음과 억양이 서울말과 비슷했다. 20대 후반 남자인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서울사람과 비슷하다고 했더니 자신이 북쪽에 있을 때 고향을 떠나 평양 이북으로 올라가면 “왜 계집애 말씨를 하느냐”고 놀림을 받는 일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표 5]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별 현황¹⁷⁾

단위: 명

나이	함북	함남	평안	양강·자강	강원	황해	기타	계
1989년 이전	48	55	177	5	31	117	174	607
1990년 - 2002년	1,484	293	276	136	75	95	164	2,523
2003년 7월 이전	500	87	44	18	17	17	21	704

[표 6] 2001년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별 현황¹⁸⁾

단위: 명

출신지	함북	함남	평안도	양강도 자강동	강원도	황해도	기타	계
인원	380	83	43	30	15	17	15	583(명)
비율	65.2	14.2	7.4	5.2	2.5	2.9	2.6	100(%)

[표 7] 2002년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별 현황¹⁹⁾

단위: 명

출신지	함북	함남	평안도	양강도 자강동	강원도	황해도	기타	계
인원	757	121	95	51	26	39	52	1,141
비율	66.3	10.6	8.3	4.5	2.3	3.4	4.6	100(%)

다섯째, 북쪽에서 직장에 다녔다고 한 응답자는 17명으로 48.5%에 이르지 않지만 이들의 직업은 따로 분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했다. 또한 학생과 군인이었다는 응답자가 각각 12명과 2명씩이었고 직업이 없었다는 사람은 3명이었다.

17) 통일부 내부자료

18) 통일부 내부자료

19) www.unikorea.go.kr -> 주요업무 현황 -> 북한이탈주민 지원 ->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2002-03-19 등록)

참고로 2001년과 2002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북쪽에 있을 때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지 [표 8]·[표 9]·[표 10]에 제시해 놓았다. [표 8]·[표 9]·[표 10]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번 면접의 대상자 35명의 특성을 요약한 [표 11]를 비교해 보면 면접에 응한 35명이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한 이번 연구의 면접 대상자들이 북한에서 학력 및 직업을 기준으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²⁰⁾

[표 8]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별 현황²¹⁾

단위: 명

나이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	봉사분야	군인	기타	계
1989년 이전	13	14	-	141	1	386	52	607
1990년 - 2002년	123	117	60	1,165	156	52	850	2,523
2003년 7월 이전	22	12	9	272	33	2	354	704

[표 9] 2001년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별 현황²²⁾

단위: 명

직업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	봉사분야	군인	기타	계
인원	22	26	16	277	43	7	192	583(명)
비율	3.8	4.5	2.7	47.5	7.4	1.2	32.9	100(%)

20) 이 문제는 이번 면접의 대상자들이 특별히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아서 이들의 우리말 관련 인식이 북한주민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막아주는 근거가 된다.

21) 통일부 내부자료

22) 통일부 내부자료

[표 10] 2002년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별 현황²³⁾

단위: 명

직업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노동자	봉사 분야	군인	기타	계
인원	32	45	18	504	72	11	459	1,141
비율	2.8	3.9	1.6	44.2	6.3	1.0	40.2	100(%)

여섯째, 응답자들은 북한을 떠난 시기와 국내에 입국한 시기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이 국내에 들어 온 경로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해 왔다는 인민군 출신을 제외하면 그 기간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중국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이나 6년에 이르는가 하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을 떠난 뒤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2-4일에 불과했던 사람도 있었다.

일곱째,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각 1명을 제외한 33명이 서울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구자의 편의상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응답자를 접촉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의 면접 대상자 35명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서술한 [표 11]을 분단 이후 2003년 7월 이전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분류와 2001년 및 2002년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을 연령·출신지·직업별로 구분한 [표 2] 이후 [표 10]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조사에 응한 35명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결국 이번 면접의 대상자들이 학력이나 연령·생활수준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특별히 낮은 계층이 아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이번 면접의 대상자들의 대답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23) www.unikorea.go.kr -> 주요업무 현황 -> 북한이탈주민 지원 ->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2003-01-27 등록)

[표 11] 면접 대상자 35명의 전반적 특성

1) 나이	20세 이하	21-25세	26세-30세	31-35세	36세 이상	
	7	11	5	7	5	
	20.0%	31.4%	14.3%	20.0%	14.3%	
2) 성별	남			여		
	20			15		
	57.1%			42.9%		
3) 학력	고등중학교졸업 이하		고등중학교 졸업		고등중학교졸업 이상	
	6		21		8	
	17.1%		60.0%		22.9%	
4) 태어난 곳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24	5	2	2	1	1
	68.6%	14.3%	5.7%	5.7%	2.9%	2.9%
5) 북쪽 직업	학생	군인	무직	직장인*		무응답
	12	2	3	17		1
	34.3%	5.7%	8.6%	48.5%		2.9%
	* 직장인은 조산원, 부기, 마라톤선수, 탄광채탄, 교사, 약사, 식당종업원, 농민, 노동자, 제품검사원, 선반공, 기관조사, 기술준비생, 철도발전소, 철도에서 근무한 사람 등이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대답을 안한 경우도 있어 더 이상 자세한 구분을 하기 어렵다.					
6) 북쪽을 떠난 시기	1996년 이하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4*	6	11	7	3	4
	11.41	17.1	31.4	20.0	8.6	11.4
	* 1992, 1995 각각 한명씩, 1996년 두명.					
7) 남한 입국 시기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	1	2	16	14	1
	2.9	2.9	5.7	45.7	40.0	2.9
8) 북쪽 떠나 남한 입국 전 있던 곳	중국		중국·러시아		바로 입국	판문점에서 귀순
	31		1		2	1
	88.6		2.9		5.7	2.9
9) 지금 사는 곳	서울			기 타		
	33			2 (경기도, 경상북도)		
	94.3			5.7		
10) 지금 하는 일	학생*	대학생	회사원	아르바이트	무직	기타
	6	11	3	4	6	4*
	17.1	31.4	8.6	11.4	17.1	11.4
	* 학생은 '검정고시, 중고생, 대입준비'를 말함 * 기타에는 운전기사, 발마사지 사업, 직업교육, 강연이 각각 한 명씩 있음.					

4. 면접 내용의 분석

1)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일상적 언어생활의 어려움과 그 원인

우선 남쪽에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지 질문한 결과 아주 많다고 대답한 사람이 9명으로 25.7%였고 간혹 어렵다는 응답자가 16명으로 45.7%를 기록했다. 결국 61.4%가 남쪽에서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남쪽에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어려운 경우가 전혀 없다는 사람이 14명으로 40%를 기록했고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응답자는 16명, 45.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처음 남쪽에 왔을 때 언어생활로 인해 강한 충격을 받지만 이 곳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적응해 간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12] 남쪽에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① 아주많다	② 간혹	③ 비슷	④ 많지않다	⑤ 전혀없다	⑥ 무응답	합 계
1 어렵다고 느낄 때	9	16	3	6	0	1	35명
	25.7	45.7	8.6	17.1	0	2.9	100(%)
2 처음과 비교 어려움이 줄어든 정도	0	2	2	16	14	1	35명
	0	5.7	5.7	45.7	40	2.9	100(%)

다음으로 자신이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적해 달라고 질문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원인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많아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순서대로 나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14

명, 40%의 응답자가 남쪽 사람들이 영어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현상이 자신이 언어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발음과 억양의 차이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9명, 25.9%를 기록했고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자가 5명으로 14.3%에 이르렀다. 그밖에 물건의 명칭이나 생활용어, 한자를 몰라서 어렵다는 응답자들이 몇 명씩 나왔다.

언어생활이 어려운 이유를 하나 이상 복수로 지적한 사례는 총체적으로 107회로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항목은 물건 이름을 몰라서 어렵다는 경우로 18.7%를 기록했다. 한편 가장 빈도수가 낮은 항목은 존대말 사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10.3%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고 빈도수와 최저 빈도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로 특정화하기 어렵고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선 발음과 억양 차이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말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이유 없이 무조건 당황하게”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특히 남쪽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감에 따른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은 만날 자신이 없다. 무시당할까봐... 몇 번 생각하고 말하고, (남한사람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한 사람과 말한다.

억양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또 억양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다. 이것 때문에 ‘어디서 왔어’라는 말 듣게 된다. 말을 하다가 ‘어디서 왔나’ 하면 망설인다. 질문할 때 억양이 틀리면 아이들 눈길이 쏠리고 멍뚱하고 하니깐 질문하기가 꺼려진다.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어도 따로 만나서 질문한다.

발음과 억양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남한말 다 알아도 어찌다 툰이 이상하면 아이들은 짝어낸다. 학원 갔을 때 애들과 말하는데, 물건이름이 생각 안 나 생각나는데로 말하면 ‘고향이 어디야’ 하고 묻는다. 잘 모를 때는 최대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아파트 단지 지하상가 식당에서 ‘냉면 하나요’ 했는데, 아줌마가 못 알아들었다. 옆에 있는 남한사람이 ‘냉면이요’ 하니깐 알아들었다. 같은 냉면이라고 한 것도 내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억양이 서로 다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남한) 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이 된다.

한마디에 ‘교포시군요’하고 이방인처럼 생각한다. 자기 민족 아니구나 하는 걸로 생각돼 열등감 든다. ‘교포구나’ 할 때 ‘제 나라 사람 아니구나, 남이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 위축감 들고 말 못 하겠다.

어디가나 상대가 한국사람으로 보면 좋은데 조선족으로 봐서 위축감이 들어 기분이 안 좋다.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다. 말하면 척 ‘조선족’이라 한다. 한 두 마디만 벗어나면... 첫인상이 그렇게(조선족으로) 비춰서 위축된다.

응답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상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남쪽의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응답자가 북쪽에서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 많은데 그 이름을 모르고 또 남쪽에서 보편화된 생활용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언어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인용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각종 가전용품을 비롯하여 야채와 과일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이름이 복잡해서 (피망이나 케일, 키위 등)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냉장고의 냉동칸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매번 알려 주어도....또 북한에서는 반바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죽부인도 보지 못하던 것이라서 낯설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헷갈린다....햄버거 집에 갔을 때 샐러드라는 말도 어려웠고...주문할 때 내 발음이 이상하게 들릴까봐 데리버거 같은 것은 안 시키고 새우버거, 불고기버거처럼 내가 알만한 것만 시켰다.

누구 소개를 받아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호치케스가 뭔지 몰라서 헤맸다. 사장이 뭔가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물건이 호치케스였는데...북쪽에서 안 쓰던 물건이라서...

그러나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곤란을 겪는 이유를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따른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남쪽 사람들이 영어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남쪽 사람들이 영어를 쓰지 않으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표 13]을 통해 응답자들이 제시하는 바, 국내에 입국한 뒤 자신이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표 13]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① 발음과 억양의 차이	② 남쪽 사람의 영어표현 때문	③ 존대말 사용법의 차이	④ 한자를 잘 몰라서	⑤ 물건 이름 몰라서	⑥ 생활용어 몰라서	⑦ 심리적 위축감 때문	합 계
3	어려움의 첫째 원인	9	14	0	2	3	2	5	35
		25.9	40	0	5.7	8.6	5.7	14.3	100(%)
	어려움의 다른 원인들	15	19	11	12	20	16	15	107
		14.0	17.8	10.3	11.2	18.7	15.0	14.0	100(%)

상당수의 응답자는 생활현장에서 영어로 된 약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곤란한 일을 겪은 경험은 소위 “영어표현”과 이 표현을 쓰는 남쪽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응답자 중에서는 KAL이 대한항공이며 POSCO가 포항제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장소에서 해매거나 가수 HOT와 맥주집 간판에 나오는 HOF를 혼동하기도 하고 삼성동 COEX로 오라는 말을 듣고 삼성그룹 소유의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삼성그룹 본사를 찾아가는가 하면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불스원사를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이 남쪽 사람들이 쓸데없이 영어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계화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가 왜 영어를 써야 하는가? 더욱이 남쪽 사람들이 영어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미국 말도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다. 미국 사람이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한 마디로 짬뽕이다....외래어는 알 필요도 없고 내 방식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외래어로 뭐 찾아와라 하면 몰라도 아는 척 한다.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니까...한번은 내가 무식해서 모르니까 뭔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못해 주더라...여기 사람들은 외래어를 많이 써서 분명히 한민족인데도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어머니는 미국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완전 영어를 하면 모르지만 남쪽 사람들은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별나게 섞어서 완전 영어도 아니다.

[표 14] 영어로 된 약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한 경험 여부

	① 매우	② 그런편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편	⑤ 전혀	무응답	합계
영어로 된 약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거나 당황한 경험을 한 일이 많다	9	15	5	6	0	0	35명
	25.7	42.9	14.3	17.1	0	0	100%

문제는 도저히 남쪽 사람이 영어를 사용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응답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무슨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남쪽 사람이 영어를 썼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는 내 자리”라고 하면서 뭔가 영어표현을 썼다고 말한 응답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마도 자신이 노약자 보호석에 앉아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탄 아주머니 한 분이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상황에서 아마도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했던 아주머니가 이 곳은 노약자보호석이라는 말을 했다면 타당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영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언어사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실상 발음과 억양의 차이나 심리적 위축감 등 다양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주로 남쪽 사람들이 영어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남북한의 우리말 사용실태에 관한 인식

자신이 남쪽에 와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가 이 곳 사람들이 영어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태도는 남북한의 우리말 사용실태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는 다음 문항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15] 남북한의 우리말 사용실태에 대한 인식

	① 매우	② 그런편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편	⑤ 전혀	무응답	합 계
북쪽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쓰는데 남쪽에서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많이 쓴다	26	8	1	0	0	0	35명
	74.3	22.9	2.9	0	0	0	100%
우리말을 지키고 교육하는 것에 관한 한 북쪽이 남쪽보다 앞서 있다	13	12	5	2	3	0	35명
	37.1	34.3	14.3	5.7	8.6	0	100%
남쪽 말은 영어와 일본어를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잡탕말이라는 느낌이 든다	17	11	3	3	0	1	35명
	48.6	31.4	8.6	8.6	0	2.9	100%
북쪽에서도 노어와 일본어 등 외래어와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다	0	9	7	9	10	0	35명
	0	25.7	20.0	25.7	28.6	0	100%
남쪽의 존대말 사용법이 북쪽과 달라서 상황에 맞게 존대말을 잘 하는 것이 어렵다	4	8	5	10	8	0	35
	11.4	22.9	14.3	28.6	22.9	0	100

우선 북쪽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쓰는데 남쪽에서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문장에 대해 응답자의 74.3%에 달하는 26명이 매우 그렇다고 했으며 그런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22.9%로 8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35명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34명이 이 문장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그 비율이 무려 97.1%를 기록했다.²⁴⁾

좀더 구체적으로 응답자들 상당수가 우리말을 지키고 교육하는 것에 관한 북쪽이 남쪽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며 남쪽 말은 “영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잡탕말”인 반면 북쪽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노어와 일본어 등 외래어와 한자어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인식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상호 모순이 되거나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북한에서도 남쪽 못지 않게 외래어를 많이 쓴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쓰기는 써도 아주 조금만 쓴다고 하거나 우리말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외래어를 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일제시대 영향으로 일본어는 쓰지만 노어는 쓰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노어는 조금 쓰지만 일본어는 전혀 안 쓴다고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응답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 북한에서 이들이 일본어를 비롯한 외래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었다는 점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노어는 아니고 일본어 쓴다. 아지나모도, 벤또... 학교에서는 안쓰고, 엄마한테 들었다. 광밥 잘안쓰고 벤또라고 한다. 일제시대 영향으로...

북에서 쓰는 알고 있는 로어는 땅크, 뜨락뜨르, 텔레비전이 있고, 일본어는 극히 매우 적게 쓴다.

조선말로 번역 못하는 것만(예를 들어 뻘지 같은것), 왜정때 산사람들만 외래어를 쓴다. 벤또와 밥곽을 섞어서 쓴다.

일할 때 어떤 분이 앉아서 “사장 데려와” 했는데 북한에서는 접시를 “사라”라고 해서 “사장”을 “사라”로 알아듣고 접시를 가져 간 적이 있었다.

24) 통계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오신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원과 각 지역의 교육연수원, 군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북한은 순수한 우리말을 지키고 남한은 외래어가 많으니 우리말을 가꾸고 지키는 문제에 관한 북한이 앞서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확신에 찬 태도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북한은 순수한 우리말을 지키고 남한은 외래어를 쓴다는 인식은 2002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남북한 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으로 판단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통계적인 조사를 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면접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가치를 지니는 소수의 의견이 나왔다는 점이었다. 우선 북쪽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데 남쪽은 잡탕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의 열등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게 콤플렉스, 열등감인데, 말이라도 북에서 쓰는 말이 맞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그런 기대와 함께 ‘레절’ 같이 ‘르’하는 게 맞는다고 한참 주장했었다.

둘째, 우리말을 지키고 교육하는 것에 관한 한 북쪽이 남쪽보다 앞서 있다는 문장에 대해 그저 그런 편이라고 대답한 12명은 대부분 북쪽이 남쪽보다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유가 북쪽이 우리말을 지키고 교육하는 것에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은 북쪽이 남쪽에 비해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북쪽이 외부세계와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세계와 교류가 없다 보니 그만큼 외래어가 들어올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외국 사람 대하지 않으니까 외국어 안 해도 되지만 여긴 많은 외국 사람과 왕래 하니까 외국어 쓰는 것이다.

컴퓨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컴퓨터와 관련된 영어 용어들이 많다. 또 인터넷 정보를 통한 영어로 된 용어가 많다. 북쪽도 벤또 같이 일본말이 많다. 듣고, 보는게 없어서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 뿐이다. 남한은 듣는게 많아 그걸 해석 다 못하니까 그냥 (외래어로)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차일반이다. 한국은 그래도 벤또를 도시락으로 바꿨지 않나!

남쪽이 미국사람 많이 접촉하다 보니 환경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셋째, 일부 응답자는 북쪽에서도 남쪽 못지 않게 외래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당근을 닌징이라고 하며 양과를 다마네기, 나무젓가락은 와리바시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테제와 카바, 아지노모도, 벤또, 아이스크림 등 외래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또한 북쪽에서도 외래어를 쓰지만 뻘찌와 같이 조선말로 옮길 수 없을 경우에만 쓴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건 가져 오라할 때 ‘당근’이라고 하면 모르겠다. 북한에서는 ‘당근’을 ‘닌징, 홍삼’이라고 하는데...많이 쓰긴 써도 그게 일본 말인지 모른다. ‘닌징’이 일본말인지도 몰랐다. 여기 와서 알았다. 바께츠, 쓰레바끼 다 여기서 일본말인지 알았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북쪽에 있을 때 자신들은 순수한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는 남쪽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배웠다가 이 곳에 온 뒤 막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쓰레받기처럼 우리말인 단어도 일본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다. 물론 북한에서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북쪽에서 사용하는 고뿌는 외래어라고 해도 남쪽에서 말하는 컵과 용례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북한에도 외래어가 있다. 벤또도 일본어고, 뜻이 한자로된 용어도 많다. 예를 들어 자력갱생, 간고분투 다 한자다.

물컵, 음료수 마시는 컵,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컵을 고뿌라하는데, 여기 남한에서는 쥬스잔, 커피잔...이 따로 있어 여기의 컵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

넷째, 남쪽의 존대어 사용방법이 북쪽과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이었다. 연구자의 예상과 달리 응답자들은 자신이 존대어 사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면접을 진행하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다 보면 응답자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존대어 사용예절 때문에 당황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응답자들은 남쪽의 존대어 사용방법과 아울러 예절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북한은 존대말이나 보통말이 비슷하다. 생신, 3인칭 단수로 쓰는 당신. 이런 단어를 잘 몰랐다. TV에서 “당신이..” 하고 말하는데 무슨 소린지 몰랐다. 모임에 갔을 때 나이 드신 분 앞에서 무심결에 말이 잘못 나와 애들 앞에서 지적 당해 민망했다.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피해 다녔다.

북한에 있을 때 나이 차이 몇 살 나는 사람이나 아버지한테도 반말했는데 여기서는 한 살 차이라도 존대말 한다. 남한이 더 예절 따지는 거 같다. 대화할 때 더 도덕 갖추는 것 같다. 몇 살 위라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어린 사람한테 존대하는 것을 알았다. 북한에서는 그냥 모르는 사이라도 어려 보이면 툭 반말한다.

북쪽에서는 예의없는 말들이 있다. “아버지, 밥 먹었습니까?” “아버지, 밥 먹었소?” 이런 말... 여기서는 “식사하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한다. 더 고상하게 듣기 좋게 한다.

존대말이나 예절바른 말 교육하는 곳이 있다면 배우고 싶은데 엄마, 아빠에 대한 존대말, 나이 먹은 분들에 대한 존대말을 잘 모르겠다. 우리는 “셨”자가 안 들어 갈 때가 많다. 여기 존대말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선생님이나 어린 나이는 어떻게 물어 볼 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배우고 싶다. “나이가...” 하기도 어렵고 뭐라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남쪽 사람은 겸손한 표현하는데 북쪽은 겸손성이 없다.

북한 사람은 한 두 살 차이는 허물 없는데 여기서 그렇게 편하게 말하면 반말로 들리나 보다. 회사에서 말하면 “어따 대고 반말이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경상도 가니까 연세 많은 분을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로인님이라고 한다. 어르신 안 쓴다.

레벌 자체, 절 자체가 남북이 틀리다. 하나원 교육에서 하는데 생활에서 배어 있지 않아 자꾸 잇는다.

그런가 하면 남쪽에 온 뒤 이 곳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아 실망했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존대어 사용습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배달 간 적이 있는데 조금 늦으면 막 짜증낸다. 내 성격이 원래 화를 잘 안 내는데 상스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갈 정도로 화나게 한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해 안 해 준다. 초보적 예의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막 썩댄다. 자기가 높거나 낮거나 나이 많거나 적거나 막 한다.... 내가 중국에서 생각할 때 남한 사람은 문명인이고 예의바르리라고 생각했다. 잘 살수록 문명국가로 생각했는데 북한보다 더 하다.

같은 회사 여직원이 나보다 두 살 어린데 반말한다. “○○언니, ..주세요” 할 걸 “○○씨” 하고 반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국 아가씨 다 그렇게 버릇 없어? ‘요’자 붙여 주면 안돼?” 하고 따졌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하고 동갑인 남자 대리한테도 반말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원래 여기 말씨가 이런가 보다 한다. 남쪽 사람들은 반말을 예사로 하는 것 같다.

북에서는 선생님께 “...요” 이런 말 없다. 이랬단 큰 일이다. 일반어른한테만 “...요” 한다. 선생님께는 “...까”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를 선생님께 붙이더라. 그래서 나도 그게 입에 붙었다.

여기 와서 “...어요” 하지 거기서는 “...습니까” 했다.

TV에 나오는 것 보면 “엄마, 식사했어요?” 한다. 우리 북한보다 예절 없다. 존중이 부족하다. 우리는 “식사했습니까?” 하는데... 여기서는 “했어요” 한다. 반말처럼 느껴진다.

한 살 위인 사람이 반말하길래 나도 반말했다. 그러니 나더러 “형님”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욕하면서 “나도 한국사람이다” 했다. 일곱 여덟살 위인 사람은 나를 아주 자기 자식 대하듯이 하면서 “야, 야” 하고 소리지르면서 부른다. 그럼 막 욕하면서 “내일부터 일 안한다” 하면서 소리지른다. 북한에서 왔다고 업신여긴다.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낮추어 보는구나 하는 예감이 많이 든다. 회사에서 나이가 아랫사람인데 “이랬어, 저랬어” 하면 한국 사람은 반말 하는구나 하면서도 가만 생각하면 기분 없다. 북한에서 못 사는데서 오다니니까 영 낮추보는 것 같아 우려된다.

우리 부모도 예절이 대단히 밝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존대말 쓴다...그런데 아는 사람을 만나 “아바이”라고 했더니 “형님”이라고 하라고 했다. 술 먹어 정신없을 때는 형님이라고 하지만 맨 정신에서는 힘들다. 나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형님이라고 하겠는가?

여기서는 나이가 나보다 아주 많아도 대개 언니, 형님 하고 부르고 나이 많은 사람도 아저씨라고 부른다. 북한에서는 웬만하면 다 아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이 적게 불러줘야 좋아한다. “경비 아바이”라고 하다가도 얼른 아저씨라고 고친다.

35명에 불과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북한주민의 우리말 사용실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수 의견은 앞으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해소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우리말 사용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와 한자어 표현 15개 항목을 제시한 뒤 응답자들이 각각의 항목을 외래어와 한자어로 정확하게 구분하는지 실험해 보았다. 응답자는 각 항목을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로 구분하게 되어 있지만 막상 제시한 항목 가운데 우리말 표현은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15개 항목 모두 북한의 방송과 신문, 잡지, 소설, 영화에 자주 등장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한정하였다. 일단 응답자들이 각 항목을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로 구분하고 난 뒤에는 어디서 그 단어를 알게 되었으며 그 뜻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내용을 아래의 [표 16]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6]에 제시한 15개 용어 중에서 고뿌, 뜨락또르, 우라카이, 노르마, 뽀트, 벤또, 감빠니아, 테제 등 8개는 외래어인데 그 중에서도 고뿌와 우라카이, 벤또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남쪽에서도 예전에는 흔히 들을 수 있었으나 자연스러운 언어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최근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직승기와 이신작칙, 교시, 로작, 총화, 원문통달, 강연제강 등 7개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용어에 해당한다.

[표 16] 북쪽의 일상용어에 대한 외래어/한자어 구분의 정확도

	① 외래어, 한자어, 우리말 구분			② 언제 이 표현을 알게 되셨습니까				③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외래어	한자어	우리말	모름*	중국 등 제3국에서	하나원에서	남쪽에서	안다	불명확*	모른다*	합계
1) 고뿌	15	0	17	2	0	0	0	34	1	0	35
	42.9	0	48.6								
2) 트락또르	21	0	13	1	0	0	0	34	1	0	35
	60.0	0	34.3								
3) 직승기	1	8	24	2	1	0	1	27	7	1	35
	2.9	22.9	68.6								
4) 우라카이	20	1	5	9	1	0	0	21	4	10	35
	57.2	2.9	14.3								
5) 노르마	18	1	1	15	1	0	1	12	6	17	35
	51.4	2.9	2.9								
6) 쏘트	20	0	2	14	0	0	0	11	8	16	35
	57.1	0	5.7								
7) 이신작척	1	13	13	8	0	0	0	15	11	9	35
	2.9	37.1	37.1								
8) 교시	0	16	17	2	0	1	0	33	2	0	35
	0	45.7	48.6								
9) 로작	0	14	17	4	0	0	0	30	2	3	35
	0	40.0	48.6								
10) 총화	1	9	22	3	0	0	0	34	0	1	35
	2.9	25.7	62.9								
11) 벤또	32	0	2	1	0	0	0	34	0	1	35
	91.4	0	5.7								
12) 캄빠니아	20	1	6	8	0	0	0	15	14	6	35
	57.1	2.9	17.1								
13) 테제	3	8	7	7	1	0	0	17	2	16	35
	8.6	22.9	20.0								
14) 원문통달	0	9	21	5	0	0	0	32	0	3	35
	0	25.7	60.0								
15) 강연제강	0	10	21	4	0	0	0	26	6	3	35
	0	28.6	60.0								

15개 용어 중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우리말 표현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직승기(68.6%), 총화(62.9%), 원문통달(60.0%), 강연제강(60.0%) 등 한자어 표현이었다. 그 이외에 고뿌와 교시, 로작 등은 모두 응답자의 48.6%가 우리말 표현으로 알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여 힘든 일을 먼저 한다는 의미로 쓰여 사실상 술선수범으로 쉽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산작칙이라는 단어는 37.1%의 응답자가 우리말 표현이라고 대답하였다.²⁵⁾

심지어 트락또르와 테제, 감빠니아 등 형태상 외래어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용어의 경우에도 우리말 표현이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34.3%와 20.0%, 17.1%에 이르렀다. 또한 고뿌와 우라까이, 벤또 등 일본말에서 유래한 용어도 순수한 우리말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2명의 응답자는 제시해 놓은 15개 항목이 모두 우리말 표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래에서 먼저 15개 항목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북한에서는 자주 쓰는데 남쪽의 생활문화에서 비슷한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북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제시하고 그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다만 6) 뽀트는 남쪽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그 이해를 돕고자 북한의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67년 3월 28일자 4면에 게재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73회 독자들의 의견에 나온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²⁶⁾

<펀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한 가지로만 다듬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품펀드, 예비펀드, 식량펀드, 로임펀드> 등에서는 <뭇>으로 하고 <생산펀드, 고정펀드>에서는 <재산>으로 하고 <축적펀드, 구매펀드>에서는 <밑돈>으로 다듬자는 안을 지난 번 지상토론에 내놓았다.... 그러나 <축적펀드, 구매펀드>의 경우에는 <펀드>를 <밑돈>으로 하느니 보다 <밑천>으로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25) 실제 면접과정에서 15개 용어를 구분하면서 모든 응답자가 각각의 항목이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 중에서 어떤 속성을 지니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응답자 개인이 각 항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확신이 없어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그 사람 자신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구분을 무조건 받아들여 표기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정도가 설문 결과로 나온 자료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26) 인용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뽀트로 발음하고 로동신문에서 펀드로 표기한 단어는 영어의 fund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5명의 응답자 중에서 이 단어의 어원을 알고 있거나 설명해 주는 분은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이 각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응답자들의 설명은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표현을 생략하거나 다듬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대부분 응답자의 설명을 읽으면서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15개 항목에 나온 단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15개 항목 모두 북한의 텔레비전이나 신문, 소설은 물론 북한이탈주민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르겠다고 하거나 들어 본 기억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대답이 드물지 않게 나왔다는 점이다. 또한 “깜빠니아”와 “깐닝구”처럼 원래 의미가 달라 혼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뜻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마도 북한에서 생활할 때 집단적으로 온 조직원이 달려들어 우선적으로 처리했던 일이 결국에는 눈속임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들의 경험을 반영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1) 고뿌: 컵의 일본식 발음

물컵, 음료수 마시는 컵.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컵을 고뿌라 하는데 여기 남한에서는 쥬스잔, 커피잔.. 다 따로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컵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

요즘에는 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고뿌라고 한다.

물 담는 그릇. 물컵. 물컵인데 음료수는 다 담을 수 있다.

지금은 이게 일본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2) 트랙포르: 트랙터

남쪽에도 트랙포르 있어요? 이걸 북쪽에만 있는 기계인데...

농촌에서 주로 쓰는 차. 밭갈 때, 짐 나를 때.

밭갈이하는 기계

물건 나를 때 쓰는 트럭인데 남쪽에는 없다. 여기서 못 봤어요.

러시아어인데 남한의 트랙터와 같은 뜻. 밭가는 기계.

여기 경운기 같은 것.

뭔지 모르겠다.

밭에 김매고 갈아엎을 때, 김 나를 때 쓰는 차
차인데 농사 지을 때, 거름 나를 때 쓴다. 농촌에 필요한 도구
농촌에서 김 나르고 밭 갈 때 쓰는 것. 경운기
남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농촌에서 밭가는 것

3) 직승기: 헬리콥터

뜨는 비행기. 헬리콥터. 프로펠라
북한에서 헬리콥터로 배웠어요. 우리 학교는 모두 영어반이어서 고등중학교 1-6학년
때 영어로 배웠어요.
비행기 종류. 몇 명 안 타는 것 같다.
비행기와 비슷한데 좀 다르다.
비행기인데 뜨고 가다가 활주로 없이 뜨고 내릴 수 있다.

4) 우라까이: 안과 밖을 뒤집는다

무조건 다 바꾼다는 뜻. 완전히 뒤집는 것
뒤집는다는 뜻. 옷을 뒤집거나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안 하겠
다고 뒤집는 것. 이 말을 많이 써요. 한 조직의 고위직 간부를 다 없애고 새로 간부를
세울 때 이런 말 해요.
바지 고칠 때 뜯어서 고치는 것
자동차가 마사졌을 때 부품 뜯어내고 다시 갈아끼우는 것. 부품 교체
막 뒤집어엎는다는 뜻. 옷을 손질해서 안을 바깥으로 우라까이 시킨다는 식으로 쓴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어봤다. 뜻은 잘 모른다.

5) 노르마: 생산 할당량

체육단, 구락부 있을 때 이 말을 많이 썼다.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6) 뽀트: 입당·입학할 때 각 지역과 학교에 배당하는 할당비율

대학 갈 때 입학뿐트가 몇 개 나왔다고 한다. 북한에서 이 말을 많이 쓰면서도 어디서 나온 말인지 궁금했다.

기회 같이 주어진 특별한 권리

대학입학시험 자격과 같은 것

때릴 때 한 뼉치 먹인다는 식으로 쓴다. 싸움할 때 주먹으로 때린다는 뜻이다.

이과대학에 뿐트가 있다는 식으로 쓴다.

못 들어봤다.

뜻은 모르는데 들어 봤다.

북한에서 대학 가려면 국가교육부에서 어느 대학 몇 명인지 정해서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주는 것. 대학 아니라도 다른 곳에도 적용.

직장에 갈 때 그 자리가 없으면 뿐트 없다고 한다. 놀 때도 많이 쓴다. 나도 끼워 줘야 하면 놀 자리 없어서 안된다고 할 때 뿐트 없다고 한다.

7) 이신작척: 솔선수범

자기가 앞서서 모범되는 것

여러 사람이 한 마음 되어서 일하는 것. 서로 도와서 일하는 것

모른다.

자신이 책임자일 때 모범이 되어 아랫사람을 이끈다

남한테 모범 보이려고 이것저것 자기가 먼저 잘 하는 것.

8) 교시: 가르침

김일성 말을 군중들에게 전달할 때 교시 전달. 김일성 말 존대해서 표현하는 것

김일성 말은 교시이고 김정일 말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쓴다.

높은 사람의 가르침. 높은 사람이 하는 말. 말씀. 지시

김일성-김정일이 명령 내리는 것

말씀보다 더 높은 존경어.

김일성 원수님 교시. 위대한 분의 말. 하나님 말씀처럼 절대적인 말

9) 로작: 땀흘려 쓴 글, 귀중한 저술작품

김일성, 김정일 정치관 등을 서술한 것. 김일성, 김정일 로작

김일성 저서, 회의 논문, 집필한 거 역사에 남기기 위해 정책 방향 가르쳐 주는 책. 김일성 로작, 김정일 문헌이라고 한다.

김일성 수령이 내놓은 글. 이걸 남한에 없는 말이죠?

아주 높은 사람이 펴낸 글. 김일성-김정일이 뼈대를 잡으면 살을 붙여서 펴낸다.

책. 김일성저작선집 같은 것

김일성에 대해 나온 책. 무슨 로작이라고 쓴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북후의 로작 같이 쓴다. 김정일 책

10) 총화

하루 한달 생활을 남들 앞에서 얘기하고 충고하고 반성하는 일

무슨 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의논해서 대책안 마련하는 것

일과를 총정리하고 때릴 건 때리고 올릴 것은 올리는 작업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되새김하고 되풀이하는 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일을 하나하나 토론하고 결산해서 잘못된 것 지적해요. 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학교에서는 인민학교 3학년부터, 소년단 입단한 다음부터 토요일마다 1주일에 한 번씩 총화했어요.

하루면 하루 동안 자기가 살아 온 것을 다시 그대로 그려내는 것

사상투쟁하는 것. 인민학교 때 소년단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총화하고 달마다 월말총화, 분기총화, 일년에 한 번 연간총화했다.

회의하는 것. 7살 때부터 늙어죽을 때까지 생활총화, 조직생활총화, 당생활총화 많이 한다.

소년단총화, 직맹-당 총화, 사로청 총화, 생활총화, 어떤 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것. 인민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인민학교 2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생활총화한다.

학교에서 다 끝나고 잘했다, 못했다 하고 구분해 주는 것

11) 벵또: 도시락

밥꼭이라고도 하는데 도시락이다.

밥 담은 용기. 밥 담아 먹는 그릇

곽밥. 도시락

도시락인데 벤또라고 많이 한다.

벤또가 외래어라는 것은 한국에 와서 알았다. 우리말인 줄 알았었다.

12) 캄빠니아: 집단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 일을 추진하다

눈가림 식으로, 캄빠니아 식으로 외운다는 것은 뜻도 모르면서 외운다는 것이다. 검열한다 할 때 캄빠니아 식으로 한다는 건 앞에서는 말 잘 하고 내용 없는 거짓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반짝하면서 해치우는 것. 지그시 하지 않고 한 시기나 계절에만 순간적으로 열올려 하는 것

빠른 속도로 시기에 맞게 하는 것. 다른 것 다 미루더라도...

급하니까 결과만 생각해서 하는 것. 캄빠니아적으로 하면 안된다.

대충대충하는 것. 몰래 하는 행위

선생님 몰래 도둑질해서 시험답안 베끼는 것 (그것은 간닝구라고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캄빠니아와 간닝구가 같은 말이라고 설명함)

캄빠니아적이라는 것이 속여서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들은 기억은 나는데 잘 모르겠다.

시험 볼 때 훑쳐 보는 것.

13) 테제: 논문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 (농업부문, 공업부문) 갈 길 밝혀주는 최종 목적을 다룬 문헌

농촌테제. 로작과 테제로 선동한다.

각 부문에 맞는 발표 내용

꼭 지켜야 할 것. 법 제정한 것을 말한다.

당에서 제시한 사회적 과업을 책자로 쓴 것

농촌테제라는 말 많이 썼다. “개혁”과 비슷한 뜻. 일을 완전히 바꿔서 선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들어 못 봤다. 모른다.

사회주의 테제

14) 원문통달

정치에 관한 것인데 “신년사 원문통달하자” 하는 식으로 쓴다

전문 외우는 것. 김일성 로작을 많이 외운다.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인데 원래 상태에서 글자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외운다.

모두 외우는 것.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외우는 것

글이 있으면 그걸 통째로 암기하는 것

로동신문에 나온 기사를 생활총화할 때 완전히 외워서 보고하는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우는 것.

15) 강연제강

그날그날 회의한 기본 내용, 강연 같은 것

북한은 시기마다 강연회한다. 남쪽에서 팀 스피릿 한다 하면 북쪽에서도 이 때 맞춰서 백성에게 정세와 삶의 길을 가르칠 수 있게 꾸며놓은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토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것

강연제강이 나왔다는 식으로 쓰는데 기본핵심으로 이번에 꼭 해야 하는 주제를 말한다

강연에 대하여 뜻풀이하거나 더 깊이 연구하는 것

그 때 어려서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문서. 연설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책 같은 것.

강연하기 위해 글을 써 준비하는 것

회의할 때 이 강연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회의하는가, 강연 내용을 담은 글

사람들한테 당의 방침을 말해주려면 강연제강 있어야 한다.

강연하라고 제목과 내용이 위에서 내려 온 것을 말한다.

[표 16]에서 제시한 결과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각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주민 대다수가 북쪽이 남쪽과 비교해 볼 때 순수한 우리말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생활용어 중에서 무엇이 우리말 표현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약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남쪽에서는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는 일에 관한 한 북쪽이 앞서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표 16]의 면접 결과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충격적인 현상으로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3) 우리말과 글의 역사와 형태적 특성에 대한 지식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부분에서는 응답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말과 글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추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글의 창제와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남북한 주민이 앞으로 우리말의 역사와 관련하여 마땅히 기억해야 할 인물 15명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그 인물이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인물에 대해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내용을 [표 17]에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이 각각의 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도 참고자료로 아울러 첨부하였다.

1) 세종대왕

북쪽에서 역사 시간에 들은 것 같다. 왕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다.

한글 만든 사람 아닌가요? 한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남한에 와서 남쪽 역사책에서 배웠다.

고중 4학년 때 역사 교과서에 나왔다. 한글 창제한 사람.

조선력사에 나오는데 조선 13대 왕조로서 화폐를 만든 사람

하나원에서 배웠는데 조선글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나원에서 배웠는데 조선시대 제일 이름있는 왕이라고 했다

남쪽에 온 뒤 대학교 교육학 시간에 한글 만든 사람이라고 배웠다.

지금도 자세히 모르는데 전쟁에서 싸운 위대한 장군?

남쪽에서 배웠는데 조선시대 때 역사적인 인물

한자 만들었다고 하나원에서 배웠다

옛날 우리 나라 왕

옛날 영화에 나왔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 했는지 기억 안 난다.

북쪽 영화에 나왔는데 세종장군?

중국에서 알았는데 삼 형제 중에서 막내로 초대 왕을 지냈다

들어만 봤다.

조선역사 책에 나오는데 훈민정음 창제했다고 안 나오고 창제 당시 있던 인물로 북에 서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한국에 오니까 훈민정음 창제했다고 했다.

중국에서 알았는데 조선글 만들고 지폐에 나오는 사람이다.

한국에 온 뒤 영화와 책에서 봤는데 한글 지은 왕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역사책 볼 때, 국어문학이나 옛날 조선력사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다.

역사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생각 안 난다.

북쪽에서는 조금 들었는데 남쪽에 와서 자세히 들었다.

우리 글을 만들 때 왕으로서 크게 승인 보장을 했다

2) 성삼문

세종대왕 말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 배워서...

들어 봤는데 잘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하려니 생각이 안 난다.

훈민정음 창시자 중 한 명. 사육신 중 한 명

북쪽에서 목화 가져 온 사람이라고 했다.

		안다	모른다	명확히 알지못함	합계	북쪽	중국 등 제3국	하나원	남쪽	합계
한글창제										
1)세종대왕		22	2	11	35	20	2	4	7	33
2)성삼문		1	31	3	35	2	0	0	2	4
3)신숙주		1	33	1	35	2	0	0	0	2
4)정인지		1	33	1	35	1	0	0	1	2
합계	명	25	99	16	140	25	2	4	10	41
	%	17.9	70.7	11.4	100	61.0	4.9	9.8	24.4	100
분단이전 국어학자										
5)주시경		1	33	1	35	0	0	1	1	2
8)최현배		0	33	2	35	0	0	0	2	2
합계	명	1	66	3	70	0	0	1	3	4
	%	1.4	94.3	4.3	100	0	0	25.0	75.0	100
분단이후 북쪽국어학자										
6)유열		0	31	4	35	2	0	0	2	4
7)김두봉		0	29	6	35	2	1	0	3	6
9)이극로		1	32	2	35	1	0	0	1	2
합계	명	1	92	12	105	5	1	0	6	12
	%	0.96	87.6	11.4	100	41.7	8.3	0	50.0	100
분단이후 남쪽국어학자										
10)이희승		0	34	1	35	0	0	0	1	1
합계	명	0	34	1	35	0	0	0	1	1
	%	0	97.1	2.9	100	0	0	0	100	100
분단이전 예술인·문인										
11)이광수		7	20	8	35	11		0	4	15
12)한용운		5	30	0	35	0		1	4	5
13)김소월		17	16	2	35	8		5	6	19
14)방정환		2	31	2	35	0		0	4	4
15)최승희		6	27	2	35	4		0	4	8
합계	명	37	124	14	175	23	0	6	22	51
	%	21.1	70.9	8.0	100	45.1	0	11.8	43.1	100

[표 17] 한글과 민족문화의 역사적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지식 정도

3) 신숙주

시기는 모르겠는데 무슨 무기 같은 것 만들지 않았는지...

4) 정인지

역사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일 했는지 모른다.

훈민정음 창시자 중 한 명. 사육신 중 한 명

5) 주시경

하나원 국어선생이 말했는데 국어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했다.

6) 유열

이름이 익숙하고 많이 들었는데 아마 김구와 연결된 민족주의자인 것 같다.

가수 아니에요?

7) 김두봉

독립운동가

이름을 들어봤다.

북조선 노동당 간부였는데 반당적 인물로 숙청되었다.

투쟁한 분. 열사. 일제시대 때 열사 같은 거 잘 안 배웠다. 김일성-김형직에 대한 것 배우느라...그래도 유관순 열사는 안다.

8) 최현배(외솔)

연대 다니는데 학교에 동상도 있고 외솔관도 있다.

9) 이극로

회고록에서 봤는데 수령이 이극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종파분자 혐의 받고 함경북도 새별군에 와서 죽었다.

10) 이희승

응답자 중에서 이희승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전혀 없음

11) 이광수(춘원)

엄마한테 들었는데 무슨 장편 소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시인. 친일파

[민족과 운명]의 [카프 작가편]에서 나쁜 사람으로 나온다. 일제시대 친일파로 외세를 따르 작가라고 했다.

[조선의 별]이란 영화에 나온다. 독립운동가

작가이며 시인

민족반역자

문학잡지에 나왔는데 반역자, 친일파라고 했다.

영화에 나오는 시인

[민족과 운명]에 나오는데 글 쓰는 사람이고 친일했다고 한다.

12) 한용운(만해)

남쪽에 온 뒤 학원에서 배웠는데 책도 내고 불교에서 독립운동도 했다고 한다.

13) 김소월

북쪽에서 일제시대 영화를 봤는데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등을 본 것 같다.

북한에서 이 사람 시 다 외웠다. “아서라. 세월은 한때란다. 이 가을 다 가기 전...”

들어는 봤는데 잘 기억 안 난다.

북한에서 책을 본 것 같은데 소설가인지 작가인지 잘 기억 안 난다.

남쪽에서 배웠는데 진달래 시 쓴 시인

소설가

조선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

김소월 시가 많이 유행했다. 사람들 통해 들어봤는데 그 사람 책은 다 소각됐다.

남쪽에 와서 책보면서 알았는데 시인이라고 했다.

남쪽 학교에서 시 쓴 사람이라고 배웠다

[민족과 운명]에 잠깐 나온다

14) 방정환(소파)

소파가 뭐예요?

남쪽에 온 다음에 알았는데 어린이날 창시자라고 했다

15) 최승희(무용가)

내가 어릴 때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안 나오게 되었다고 엄마한테 들었다.

왜정 때 민족의 무용 창시자 중의 한 사람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름만 들어 봤다.

무용가. 반종파분자로 제거되었다. 고중 1학년 때 할머니한테 들었다. 학교에서는 말 안 해 준다.

남쪽에 온 다음에 전설적인 무용가라고 들었다.

북한 인민군에 있을 때 판문점 대남방송으로 들었는데 민족무용 했다고 한다.

15명의 인물을 선정한 기준은 연구자 임의로 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상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5명이 모두 분단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제한하였다. 말하자면 오늘날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도표에 제시한 15명의 인물이 각각 무슨 일을 하였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물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15명 가운데 한글창제에 기여한 인물은 모두 4명으로 세종대왕과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를, 분단 이전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 치하에서 활동했던 국어학자로 주시경과 최현배를 제시하였다. 한편 분단 이후 북쪽에서 활동했던 국어학자로 유열, 김두봉, 이극로를, 남쪽의 국어학자로 이희승을 제시해 놓았다. 또한 분단 이전 예술인과 문인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이광수, 한용운, 김소월, 방정환, 최승희 등을 제시하였다.²⁷⁾

[표 17]에서 제시한 면접 결과를 보면 우선 세종대왕을 안다고 말한 응답자는 33명이었지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11명에 이르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인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2명이지만 그 사실을 북쪽을 떠난 뒤 중국이나 남쪽에 와서

27) 최승희는 무용가로서 우리말 발전 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제 치하에서 민족 문화를 고양하기 위해 노력했고 분단 초기 북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예술인으로서 북한이 탈주민들이 기억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알았다는 경우가 13명이나 된다.

결국 북쪽에 있을 때 세종대왕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응답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나타난다. 더욱이 응답자들 대다수가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창제에 참여했던 성삼문과 신숙주,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삼문을 안다고 하면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한 응답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북쪽에서 인민학교 교사 경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응답자는 남쪽에 온 뒤 초등학생인 아들을 위해 책을 읽어 주는 과정에서 성삼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잘 모르니 그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응답자들이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 치하에서 우리말 발전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긴 주시경과 분단 이후 남쪽에서 활동했던 국어학자인 최현배와 이회승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김두봉과 이극로, 유열 등 북쪽에서 유명한 국어학자를 모른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특히 김두봉은 분단 초기 북쪽의 국어정책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북한정권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948년 9월 8일 북한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헌법에 그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응답자들이 이 사람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은 분명히 충격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수와 김소월의 존재를 기억하는 응답자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광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응답자는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은 그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응답자들이 이광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광수라는 이름이 북쪽에서 영화에 나오는데²⁸⁾ 친일파, 매국노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28) 이광수의 존재를 아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그가 1990년대 들어 북한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친일파와 매국노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김소월이 시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응답자 중의 몇 사람은 한 때 김소월의 시가 북한사회 전역에서 유행했거나 자신이 좋아했다는 말을 하면서 북한당국이 1960년대 말엽 김소월의 시를 모조리 태워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최승희는 그 인물의 유명함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응답자 중의 8명만 이름을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런 현상은 최승희가 1960년대 말엽 숙청당한 뒤 북한의 예술무대에서 잊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²⁹⁾

일제 시대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작품을 많이 남겼던 한용운과 방정환을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5명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남쪽에 온 뒤 그들의 존재를 배워서 알게 되었고 북쪽에서는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다듬는 과정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을 시사해 준다.

한편 응답자들이 우리말과 글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역사적 사항이나 우리말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한 결과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표 18]을 살펴보면 이 분야에서도 응답자 35명이 각 항목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29) 최근 평양 신미동 애국열사릉에 최승희가 이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2003년 3월 14일자 “무용가 최승희, 소설가 한설야 복권: 북한 국립묘지인 ‘애국열사릉’ 이장 확인” 참조

항목	① 이 항목을 알고 계십니까		② 언제 이 항목을 알게 되셨습니까				
	안다	모른다	북쪽에서		비북쪽에서		무응답
			뜻 맞음	뜻 틀림*	뜻 맞음	뜻 틀림*	
1) 한글날	14	21	1	0	13	3	1
	40.0	60.0					
2) 조선어학회	1	34	0	4	1	1	0
	2.9	97.1					
3) 한글마춤법통일안	0	35	0	1	0	1	0
	0	100					
4) 국어사정위원회	2	33	1	0	1	1	0
	5.7	94.3					
5) 집현전	1	33	1	0	0	1	0
	2.9	94.3					
6) 우리말다듬기지상토론	0	35	0	3	0	2	1
	0	100					
7) 조선말대사전	14	21	10	2	3	1	1
	40.0	60.0					
8) 흘소리	0	35	0	4	0	2	0
	0	100					
9) 닿소리	0	35	0	2	0	2	0
	0	100					
10) 두음법칙	5	30	1	3	4	3	1
	14.3	85.7					
11) 자음	16	19	11	12	3	1	4
	45.7	54.3					
12) 모음	17	18	12	11	3	0	5
	48.6	22.9					
13)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3	32	1	1	2	1	0
	8.6	91.4					
14) 올림말	0	35	0	13	0	2	1
	0	100					
15) 다듬은 말	10	25	7	5	1	2	2
	28.6	71.4					

[표 18] 한글 관련 역사적 사항과 형태적 특성에 관한 지식

1) 한글날

한글이 생긴 날. 국가에서 정한 날

한글이 만들어진 날

한글을 만든 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 낸 날

다 아는 말인데 뜻을 잘 설명하지 못하겠다

컴퓨터에 있더라

조선말 단어가 다르다 뿐이지 북에서도 다 아는 말이다. 글이 만들어진 날 아닌가?

글자 나와서 기념한 날

한글 만든 기념일

세종대왕이 글 만든 날. 남쪽에 와서 알았다.

컴퓨터 연습하는데 9월 22일. 정확하게 무슨 날인지 모른다.

2) 조선어학회

들어 본 일이 없다.

들어 본 적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다.

조선어학에 대해 연구하는 곳

조선어 공부하는 곳

모두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조선말 연구하는 학회

언어를 교정, 발전시키는 곳

일제 때 조선인 작가들로 구성된 작가회

어문학 연구하는 곳

3) 한글마춤법통일안

들어 본 일이 없다.

남북한 이질적인 말 통합하는 방안 같다.

한글이 틀린 것 조정해서 맞추고 고치는 것

의문이 간다. 한국어 문법상 틀리고 제각기 말한다. 외래어 표기에서 보면 베이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북경, 베이징 다 쓴다. 상하이, 칭다오, 이런 게 문법상 기준이 없다. 한자 표기로 청도라고 했으면 청도라고 하는 게 다 문법에 맞는 것 아닌가. 전 국가 사회적으로 일원화되지 않았다. 모순이 많다.

한글을 맞춤법에 맞게 통일하는 것

4) 국어사정위원회

우리 글 이용을 정하는 곳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편찬됐고 앞으로 국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안-방도 연구하는 곳

국어에 대해 모집하고 외래어 같은 것은 어떤 걸 우리말로 국어로 만들까 ...

위원회 구성해서 국어에 대한 내용 토론

책에서 봤다. 평양에 있죠?

5) 집현전

들어 본 일이 없다.

하나원에서인가 들어 봤다.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이 만나 국어에 대해 회의하는 것. 남쪽에 온 뒤 역사시간에 들었음

세종대왕 시대 한글을 창시한 모임. 신숙주, 성삼문 등이 여기에 소속되었던 사람들

6)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그냥 우리글을 다듬기 하는 토론

TV에서 본 것 같다. TV 강연에서 봤다.

우리말 어떻게 다듬는지 토론

우리말을 발전하게 하는 곳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단체

말을 복잡하지 않게 한다

우리말을 다듬어서 발달하게 한다

7) 조선말대사전

큰 사전은 못 보고 소사전은 봤음.

조선말 모아서 펴낸 것

우리말을 써 낸 역사적인 책

조선말에 대해 뜻풀이 해 놓은 책

한국어 단어 용어사전

한국어 사전

조선말을 총괄하는 책

외래어와 우리말 분석해 놓은 책

북한에 사전이란 책이 있기는 있다

조선말 옛날 말. 속담풀이 한 것도 들어 있다. 본 적 있다. 북한도 조선말 사전 많다.

조선말이 십오만 개 수록되었다.

북한에서 사전 본 적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대사전있는 것. 실제 생활에는 없다. 고
중 1학년 때

여기서도 봤고 북에도 있다. 북한 도서관, 학교에 백과사전 많다.

우리말 사전

우리말 모를 때 찾아보는 사전

우리말 정리한 사전

8) 홀소리

들어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된소리를 뺀 것인가?

혼자 발음되는 것. 혼자서 발음하는 것.

짝수-홀수에서 나오는 것

남쪽 학원에서 들어 봤는데 의미는 모르겠다

된소리가 아닌 것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다.

뜻이 기억나지 않는다.

9) 닿소리

두 글자 이상

받침

남쪽 학원에서 들어 봤는데 의미는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0) 두음법칙

단어의 받침이 옆 단어하고 붙으면 발음이 안되거나 그러는 것. --법칙

ㄹ이나 ㄴ이 처음에 올 때 ㅇ으로 한다.

읽을 때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것

북쪽에서 못 들었다

남쪽에 온 뒤 북한의 정치와 사회라는 학교 강의 시간에 들어서 알았다. 북한에서는 안 쓰는데 남한에서는 쓴다는 차이점을 알려 줬다.

두 가지 소리내는 단어

해+님 -> 햇님, 시내+물 -> 시냇물 등 이런 경우에 가운데 ㅅ이 들어가는 것

음이 변하는 것. 천리마 -> 철리마 남북한이 서로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로 주장할 건 주장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

문장에서 제일 앞에 쓰이는 ㄹ을 ㅇ으로 쓰는 것. ㄹ이 -> 이

다 닢 더 더

생각이 잘 안 난다.

ㄹ이 -> 이로 발음하는 것

ㄹ 발음을 ㅇ으로 발음하는 것

11) 자음

ㄱ ㄴ ㄷ ㄹ

ㅏ ㅑ ㅓ ㅕ

ㅏ ㅑ ㅓ ㅕ 이게 자음인가?

기 로 사 오 지

기 니 드 르 모 비 스

노래할 때 높고 낮은 음

자음하고 모음이 헛갈린다. 기 니 드 르 가 가 ...

인민학교 때 배웠다. 나 나 나 나

자이 들어간 글자

받침

인민학교 처음 들어가 조선말 배울 때 나 나 나 나 하면서 자음-모음 배웠다. 입 벌렸을 때...기억이 잘 안 난다.

12) 모음

나 나 나 나...

기 니 드 르 모 스

기 니 드 르 이게 모음인가? 헛갈린다.

모음은 뜻을 어떻게 답변할 지 모르겠다.

가나다라

모이 들어간 글자

잘 모르는데 나 나 나 나 같다

아 야 어 여

13)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못 들었다

고등중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다. 1444년 만들어서 46년에 세종대왕이 내 놓았다고 말했다. 교과서는 못 알아본다. 종이가 흰 색이 아니다. 몇 년씩 선배들 쓰던 것 물려받는다. 그 선생님은 중국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가급적 피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때부터 1년씩 세어나갔다는 것 말해 주었다.

남쪽에 온 뒤 학원 국사시간에 배웠는데 뜻은 잘 모르겠다. 창제기념일은 들어 본 일 없다.

북한 역사 교과서에 훈민정음 언제 만든 것 나온다. 신경 안 써서 기억 안 난다. 관심이 없었다. 시험 때 잘 안 나온다.

훈민정음은 남한에 온 뒤 인터넷에서 봤는데 창제기념일은 뭔지 모른다.

들어 봤다. 컴퓨터 타자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10월 9일 한글날 아니예요?

한글 나오기 전에 한 말

훈민정음 글자 기념일

훈민정음은 남한 학교에서 들어는 봤다.

고등중학교 3학년 때인가, 조선에서 제일 처음 훈민정음이 나왔다고.. 최초의 조선글자.. 만든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나지 않는데요.

14) 올림말

누구한테 보내기 위해서 글을 작성해서 "--에게 올리는 말"

높임말

예의를 지키라는 말

높임말 쓸 때 하는 말

부모나 윗사람에게 하는 말

존중해서 말하는 것

사람하고 말할 때 높임말

윗사람한테 올리는 말

윗사람을 존중히 여겨서 쓰는 말

존경어

억양 표현. 단어를 모으면 문장이 되는데 한 문장 안에서 올리고 내린다.

“그랬습니까”에서 습니까 같은 존경어

높임말/ 존대말

여기서 존경어 아닌가?

“발같이” 하면 “발가리”로 하는 것

15) 다듬은 말

북한식대로 제일 효율적으로 제일 예쁘게 만든 말. “단어를 다듬어 쓰라”는 말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썼어요.

나쁜 말을 좋게 다듬은 것

자세한 것 모른다.

말을 더 듣기 좋게 다듬어 주는 것

외래어를 다듬은 말

우리말 간편하게 하는 것. 여느 사람 다 할 수 있게끔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한 것

고쳐 말하는 것. 예를 들어 리해-이해, 리유-이유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

말을 상대방 듣기 좋게 다듬어 말하는 것

옛날 과거의 말 추려서 다듬은 것

외래어를 북한식으로 간편하게 다듬은 것. 까다로운 걸 쉽게 다듬은 것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친 것

문장을 다듬은 것

말을 간략하게 해서 한다

표준어로 바꾸는 것. 옛날 한자어, 외래어를 우리 고유어로 바꾸는 것

들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문화어 같다. 문화어죠?

다시 만든 말. 일본말을 우리말로 다듬은 것

쓰기 좋게 다듬은 말

옛날 소리를 현대식으로 다듬어 쓰는 것

이 부분에서는 우선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날과 분단 이후 북한정권이 한글날에 갈음하여 1월 15일로 정해 놓은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에 대해 아는지 질문하였다. 북한이 순수한 우리말을 지켜 왔다면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과 한글날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질문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글날이 무엇인지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4명으로 전체의 40%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북쪽에서 알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당국이 분단 이후 한글날을 대신하여 제정한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무려 32명으로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우리말과 글의 역사적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일제 시대에 활동했던 조선어학회와 1933년 이 단체가 발표했던 한글마춤법통일안, 그리고 한글창제의 주역이었던 집현전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물론 그 항목에 대해서도 90%를 상회하는 응답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분단 이후 북한정권이 주도해 온 우리말 다듬기 운동의 흔적으로 국어사정위원회와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조선말 대사전의 의미를 아는지 물어 보았고 또 북한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올림말과 다듬은 말을 제시한 뒤 그 뜻을 파악하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그런데 국어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35명 중의 33명이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35명 전체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당국이 1992년 두 권으로 펴 낸 [조선말 대사전]을 모른다는 응답자도 21명으로 전체의 60%를 기록하였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응답자가 조선말 대사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지 짐작하게 된다.

북한의 학교 도서관에서 대사전 본 적이 있는데...고중 1학년 때인가...실제 생활에서는 사전이 없다.

또한 북한당국이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올림말이나 다듬은 말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올림말의 경우 35명 전체가 모른다고 했으며 다듬은 말은 25명, 71.4%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홀소리와 닿소리,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는지, 두음법칙의 내용을 아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8]에 제시해 놓은 면접 결과를 보면 총 15개 항목 가운데 응답자들이 북쪽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알았다고 대답한 내용은 자음과 모음이었다. 자음의 뜻을 안다는 응답자는 16명, 45.7%인데 북쪽에 있을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11명이었다. 모음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응답자 현황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

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자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음과 모음의 순수한 우리말 표현인 당소리와 홀소리가 무슨 뜻인지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뜻을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20%인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면접자가 자음과 모음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자음은 ㅏ ㅑ ㅓ ㅕ 등이고 모음은 ㅓ ㅕ ㅗ ㅛ ㅜ ㅠ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남쪽 사람들의 언어습관 중에서도 두음법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인 응답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면접 과정에서 “리00”이 맞는데 남쪽 사람들은 왜 “이00”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대다수 응답자가 이와 같은 현상이 두음법칙의 적용이라는 점은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음법칙이 어떤 현상인지 북쪽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하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한 응답자는 단 한 사람이었고 자음접변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두음법칙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두음법칙은 음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천리마를 철리마로 읽는 것처럼... 한국이 모순된다. 안 맞는 게 있다. 남북한이 서로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서로 주장할 것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한글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1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3명은 북한을 떠난 뒤 한글날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분단 이후 한글날에 갈음하여 새롭게 제정했던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이전에 훈민정음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력사에서 세종대왕이 나오는데, 훈민정음 창제한 인물이 아니라 창제 당시 있었던 인물로 나온다. 큰 의미 부여를 안한다. 한국에 와서 훈민정음 창제했다는 걸 알았다.

훈민정음은 고등중학교 3학년 역사 시간에 배운 것 같기는 하다. 조선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조선글자이다. 그런데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생각 안 한다.

이런 현상은 결국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사는 동안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했던 역사적 기념일에 대해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이상에서 요약했던 면접 결과를 살펴볼 때 2002년 현재 남쪽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남쪽에 온 뒤 60% 이상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으로 남쪽 사람들이 영어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북쪽에는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 많은데 남쪽에는 영어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가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용어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고 무엇이 외래어와 한자어에서 유래된 표현인지 구분해 내는 능력은 낮았다. 또한 우리말과 글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말과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외래어와 순수한 우리말을 구분하는 정확한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면접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남쪽 사람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해 감성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남쪽 사람들은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공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런 사실을 배울 기회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삼 자신이 속아 살았다는 점에 분노를 느끼는 응답자도 있었다.

한편 일상적 언어생활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 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자신이 남쪽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노동당 하나만 있는 북쪽과 달리 남쪽은 당파가 많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전화회사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곳에서 서로 자기네 회사에 가입하라고 하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가 하면 외래어 표기에서 전국이 한 가지 표현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웬 회사 종류가 그렇게 많은가. 한국은 당파가 많으니까 그렇다. 북한은 노동당 하나인데... 삼성카드... 무슨 카드 종류가 많다. 여기저기 들라고 해서 카드 잘라 버린 게 많다.

전화국이 하나면 되지 뭐가 이렇게 많은지... 두루넷, 한국통신, 하나로 통신 있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네 것 들어오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

의문이 간다. 한국이 문법상 틀리고 제각기 말한다. 외래어 표기에서 보면 베이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북경, 베이징 다 쓴다. 상하이, 칭다오, 이런 게 문법상 기준이 없다. 한자 표기로 칭도라고 했으면 칭도라고 하는 게 다 문법에 맞는 것 아닌가. 전국이 사회적으로 일원화되지 않았다. 모순이 많다.

그런가 하면 왜 레스토랑마다 이름이 다른지, 호텔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어떤 것은 모텔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영어로 된 이름은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이지 이름도 다 달라서 한번은 원하는 식당이 아니고 다른 데를 들어갔다. 심지어 ‘모텔’이 뭔지도 모른다. ‘호텔’이면 ‘호텔’이지 ‘모텔’은 또 뭐가?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면접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중의 68.5%는 남쪽에 온 뒤 남쪽에서 쓰는 말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적 언어생활에 따른 이질감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면접 대상자 중에서는 남쪽 사람의 발음을 익히기 위해 볼펜을 물고 연습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가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연습한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표 19]에서 제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남쪽 사람들이 두음법칙을 지키는 현상에 대해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할 의사가 강하지 않으며 남쪽 사람처럼 말한다고 해서 고향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 중의 한 사람은 “고향에 대한 애착은 마음에 있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때와 장소에 맞게 옷 입는 예절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언어표현을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 부드러운 말 배워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시켜서... 예의 지키는 연습해야 한다. 북한사람은 고집이 세서 자기를 어린애처럼 대한다고 싫어한다. 그런데 악수자세, 인사하기, 결혼식장에 가기 등 예의 알아야 한다. 대부분 양복 입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 츄리닝 입고 갔다고 한다. 제사집 갈 때 어떻게 입고 가야한다고 교육해야 한다. 한번은 익산에서 같은 고향사람 결혼식장에 갔는데, 다 양복 입었는데 탈북자만 모두 잠바 입고 와 황당했다.

기차 탔더니 책자가 있었다. 예절과 관련된 책이었다. 그걸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냥 집에 가져온 건 너무 불 만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의를 몰라 실례한 적이 많은데, 충남 홍성에서 살 때, 목사님이 운전하시는데, 내가 앞에 탔다. 그런데 그 자리엔 사모님이 타셔야 한다는 거였다. 뒷자리에 타려고 하는데, 예의상 나이 드신 분 먼저 타시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였다. 그래서 욕먹은 적이 있다. 절하라는데 절할 줄 알아야지... 몇번을 어떻게 해야할지...

북한에서는 새해인사를 ‘새해 축하합니다’ 한다. 그래서 남한에서도 ‘새해 축하합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소리를 들었다. ‘북 많이 받으세요’해야지 하면서... 북한에서는 ‘북 많이 받으세요’는 40,50대 이상한테 수명이 짧아서 오래 살라는 뜻으로 쓴다. 20,30대끼리는 ‘새해 축하한다’고 한다.

	① 매우	② 그런편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편	⑤ 전혀	합 계
남쪽에 온 뒤 남쪽에서 쓰는 말을 배우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셨습니까?	13	11	5	4	2	35
	37.1	31.4	14.3	11.4	5.7	100
남쪽에서 쓰는 존대말이나 예절바른 말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면 그 곳에 가서 배우고 싶다	5	12	4	11	3	35
	14.3	34.3	11.4	31.4	8.6	100
남쪽 사람들이 “례절”을 “예절”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싶다	3	4	3	10	15	35
	8.6	11.4	8.6	28.6	42.9	100
남쪽 사람처럼 말하려고 하면 어쩐지 내 고향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0	4	3	9	19	35
	0	11.4	8.6	25.7	54.3	100

[표 19] 북한이탈주민의 남쪽말 교육에 관한 수요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남쪽에 와서 이 곳의 언어생활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심리적 거부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국 남쪽 말을 제대로 배우고자 희망하는 60%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한의 언어이질화 현상의 원인을 주로 단어와 어휘 및 표기 방법과 띄어쓰기 등 문법적 측면에 치중하여 설명해 왔다. 또한 북쪽은 남쪽에 비해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며 외래어 표현이 별로 없다는 신화에 매달려 그 실체를 연구하는 일에 소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말의 역사와 예절 바른 표현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부터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000년대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국내 주요 신문사 한 곳에서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00년 동안 한국인이 이룩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한글창제를 선정했고 가장 아쉬웠던 사안으로는 남북분단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³⁰⁾ 이 사실은 남북한 주민의 만남이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시사해 주는 점이 매우 크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향하는 길에서 북한주민과 함께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가꾸고 다듬어 갈 것인지 큰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단순히 단어와 어휘 차이에서 벗어나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 말과 글을 다듬어 온 조상들의 노력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 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당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분단 이후 북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말 다듬기 운동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며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인식이 일종의 신화

30) 동아일보 1999년 12월 17일자 “1000-1999 지난 천 년 국민의식 조사: 우리글 자존심 천년 빛냈다”

로 작용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도 구동구권 국가에서 유입한 외래어와 중국어에서 유래한 한자어 표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라 하겠다.

관련 자료를 살펴 볼 때 북한당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우리말 발전의 역사적인 흔적을 없애고 김일성의 업적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이어 일제 치하의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구성원 전체가 남과 북의 지리적 구분이 없이 함께 공유했던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우는 일에 힘을 쏟았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북한주민은 한글창제 및 반포, 일제치하 조선어학회의 활동 등 우리말 역사에서 반드시 공유해야 할 지식에서 소외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정책은 남북한의 언어현실을 좀더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언어사용의 주체인 남북한의 7,000만 주민이 스스로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제3장 해방 이후 한반도 언어생활의 환경

오늘날 남북한 주민의 언어생활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으나 그 공통적인 기반은 1933년 10월 19일 조선어학회가 제정·발표했던 “한글마춤법통일안”³¹⁾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질성보다 동질적인 면모가 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언어라고 하더라도 50년 이상 이어져 온 분단 기간 동안 남북한 당국이 서로 다른 어문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양쪽의 주민들은 상대방의 언어습관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남북한의 주민들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어휘와 발음, 철자법, 띄어쓰기, 문체 및 언어예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다는 느낌을 지니는 현실은 앞으로 우리가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결정할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오늘날 남북한 언어생활의 차이점을 [남쪽=외래어 남용 vs. 북쪽=순수한 우리말 지키기] 논리로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북쪽 사람의 의견을 넘어 남쪽은 물론 재외동포들 역시 쉽게 동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 의식세계에 [남쪽=외래어 남용 vs. 북쪽=순수한 우리말 지키기] 등식이 고정관념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한 언어가 이질화된 현재의 상태를 넘어 민족공동체의 문화현상으로 새롭게 자리잡으려면 이질화의 원인과 경로를 살펴 본 뒤 과연 어느 쪽으로 공통점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한이 서로 누가 우월한지 측정하고 비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민족구성원 누구나 우리가 공유해 온 문화적 자산의 실체를 원형 그대로 파악한 뒤 무엇

31) “한글마춤법통일안”이라는 표기는 오늘날 맞춤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1933년 당시 발표했던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살려야 할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 표시를 하고 “한글마춤법통일안”으로 표기하였다.

을 지키고 버릴 것인지 선택하는 권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반쪽으로 갈라졌던 민족공동체를 다시 온전하게 복원하는 과정에서 진정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1945년 해방 당시, 남북한은 당연히 우리말 사용의 관습과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다. 반 만 년 이상 이어 온 언어공동체의 경험에 기본을 두고 이 땅의 어린아이는 누구나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심청전과 춘향전, 흥길동전 및 임궽정 이야기 등 예로부터 전해지는 설화를 듣고 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의 노력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한글이 우리 글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무엇보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학회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고 오늘날까지 우리 문법의 기본으로 손색이 없는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제정하는 등³²⁾ 눈부신 활동을 했던 역사는 남과 북의 구별이 없이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에서 훈민정음 창제 및 반포 과정에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쏟은 땀방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또한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학회의 눈부신 활동의 결과였던 한글날과 맞춤법 통일안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 집단을 제외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우선 남북한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함께 계승해야 할 사안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한글날을 제정하고 우리말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우리가 공유했던 문화적 자산의 내용을 어떻게 변경하였으며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관찰하려면 먼저 한반도 분단 이전, 아직 남과 북의 구분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함께 지녔던 보물창고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일제 치하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남북한이 함께 기억해야 할 문화적 자산이 한글날과 우리말 맞춤법 통일안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부

32) 국립국어연구원 『한국 어문 규정집』 서울: 1995, p.2

분에서 유독 한글날과 우리말 맞춤법 통일안 제정의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은 논의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가지 사안 모두 앞으로 통일을 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함께 지켜야 할 문화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크며 둘째, 북쪽에서 한글날과 우리말 맞춤법 통일안의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은 해방 이후 북한당국의 의도적인 정책에 따라 남북한이 공유했던 역사가 이질화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분야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1. 일제치하 한글날 제정의 역사

언어생활은 문자를 통해 표현·발전하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의 공동 노력으로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했던 일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구성원 전체가 언어의 동질성을 유지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일제 치하의 그 험난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학자들이 조선어연구회³³⁾ 활동을 이어가면서 한글 반포를 기념하는 날을 제정했던 것도 민족정신을 함께 아우르는 중요한 발자취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에서 일제 치하에서 움츠린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북돋우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기로 결정한 것은 1926년 한글 반포 480주년인 되는 해의 일이었다. 조선어연구회는 《왕조실록》 권 113 세종 28년(병인) 9월 조의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是月訓民正音成)”란 기록을 근거로 삼아 1926년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에 한글 반포 8회갑 48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를 베풀고, 이 날을 ‘가갸날’로 선포하였다.³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928년에 이르러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고 음력 9월 29일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해마다 음력 9월 29일을 기념하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친 것은 1931년 이후 양력을 위주로 하는 생활방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수학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한글 반포의 날을 율리우스력으로 환산

33) 조선어연구회는 1908년 주시경 선생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그 이후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계속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한글학회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34) 이하 관련 내용은 한글학회에서 밝힌 “한글날의 발자취”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http://www.hangeul.or.kr/index.htm> 참조

한 결과 10월 29일이라는 답을 얻었다. 따라서 1931년부터 한글날을 양력으로 지키며 10월 29일에 기념식을 열었다.

그러나 1934년에 이르러 양력과 음력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문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토론한 결과 한글을 반포했던 ‘세종 28년 음력 9월 29일’은 서기 연호로 고쳤을 때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면 1446년 10월 28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 이후 한글날은 10월 28일에 기념하였다.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게 된 근거는 1940년 7월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을 발견하였는데 그 책자에서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澣)”이라는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훈민정음』 원본의 발견으로 한글 반포의 날이 음력 9월 상순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당시에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일본 총독부가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였고 어떤 명목으로든 집회를 금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글날 기념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이 이르자 이 땅 한반도에서는 조선어학회를 전신으로 하는 한글학회가 새로 발족했다. 한글학회는 우선 『훈민정음』 원본의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澣)”을 근거로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 날을 양력날자로 환산한 결과 1446년 10월 9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날을 한글날로 확정하기에 이른다.

위의 자료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거니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한 것은 단순히 몇 사람의 논의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다. 일제 치하,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 찾아낸 역사적 자료에 근거를 둔 결정으로서 민족사적으로 볼 때 깊은 뜻을 지닌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둘 사항은 조선어연구회가 한글 반포의 정신을 기려 기념일을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구상의 그 누구도 한반도의 분단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았던 1926년 당시의 일이었다. 그 뒤 비록 분단이 되었다고 하지만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글날을 제정했던 역사적 사실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시절, 이 땅 한반도 전역의 조선어학자들이 힘을 모아 한글날을 제정하고 기념해 온 역사

적 과정은 분단 이후에도 남북한이 함께 공유해야 할 문화적 자산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각 한글날을 어떻게 대접해 왔는가? 이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2. 분단 이후 우리의 한글날 계승과 북한의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제정

분단 이후 남쪽에서는 1946년, 한글 반포 500주년을 맞아 10월 9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경운궁에서 2만 여 명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다.³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해마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그 이후 1981년 한글 반포 535주년을 계기로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진행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아쉽게도 1990년 법정 공휴일 축소 과정에서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 오늘날에는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이 날을 다시 공휴일로 되살려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분단 직후, 한글날을 대신하여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로 제정했다. 북한당국은 일제치하에서 애써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과정에서 제정했던 한글날을 대신하여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을 지킬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시한 일이 없다. 단지 로동신문을 관찰해보면 1956년 이후 1964년까지 2년에 한 차례씩 1월 15일을 전후하여 훈민정음 창제 기념 기사를 게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의 게재 일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³⁶⁾

1956년 1월 15일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모, 훈민정음

35) 이른바 덕수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머무시던 궁궐이었다. 말하자면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정궁(正宮)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한 이후 경운궁의 명칭을 덕수궁으로 바꾼 이후 오늘날까지 원래의 이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36) 일부 기사에 작성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로동신문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0년과 1962년 1월 15일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기사를 작성한 류렬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200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하여 남쪽에 사는 따님을 만나셨던 분이다.

1958년 1월 16일	훈민정음 창제 514주년 (황부영)
1960년 1월 15일	자랑스러운 우리 문자, 훈민정음: 그의 창제 516주년을 맞으며 (부교수 류렬)
1962년 1월 15일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 문자 (부교수 류렬)
1964년 1월 15일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 문자, 훈민정음 창제 520주년: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하자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나중에도 로동신문은 훈민정음 창제 관련 기념 기사를 2년 간격으로 게재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일이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필자는 1956년 이후 2년에 한 차례씩 총 5회에 걸쳐 1월 15일 전후에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상황에서 북한당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로동신문이 언론매체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위에서 제시한 기사의 게재형식과 내용도 당연히 그 당시 북한당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지금부터 필자는 이 문제의 배후에 가려진 북한당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론해보고자 한다.³⁷⁾

1956년 이후 1964년까지 2년에 한 차례씩 1월 15일을 전후하여 게재했던 훈민정음 창제 기념 기사 5회에서는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성삼문·신숙주 등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훈민정음 창제의 원동력은 “오랜 세월을 두고 노력해 온 광범한 인민 대중의 힘”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954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다 중단한 <한글간소화 방안>은 반인민적이며 “미제와 리승만 도당은 훈민정음을 말살하려는” 책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1962년과 1964년도에 게재된 기사는 김일성을 비롯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에서 ... 일제 때 이상으로 타락상과 혼란상을 빚어내는 현실에 맞서 우리의 민족어와 민족 문자를 지켜가는 사람들”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런 시기에 김일성은 1964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조

37) 북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필자가 논의하는 내용은 논리적 궤변이라는 평가를 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의도를 수집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보는 것이 나름대로 깊은 뜻을 지닌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자는 단순한 궤변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북한당국이 발간한 자료를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선어 발전” 관한 교시를 내렸고 곧 이어 로동신문은 1966년 7월 9일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게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활동하던 국어학·언어학 분야의 학자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글날을 어떤 경로를 거쳐 제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김두봉과 같이 분단 초기 북쪽의 국어정책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북한정권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치적인 활동이 활발했던 인물의 존재를 감안한다면³⁸⁾ 북한당국이 무엇 때문에 굳이 한글날을 대신하여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로 정해서 지켜야 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두봉은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 일제 치하에서 반일단체인 대동청년단 일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1916년 『조선말본』이라는 우리말 문법책을 발행하였던 국어학자이기도 했다.³⁹⁾ 김두봉의 문법체계는 일제 치하 국내와 아울러 옛 소련과 중국 지역에 살던 재외동포 사회에서도 널리 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⁴⁰⁾ 분단 이후 김두봉은 1948년 1월 15일 북한이 발표했던 “조선어신철자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두봉의 업적은 1949년 12월 북한당국이 “조선어신철자법”을 학교 문법에 적용하기 위해 간행했던 문법책자인 『조선어문법』에도 강한 영향을 남기게 된다고 고영근은 평가한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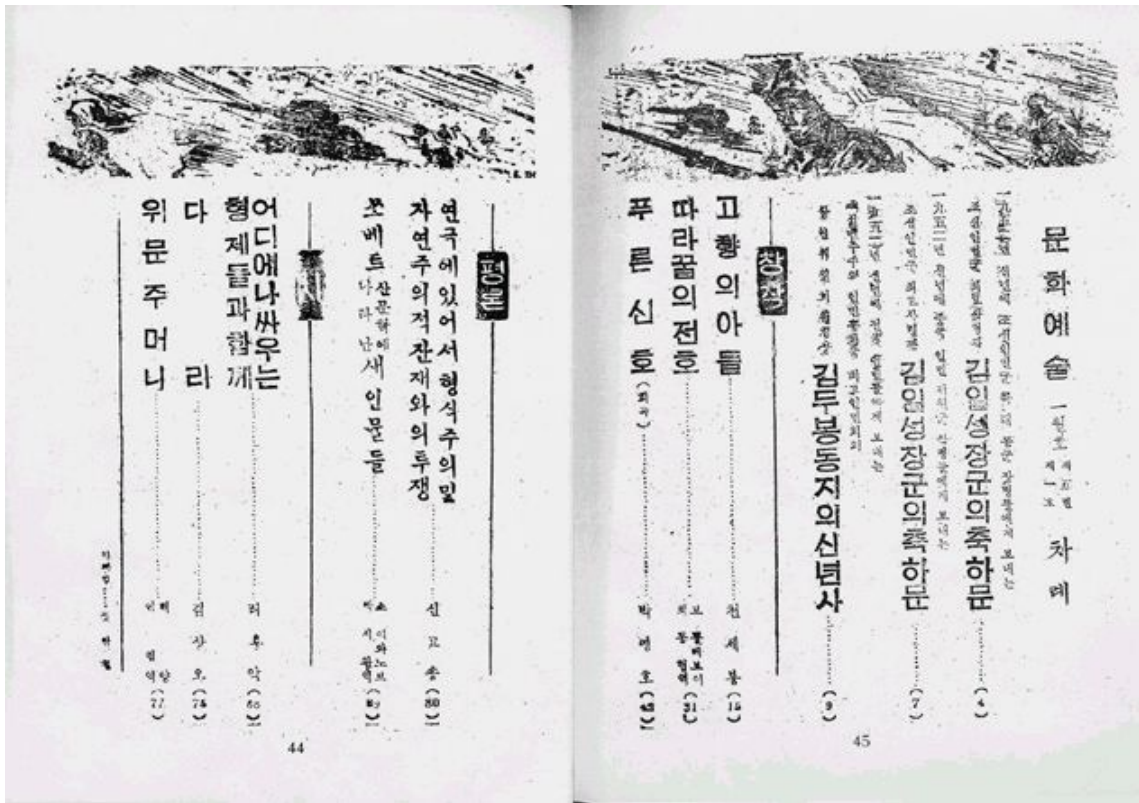
분단 이후 김두봉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남쪽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그 직책을 맡아 김두봉은 활발하게 움직였다. 북한당국이 1953년 10월 창간한 월간잡지 『조선문학』과 그 전신인 『문학예술』을 보면 1952년 이후 1954년까지 해마다 신년 초에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장병”에게 축하문을 보낸 반면 김두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 인민들에게” 신년사를 보낸 것으로 나온다.

38) 김두봉은 북한정권 형성기인 1947년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연합뉴스 1999년 10월 9일 “북한말, 왜 우리말과 달라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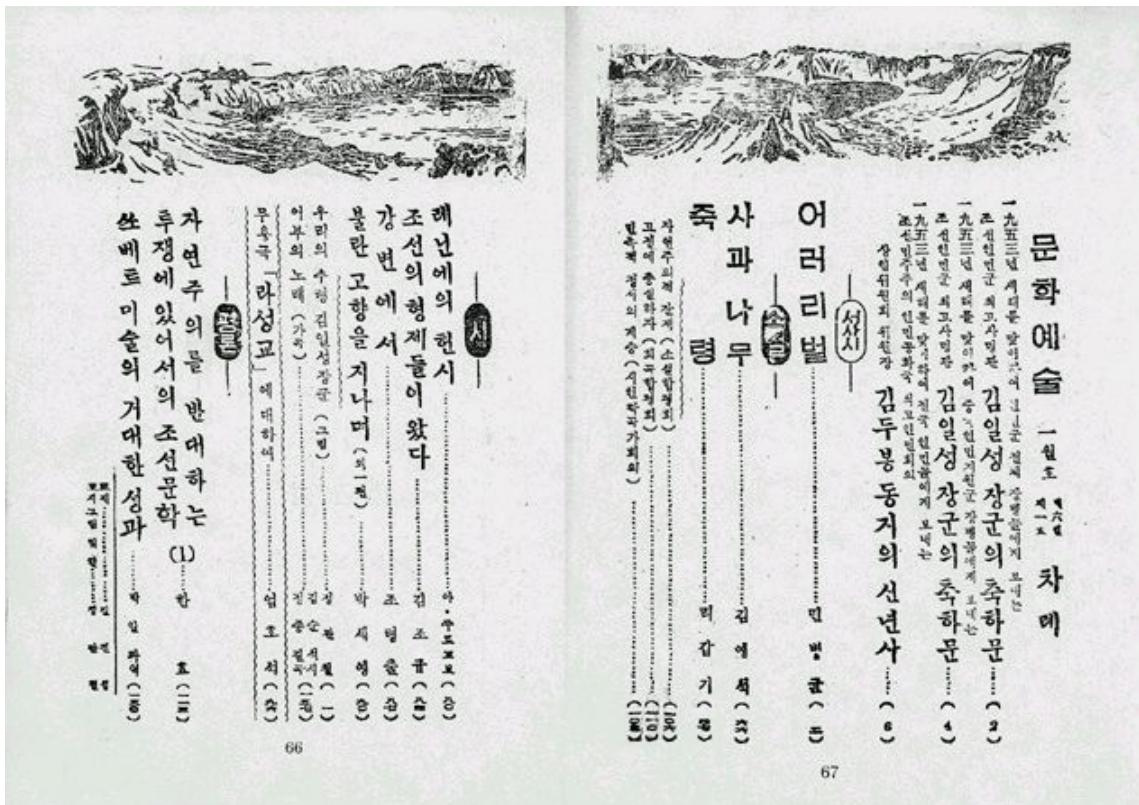
39) 연합뉴스 1999년 10월 9일 “북한말, 왜 우리말과 달라졌나”

40) 고영근 “남북 규범문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2001년 봄호

41) 고영근 “우리나라 학교 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2000년 여름호



<그림 2> 문학예술 1952. 1월호 차례



<그림 3> 문학예술 1953. 1월호 차례

조선문학 (一九五四. 一) 차례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중국 인민지원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4)	89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1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1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1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1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1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2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2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2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2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2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3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3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3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3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3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4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4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4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4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4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5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5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5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5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5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6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6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6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6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6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7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7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7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7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7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8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8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8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8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8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90)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92)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94)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96)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98)	
조선인민군 최고수령장 김일성원수의 축하문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여의 조선인민군 창설 25주년 기념문예제..... (100)	

<그림 4> 조선문학 1954. 1월호 차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지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두봉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 북한당국이 한글날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잊고 별다른 의도 없이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을 제정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북한당국이 한글날을 대신하여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을 정하여 지킨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당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의도를 분석하기 전에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학회가 내놓은 또 다른 업적인 “한글마춤법통일안”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 관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 본 뒤 북한당국의 의도를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3. “한글마춤법통일안”과 분단 이후 북한에서 변경한 내용

“한글마춤법통일안”은 오늘날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 당시 한글 반포 제487회 기념일에 즈음하여 임시총회를 거쳐 시행을 결의하였

다. 원래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의 통일안 제정을 의결한 것은 1930년 12월 13일이었다. 그 뒤 3년에 걸쳐 125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그 안을 완성하였고 마침내 1933년에 한글 반포 제487회 기념일을 맞이하여 발표한 것이었다.⁴²⁾

조선어학회는 “한글맞춤법통일안” 머리말에서 일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그 작업의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 경과의 개략을 말하면, 1930년 12월 13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맞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인(권 덕규, 김 윤경, 박 현식, 신 명균, 이 극로, 이 병기, 이 윤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열모, 정 인섭, 최 현배)으로써 2개년간 심의를 거듭하여 1932년 12월에 이르러 맞춤법 원안의 작성을 마치었다. 그리고, 또 위원 6인(김 선기, 이 갑, 이 만규, 이 상춘, 이 세정·이 탁)을 증선하여 모두 18인의 위원으로써 개성에서 회의(1932년 12월 25일~1933년 1월 4일)를 열어 그 원안을 축조토의하여 제1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위원 10인(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윤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었다. 그 후 6개월을 지나 대체의 수정이 끝났으므로, 또 위원 전체로써 다시 화계사에서 회의(1933년 7월 25일~8월 3일)를 열어 그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여 제2독회를 마치고, 또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위원 9인(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윤재, 이 희승,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어 최종의 정리가 다 마치었으며, 본년 10월 19일 본회 임시총회를 거쳐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완성을 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통일안이 완성하기까지에 3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소요의 시간수로는 실로 433시간이란 적지 아니한 시간에 마치었으니, 과연 문자 정리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이하 생략)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총론과 각론, 부록 1과 부록 2로 이루어져 있다. 총론은 모두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표준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할 것과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을 표준말로 삼을 것,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윗말에 붙여 쓸 것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 각론은 모두 7장으로 우선 제1장 자모에서는 자모의 숫자를 24자로 하고 발음의 주요원칙인 구개음화와 자음접변, 두음법칙에 관한 원칙을 정하였다. 그 이외에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제4장 한자어, 제5장 약어, 제6장 외래어 표기와 제7장 띄어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록 1은 표준어에 관한 규정이며 부록 2는 문장부호에 관한 규정이다. 이로

42) 한글학회 인터넷 사이트(<http://www.hangeul.or.kr/index.htm>)에 수록해 놓은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통일안」 1933 참조

써 “한글마춤법통일안”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말 맞춤법의 기본 형태를 정하였다.

조선어학회는 머리말에서 “한글마춤법통일안”이 “불비한 점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엄정한 태도와 가장 신중한 처리로써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인 만큼 “우리 민중의 앞에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완성도가 높다는 점은 한글학회에서 1980년 한글 맞춤법을 발표하면서 이 규정이 “한글 바로 적기 규정으로서 매우 완벽한 것”이었다고 평가했고⁴³⁾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우리 민족이 1930년대 당시 갖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글마춤법통일안”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공포하여 바람직한 어문생활의 토대가 될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그 역사적 의미를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다.⁴⁴⁾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함께 제정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이야말로 남북한의 구별이 없던 시절, 우리말과 글에 대한 겨레 전체의 의견을 정제하여 이처럼 완성도 높은 문법 규범의 결정체가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해방 당시 남북한은 다같이 “한글마춤법통일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생각해 보면 일제 치하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방 이후에도 남북한이 “한글마춤법통일안”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돌이켜 보면 해방 이후 남북한이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언어생활의 기초 규범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방 이후에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으나 언어규범 만큼은 남북한이 다같이 “한글마춤법통일안”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단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늘날까지도 기본적으로 언어생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⁴⁵⁾

43) 한글학회 『한글 맞춤법』 1980

44) 국립국어연구원 『한국 어문 규정집』 서울: 1995, p.2

45) 최기호 “<현대조선말사전>과 북한언어 정책” 『북한의 조선어학』 상명여대 자하어문학회, 1990, pp. 277-289; 최기호는 몽골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분단 직후 남북한이 공동의 언어규범을 계승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고 있다.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로 분단된 이후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로 예전부터 사용하던 위구르 문자를 쓰지만 외몽골은 몽골인민공화국을 세우고 1940년부터 소련의 문자와 같은 시릴 문자를 써왔다. 따라서 오늘날 내몽골과 외몽골은 서로 다른 문자를 쓰고 있다.

그러나 곧 북한당국은 “한글마춤법통일안”의 내용과 다른 언어규범을 제정하여 그 내용을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어문 정책은 1948년 10월 2일 내각 제4차 회의에서 교육성에 조선어문연구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⁶⁾ 원래 조선어문연구회는 1946년 7월 민간단체로 출범했으나 북한당국이 1947년 2월 인민위원회 제175호 결정으로 이 단체를 개편했다가 1948년 10월 내각결정 제10호를 근거로 이 단체를 교육성 안에 설치함으로써 정부 조직으로 만들었다.⁴⁷⁾

조선어문연구회는 1949년 3월 월간지 『조선어연구』를 창간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조선어문법』이라는 책자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 뒤 조선어문연구회는 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 언어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선어문』, 『조선어학』, 『어문연구』, 『문화어학습』 등의 기관지를 발간하는 등 북한당국의 언어정책을 반영하는 각종 활동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⁴⁸⁾

당시 조선어문연구회는 월간지 『조선어연구』를 통해 “선진언어이론”을 소개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소련의 언어학 분야 논문을 적극적으로 번역·소개하였다. 『조선어연구』에 주로 수록되는 논문의 내용은 사회주의 언어학의 대가로 알려진 소련의 언어학자 마르의 언어이론과 레닌 및 스탈린의 언어관을 소개하고 그 내용이 북한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 내용이 많았다.⁴⁹⁾ 1956년에 창간된 『조선어문』도 언어학 분야에서 소련과 중국의 학자들이 쓴 논문을 번역·소개하곤 했다.

조선어문연구회는 1948년 1월 15일 조선어신철자법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언어 규범을 최초로 개정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한다. 그 뒤 북한의 언어 규범은 1954년 조선말철자법, 1966년 조선말규범집, 1988년 조선말규범집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정 단계를 거친다.⁵⁰⁾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4차회의는 “조선어문의 통일과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을 일층강화시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각결정 제10호 “조선어문연구회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했다. 내각사무국 편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1948년 p.151

47) 국립국어연구원 『북한의 언어정책』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2

48) 고영근 “북한의 소련 언어이론의 수용양상과 적용문제”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1994, p.474

49) 고영근, 앞의 글, pp. 477-499

국어학 분야에서는 이상 네 차례의 언어 규범 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북한의 어문정책을 시대적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¹⁾

제1기	1948년 이후	조선어신철자법 시대
제2기	1954년 이후	조선어철자법 시대
제3기	1966년 이후	조선말규범집 시대
제4기	1988년 이후	새규범집 시대

북한당국은 1948년 조선어신철자법을 발표하면서 한글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조선어로 표기하였다. 조선어라는 용어를 선택하면서 북한당국은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 규정을 벗어나 한글자모의 이름과 배열을 다르게 하고 한자어 어두에 ㄴ·ㄹ이 올 경우 두음법칙을 무시하고 발음하는 원칙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49년 6월 북한 교육성에서 초급중학교 2학년용 문법교과서로 발행한 『조선어문법』에서 여전히 한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모의 이름과 배열을 “한글마춤법통일안”에 따른 것으로 보면 당국의 이런 주장이 즉시 언어생활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⁵²⁾

문제는 그 뒤에도 북한당국은 조선어철자법과 조선말규범집을 발표했고 김일성이 나서서 1964년과 1966년에 이른바 교시를 내놓는 등 공통의 문화유산을 계승한 남쪽과 다른 방향의 어문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점차 한글 대신 조선어라는 표현이 자리를 잡았고 두음법칙을 무시하는 한편 자음과 모음의 이름과 배열도 남쪽과 다르게 표기하게 된 것이다. 다음 자료에서 그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50) 이옥련, 앞의 책, p.164

51) 국립국어연구원, 『북한의 언어정책』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2; 학자에 따라 1948년 1월 15일 발표한 조선어신철자법은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의 어문정책 기원을 1954년 조선어철자법 이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948년 조선어신철자법에서 제안했던 한글자모의 명칭과 순서의 변경이나 한자어 어두에 ㄴ·ㄹ이 올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그대로 1954년 조선어철자법에 이어진 것으로 미루어 그 시작은 1948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2) 고영근 “우리나라 학교 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2000년 여름호

[1933년 조선어학회, 한글마춤법통일안]

제1장 자모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제1항 한글의 자모의 수는 24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부기] 전기의 자모로써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기로 한다. 적기로 한다.

ㄱㅇ ㅊㅇ ㅅㅅ ㅈㅈ ㅊㅊ ㅅㅈ ㅈㅅ ㅊㅅ ㅅㅊ ㅏㅑ ㅑㅏ ㅓㅕ ㅕㅓ ㅗㅛ ㅛㅗ ㅜㅠ ㅠㅜ ㅡㅣ ㅣㅡ

제2절 자모의 이름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귤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의 ㅣ 이

[부기]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정한다.

ㄱ 쌍기역 ㄷ 쌍디귤 ㅂ 쌍비읍 ㅅ 쌍시옷 ㅈ 쌍지읒

[1980년 한글학회, 한글맞춤법]

제1장 글 자

제1항 한글 글자의 수는 스물 넷 자로 하고, 그 차례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귤	ㄹ 리을
ㅋ 미음	ㅂ 비읍	ㅅ 시읏	ㅇ 이응
ㅈ 지읏	ㅊ 치읏	ㅋ 키읏	ㅌ 티읏
ㅍ 피읏	ㅎ 히읏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붙임] 위의 글자로써 적을 수가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글자를 어울려서 적되, 그 차례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ㅈ 쌍기역	ㄷㅌ 쌍디귤	ㅂㅍ 쌍비읍	ㅅㅈ 쌍시읏		
ㅈㅊ 쌍지읏	ㅏㅑ 애	ㅓㅕ 얘	ㅗㅛ 에	ㅑㅓ 얘	ㅗㅛ 나 와
ㅓㅕ 내 왜	ㅏㅑ 시 외	ㅓㅕ 거 위	ㅗㅛ 게 웨	ㅑㅓ 기 위	ㅗㅛ 니 의

[1995년 국립국어연구원, 한국 어문 규정집]

제 2 장 자 모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쌍기역)	ㄸ(쌍디귤)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ㅙ(애)	ㅞ(예)	ㅚ(에)	ㅜ(와)	ㅟ(왜)
ㅝ(외)	ㅝ(위)	ㅞ(웨)	ㅞ(위)	ㅟ(외)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987년 북한, 조선말 규범집]

제1장.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1항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읍) ㄴ(니은) ㄷ(디은) ㄹ(리을) ㅁ(미읍) ㅂ(비읍) ㅅ(시읏)
ㅇ(이응) ㅈ(지읏) ㅊ(치읏) ㅋ(키읍) ㅌ(티을) ㅍ(피읏) ㅎ(히읏)
ㄱ(된기읍) ㄷ(된디은) ㅃ(된비읍) ㅆ(된시읏) ㅉ(된지읏)
ㅏ(야)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ㅞ(에) ㅟ(애) ㅚ(에) ㅜ(예)
ㅜ(외) ㅟ(위) ㅟ(의) ㅞ(와) ㅟ(워) ㅞ(왜) ㅟ(웨)
자음글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수도 있다.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응) (즈) (츠) (크) (트) (프) (호)
(끄) (뜨) (쁘) (쓰) (쯔)

위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언어규범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이질화 현상이 북한당국의 의도적인 이질화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1988년 한글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이나 1995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한국 어문 규정집]을 보면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 제시한 주요 규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자모는 여전히 스물 녀 자이고 그 순서와 이름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1987년 북한당국이 내놓은 [조선말 규범집]을 살펴보면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주요 규정을 바꿔 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글이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조선어라 하고 자모의 수는 40자로 늘어났으며 그 이름도 기억에서 기음으로, 디근에서 디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왜 일제치하에서도 애써 지켜 온 문화적 자산의 전통을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어문정책을 추구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 부분에서 북한당국의 의도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4. 남북한 언어이질화를 추구해 온 북한당국의 의도

해방 당시 남북한 당국은 문맹퇴치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온 국민을 상대로 우리말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점에서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1930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우리 나라의 인구는 약 1,500만 명이었는데 문맹자는 대략 1,000만 명 수준이었다고 한다.⁵³⁾ 이 상황은 해방 당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남북한 당국은 다 같이 문맹퇴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남북한에서 벌어진 문맹퇴치 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은 초창기부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남쪽에서는 조선어학회가 중심이 되어 “국어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한글문화보급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우리말과 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강습소를 설치하고 강사를 파견하는 등 당국의 정책적 차원보다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위주로 문맹퇴치 운동이 벌어졌다.⁵⁴⁾

53) 김민수 『북한의 국어연구: 증보판』 서울: 일조각, 1989

54) “백양사 한글운동 공개-1998년 10월 14일 『현대불교』 193호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193/c-10.htm>)
“김민수 교수의 백양사 일기- 1998년 1월 21일 『현대불교』 194호

한편 남쪽과 달리 북쪽에서는 당국이 나서서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 혁명과업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분단 직후부터 문맹퇴치 운동과 아울러 한자 사용 폐지 및 한글 가로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당국이 주도한 문맹퇴치 운동의 결과 북한에서는 1948년을 기준으로 230만 명의 문맹자에게 글자교육을 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⁵⁵⁾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국이 서로 다른 방향의 어문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언어의 기능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한에서는 언어란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보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혁명수행의 중요한 무기이며 인민대중에 대한 선전교양 수단이고 원쑤에 대한 강력한 투쟁 도구”로 본다.⁵⁶⁾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방향의 어문정책을 추구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1945년 분단 이후 오늘날까지 민족어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분단 직후, 김일성은 소련의 지도 아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다. 김일성이 비록 소련의 후원으로 정치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는 했지만 당시 북한의 상황은 약관 33세에 불과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마음껏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녹녹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김일성이 이끄는 세력은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나 김두봉·최창익 등 쟁쟁한 경력의 인물이 많았던 연안파는 물론이고 박헌영을 필두로 모인 남로당파에 비해 결단코 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당시 평양에는 좌익과 우익 세력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소련에서도 손을 잡고 싶어하던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우선 순위를 두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대다수 사람들이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194/d-5.htm>)

55) 해방 이후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230만 명의 문맹자에게 글자교육을 시켰다는 주장을 보면 당시 북한당국의 문맹퇴치 운동은 우리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차원의 글자교육이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수 『북한의 국어연구: 증보판』 서울: 일조각, 1989 참조

56) 국토통일원 『남북한 언어 공동연구 방안: 언어의 동질성 확보를 중심으로』 1973, p.13 ;이옥련 “남북한의 언어 차이 고찰” 『분단·평화·여성 (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연구회, 1997, p.164

만들어야 하는 일이었다. 남한과 맞서 북한사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내야 하는 김일성의 입장에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한반도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절박하고도 중요한 과제였다.

따지고 보면 분단 이후 초창기에는 김일성과 그 측근 세력도 서울을 문화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앞두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의 명의로 9월 8일 발표한 “헌법승인과 그 실시에 관한 결정”을 보면 헌법 제10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首府는 서울이다”로 규정해 놓았다. 1948년 제정한 북한 헌법에서 이 부분을 직접 인용해 보자.

제9장 국장, 국기 및 首府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 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1948년 5월 1일, 평양에서 혁명자 유가족학원 학생들이 5·1절 행사 기념식에 참여하여 사열하는 장면을 보면 김일성과 스탈린 사진 좌우로 소련의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걸어 놓았다. 또한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일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도 태극기와 소련의 국기가 함께 등장한다.⁵⁷⁾ 그런데 같은 해 9월, 북한당국은 태극기와 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제정하여 그 모양을 헌법 제102조에서 명시하였다.

말하자면 1948년 5월 이후 9월 사이에 북한당국은 그 동안 우리 민족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해 왔던 문화적 상징 태극기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상

57)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신서, 2002, pp. 231-232

정체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또 일제 치하에서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불렀던 애국가를 저버리고 이기영이 작사한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새로 애국가로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9월 8일 당시 북한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10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首府는 서울이다”로 규정했다.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당국은 국가의 상징체계 중에서 눈에 보이는 깃발과 노래는 한 순간에 바꾸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인식세계를 지배하는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바꿀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그만큼 당시에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지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1949년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면서 한자를 전면폐지하고 한글 전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북한당국은 한글전용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뒤 각 분야에 걸쳐 그 원칙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글전용 원칙을 정한 뒤에도 여론을 고려하여 당분간 한문병기를 허용했던 남쪽과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

북한당국은 한글전용 원칙을 정한 뒤 교과서뿐만 아니라 잡지·공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모두 한글전용으로 출간했으며 주요 일간지인 로동신문도 숫자를 제외한 한자를 일체 쓰지 않았다. 이 사실은 참고자료로 제시한 1955년 12월 18일자 로동신문 제1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한자에 익숙해 있던 당시의 사회적 정서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그 당시 북한당국은 문맹퇴치와 한글보급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대중이 알아들을 말, 대중이 원하는 글, 대중이 요구하는 말과 글”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표방하였다.⁵⁸⁾ 북한당국이 추진했던 이와 같은 정책은 전통사회에서 신분적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대다수 인민에게 환영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

58) 국토통일원, 앞의 글, 1973, p.6



<그림 5>로동신문1955. 12. 18. 1면:숫자표시를 제외하고 한글전용, 세로쓰기

그 당시 북한주민들은 어려운 한자가 없고 쉬운 우리말로 쓴 신문을 환영했다. 대다수 인민이 환영하는 것을 경험한 김일성이 언어정책을 더욱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그가 대중의 호응을 즐기기 위해 설정했던 방향이 곧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1964년 1월 3일 언어학자들과 담화하는 자리에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교시를 내렸고 1966년 5월 14일에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라는 교시를 내렸다. 북한당국은 두 차례에 걸친 김일성의 교시를 계기로 북한의 어문정책이 소위 “사회주의 선진언어이론”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주체언어이론”을 발전해 나간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북한당국의 어문정책이 “사회주의 선진언어이론”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북한당국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와 구분하여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어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1964년 언어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이 중심지라는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은 문자개혁 문제, 한자어 문제, 외래어 문제, 단어의 표시 및 어휘 정리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부분을 직접 인용해 보자.

우리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 말을 본받아도 안되며 또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1964년)

지금 남조선 멧쟁이들도 영어와 일본말을 망탕 섞어 쓰면서 우리말을 못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말을 함부로 쓰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라는 말을 <에꾸자멘>이라고 하며 <학급>이라는 말을 <클라스>라고 합니다....어떤 사람들은 <양복저고리>하면 될 것으로 <우와기>라고 하며 <양복바지>를 <즈봉>이라고 하면서 계속 일본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에서 쓰는 말 가운데는 일본말이 아주 많습니다. (1964년)

김일성은 서울말이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상태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같은 글에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말을 함부로 쓰는 폐단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온다. 남한에서 외래어를 쓰는 현상을 비판하면서도 북한에도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인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통해 김일성은 남쪽이 외래어를 쓴다는 그 현상 자체보다 북쪽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는 강력한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어문생활을 당국이 나서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 다음 인용문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우리말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조사연구사업이 필요하며 또한 강한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이나 다른 기관들에서 새 말을 되는데로 만들어 내지 못하게 하며 모든 기관들이 공문이나 출판물들에서 정확한 조선말을 쓰도록 강하게 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문학 연구소가 우리말을 정리하며 새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합니다... (1964년)

다음으로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사회적 운동을 벌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힘든 한자어를 쓰지 말고 군중이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것을 당적으로 널리 선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와 달리 당이 옳은 방향만 내세우면 대중은 인차 그것을 따라 옵니다. (1964년)

실제로 북한당국은 1964년 김일성의 일차 교시가 있는 뒤 내각 직속 기관으로 국어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어휘정리 작업과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 및 통제를 맡은 전문기관 역할을 맡겼다. 그 뒤 국어사정위원회는 “언어 발전, 언어 사용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비준하는” 일을 담당했고 로동신문 등에 게재하는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주도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 통합되기에 이른다.⁵⁹⁾

59) 고영근 “통일에 대비한 어문정책”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서울: 도서출판 길벗,

김일성이 내세우는 명분은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지켜야 하는데 “한자말과 일본말·영어를 빼버리면 토만 남는” 남쪽 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자.

언어는 민족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인데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이 이렇게 서양화·일본화·한자화 되다보니 우리말 같지 않으며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 민족어가 없어질 위험도 있습니다.(1966년)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이 문제라고 규정한 김일성의 발언이 그 이후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은 35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1) 남한은 외래어를 쓰는데 북한은 순수한 우리말을 쓴다는 의견

여기서는 외래어, 한자어 많이 쓰지만 북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지키고 있다. 어디 다닐 때 다 외래어로 돼 있고 친구들 말할 때 퍼펙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어른들 경우에는 물어 볼 사람도 없어 딱하겠다.

2) 남한은 외래어·영어·미국말을 쓴다는 의견

남쪽 말은 한국말과 영어 비율이 50대 50 같다. 생활용어를 잘 모르겠는 것은 다 외래어, 기본 외래어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다.

북한은 우리 나라에서 이전부터 쓰던 말을 쓰는데 한국은 경제가 발달해서 그런지 언어도 달라졌다.

여기서는 민족성 있는 원말은 모른다. 다른 외래어를 많이 쓴다.

여기가 순 미국말 많이 쓴다. 북에서 배울 때 한국은 자기 말 다 뺏기고 미국말 쓴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서양식 생활양식 따라가다 보니까 외래어식 상표가 많다. 남쪽 사람이 영어 표현 많이 쓰는 것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여기 한국 땅에서 우리말을 너무 혹사시킨다. 외국말 배우는 건 외국 나가서 쓰기 위해서 아니면 외국 사람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국어랑 너무 섞여 있다. 알아 못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말 쓸 수 있는 것까지 외래어 쓴다.

밖에 나가면 다 영어다. 젊은 애들이 특히 많이 쓴다. 컴퓨터 상에도 다 영어다. 여기서 심키로 하는데 우리는 아홉키로, 마흔키로 이런 말 잘 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웃더라.

3) 북한은 외래어를 안 쓴다는 의견

북한은 외래어 안 쓴다. 지방 사투리가 있어서 알아듣기 어려운 건 있어도... 남한은 외래어도 많은데 북한에서 영어 안 배운 사람은 더욱 외래어가 어렵다. 북한은 영어교육과 실생활이 결합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치킨 배워도 안 쓰니까 잊게 된다. 엘리베이터 외워도 본 적이 없으니까...

북한은 자기나라 거만 자기 거라 생각하고 외부 거 침입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지키려 했는가? 우선 서울말을 표준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표준어라는 용어를 없애고 “혁명의 수도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는 문화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북한당국이 언어사용 현황을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김일성의 방침이었다.

표준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 (1966년)

새로 나오는 말들에 대하여서는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잘 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당 및 국가기관들에서...학술용어들이 기관에서부터 점차 아래에 내려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술용어는 아래에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각과 성에서 지어내려 보냅니다. (1966년)

1966년 김일성의 교시를 계기로 북한당국은 서울의 표준말과 구분하여 평양말을 위주로 하는 문화어를 제정하고 북한 전역에서 문화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문화어 운동이란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 단어를 찾아내서 정리하고 우리의 옛말이나 방언 중에서 좋은 말을 골라 문화어로 만들면서 “혁명적 문풍”을 따르는 문장체와 구어체를 일반대중에게 교육시키는 운동을 뜻한다.⁶²⁾

62) 홍연숙 『남북한 언어문화 비교』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1, pp.91-93; 북한당국은 문화어 운동의 결과 1970년대 중반까지 방언 중에서 3,100개 단어가 문화

그런데 북한당국이 문화어 운동과 말 다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던 시기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수령중심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의식개조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1966년 7월 이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등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일간지와 지방 신문 및 『문화어학습』을 비롯한 각종 잡지를 통해 문화어 운동과 말 다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후 말 다듬기 운동과 문화어 운동은 북한의 어문정책이 독특한 방식으로 김일성 우상화에 기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굳어진 것이다.

요약하면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이 두 번의 교시를 내릴 때까지 북한의 어문 정책은 서울 중심의 원류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뒤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찾아서 되살린다는 명분 아래 말 다듬기 운동을 하면서 서울말을 “잡탕말”로 규정했다. 북한당국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는 대신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가 순수한 우리말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부단히 북쪽 주민들을 설득해 온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북한당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말 다듬기를 전개해 나간다. 북한당국이 추진했던 말 다듬기 운동은 처음에 분명히 우리말을 다듬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강력한 지도자, 수령의 위치로 부각시키는 도구로 작용했다. 다음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로 승격되었다고 주장한다.

제4장 로동신문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1964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언어학자들을 상대로 조선어를 발전시킬 것에 대한 교시를 내렸다. 두 차례의 교시는 사실상 북한당국의 언어정책이 일제시대 이후 남북한이 분단의 상태에서든 계승해 온 조선어학회의 전통과 결별하는 계기가 된다.

김일성의 교시가 나오기 전까지 로동신문은 1월 15일에 훈민정음창제기념일 행사를 보도했으나 1964년 교시가 나온 뒤에는 이와 같은 흐름마저 끊어졌다. 당연히 로동신문에서는 세종대왕 당시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관여했던 집현전 학사들의 공로는 물론이고 일제치하에서 어렵게 한글을 가꾸고 다듬어 온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도 없어졌다.

특히 1966년 5월 14일에 두 번째 교시가 나온 뒤, 로동신문은 7월 9일자에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게재하면서 점차 김일성의 존재를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어 온 인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점차 “4천만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거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이름으로 글을 시작하는 현상이 자리를 잡아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했던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의 존재는 물론이고 일제치하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눈부신 활동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렸다. 오늘날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지난 시기 강도 일제에 맞서 우리말과 글을 지켰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활약상을 기억하게 되었을 따름이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우리의 말과 글은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의 날카로운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온갖 계급적 원썩들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⁶³⁾

63) 전혜정 (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 언어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19

물론 이른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일제에 맞서 우리말과 글을 지킨 인물과 동일시되는 과정이 손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북한당국은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전개하면서 시간을 두고 집요하게 김일성의 이름을 우리말과 글을 지킨 인물로 부각시키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북한당국이 전개해 온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 어떻게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 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 로동신문에만 게재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게재했던 신문과 잡지 중에서 로동신문이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언론매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로동신문에서 1966년 7월 9일 제1회로 시작한 뒤 1973년 10월 23일 제 554회를 마지막으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게재를 갑자기 중단할 때까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 다듬기 운동을 주도했던 북한당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로동신문에서 게재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분석하기 앞서 로동신문의 일반적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로동신문은 물론 북한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이지만 그 형태와 특성에 대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론매체는 아니므로 먼저 소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1. 로동신문 소개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북한당국이 중앙신문으로 소개하는 주요 일간지 중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비롯하여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인 청년신보, 인민군에서 발행하는 조선인민군 등이 있다. 그 이외에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는 평양신문을 발행하고 각 도에서는 해당 도의 소식을 전하는 도일보를 발행한다. 또한 교원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교원신문이 있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꽃봉오리와 새날 등의 신문이 나온다.

북한당국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 신문별로 발행부수가 많지 않아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입장

을 대내외에 공개하는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로동신문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로동신문은 일년 내내 휴간하는 날이 없다. 게다가 북한 내 모든 근무지와 학교에서는 아침 독보회를 할 때 로동신문의 사설과 정론을 주요 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북한주민 중에서 로동신문의 내용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의 발행부수는 90만-100만 부 수준에 머물러 북한주민들이 각자 가정에서 로동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로동신문의 발행기관은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일간지의 발행기관이 민간 신문사가 아니라 집권당 중앙위원회라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당 우위의 정책을 펼치는 북한에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신문은 다른 출판물 및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내각 직속 출판보도총국의 행정지도를 받는 한편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의 지도와 통제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문은 기사를 통해 “선전선동자의 기능, 조직자의 기능, 문화교양자적 기능” 수행을 감당해야 하며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은 은폐하고 모범적이고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서 보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날 로동신문은 1일 6면으로 발행하지만 처음에는 4면으로 발행했었다. 그 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 3회는 4면을 발행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4회는 6면을 발행했으나⁶⁴⁾ 1975년 1월 이후 매일 6면으로 발행하는 형태로 굳어졌다. 6면 중에서 1-4면은 통판으로 붙어 있고 5-6면은 간지 형태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로동신문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각 면에 게재하는 기사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대체로 1-2면은 정치면, 3-4면은 사회면, 5면은 대외면, 6면은 대남면으로 편집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 같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 로동신문에서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64) 안춘옥 “북한신문의 기능에 관한 연구: 9개 사건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0, 39쪽

김일성의 생일이나 조선로동당 당대회 등 주요 행사가 있는 날에는 8면, 12면, 24면 등으로 증면 발행하면서 각 면에 어떤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지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는 뜻이다.

창간 당시 로동신문은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 세로쓰기 형태로 발간했으나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숫자 이외의 한글전용·세로쓰기 단계를 거쳐 한글전용·전면 가로쓰기 단계로 변모해 나갔다. 1949년 한글전용 방식을 천명한 북한당국의 방침에 로동신문도 적극적으로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동신문은 1949년 이후 숫자를 제외한 모든 글자를 한글로 표기하되 세로쓰기를 유지하다가 1956년 4월 16일,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한 안내문만 제시한 뒤 한글전용·전면 가로쓰기 정책을 전격적으로 단행한다.

<그림 6> 로동신문 1956. 4. 16. 1면

편집위원회로부터 본보는 오늘호(1956년 4월 16일 부) 신문부터 횡서체로 발간함을 알려 드립니다.

일간신문이 한글전용·전면 가로쓰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정서로 미루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남한에서는 일간신문이 한글전용·전면 가로쓰기 방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88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창간 이후의 일이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로동신문이 1956년 4월 16일에 한글전용·전면 가로쓰기 방식을 채택한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로동신문은 하필이면 왜 1956년 4월 16일에 사회적 충격과 예상이 되는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로동신문이 1면 하단에 조그맣게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⁶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로동신문이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도구로 자리잡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의 종이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태로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로동신문을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구분하여 종이질을 다르게 제작하는 현실은 북한의 종이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간접적으로 시사

65) 필자의 짐작으로는 그 때부터 이미 로동신문사 내부에서는 김일성의 생일에 맞추어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성향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내용을 확인할 자료는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다.

해 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림 6> 로동신문 1956. 4. 16. 1면:



<그림 7> 로동신문 2001. 3. 25. 1명 : 외부발송용 또는 수출용



<그림 8> 로동신문 2001. 3. 25. 1면 : 북한 내부배포용, DHLSwhR 그림보다 지질이 좋지 않아 인쇄상태가 나쁨을 확인할 수 있음.

2.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전개

1966년 7월 9일 로동신문은 제1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게재했다. 그 이후 1973년 10월 28일 제554회를 게재할 때까지 로동신문은 몇 차례의 예외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2-3일 간격을 두고 꾸준히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실었다. 사실상 로동신문은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말과 우리글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바 있다. 말하자면 제1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게재에 앞서 로동신문은 사전에 충분히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554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마지막으로 로동신문은 아무런 사전·사후 조치 없이 갑자기 이 기사의 게재를 중단하고 말았다. 이 부분에서는 로동신문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게재를 시작하고 갑자기 중단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진행과정

1966년 7월 9일 로동신문 제4면에는 “<우리말 다듬기>의 지상토론을 시작하면서”라는 제목 아래 국어사정위원회의 인사말과 관련기사가 나온다. 국어사정위원회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하고 쉬운 글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문혀있는 좋은 말을 찾아쓰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어사정위원회에서는 이 지상토론을 조직한다....독자들은 다듬은 말이 마음에 드는가 안드는가, 마음에 안든다면 어떤 말로 다듬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우편으로 국어사정위원회나 본사에 보내되 직장, 직위, 이름, 나이를 밝혀서 보내주기 바란다....아름다운 우리말을 활짝 꽃피우며 더욱더 빛내기 위하여 모두 다 이 토론에 참가하자.⁶⁶⁾

66) 똑같은 인사말이 1966년 7월 15일 제3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 한 차례 더 나온다. 그 이후에는 1973년 10월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 끝날 때까지 이런 형태의 인사말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림 9> 로동신문 1966. 7. 9. 4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1회

제1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던 한자어 용례 8개를 대신할만한 우리말 표현을 소개해 놓았다. 예를 들어 출구·입구는 나가는 곳과 들어가는 곳으로 다듬고 공휴일은 쉬는 날로, 두절되다는 구체적 용례에 따라 끊어지다와 막히다로 고쳐 쓸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형태상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제2회부터 그 날 토론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수학·의학·금속 등으로 밝히기 시작했으며 끝부분에 “국어사정위원회 제공”이라고 출처를 명시해 놓았다. 1967년이 되면 출처의 명칭이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로 바뀐다. 그러다가 1968년에 들어서면 그 출처가 운수용어분과위원회에서·의약학용어분과위원회에서·일반어분과위원회에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매회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에서 흔히 쓰는 말들을 토론에 내놓으려 한다,” “다음 번에는 ...에서 쓰는 말들을 지상토론에 붙이려 한다,” “우의 다듬으려는 말마디들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등 여러 형태의 문장을 통해 글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독자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1966년 7월 9일 제1회 이후 1973년 10월 29일 제554회까지 대체로 2-3일 간격으로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 물론 북한당국의 필요에 따라 10-15일 정도 게재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로동신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신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예를 들어 1972년 3월 29일 제442회에서 체육분야의 용어를 다룬 뒤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 중단했다가 6월 7일 제443회에서 건설분야의 용어를 대상으로 말 다듬기를 계속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로동신문은 온통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축하하는 기사를 넘치게 수록했기 때문에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제442회 1972년 3월 29일
제443회 1972년 6월 7일 비교 제시

이렇게 시작과 전개 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반하여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 어떤 이유에서 1973년 10월 29일 제554회를 끝으로 더 이상 게재되지 않게 된 것인지 밝혀진 바 없다.⁶⁷⁾ 마지막회 지상토론은 수산해양용어분과위원회 명의로 16개 용어를 선정하여 우리말 표현으로 다듬는 의견을 소개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두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더욱 활발히 벌려야 한다. 이번에는 물고기의 알과 관련한 말을 비롯한 일부 말마디들을 토론에 붙인다.

제554회 1973년 10월 29일 마지막회 우리말다듬기 지상토론 제시

67) 필자는 제554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 마지막회인지 확인하기 위해 1973년 11월과 12월, 1974년과 1975년 로동신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종단을 알리는 내용이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단하겠다고 설명하는 기사를 찾지 못했고 제555회 지상토론도 볼 수 없었다.



<그림 10> 로동신문 1966. 7. 12. 4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2회



<그림 11> 로동신문 1966. 7. 15. 4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3회



<그림 12> 로동신문 1966. 7. 19. 4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4회



<그림 13> 로동신문 1966. 7. 22. 4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5회

<검은금>을 아끼는 사람들

방앗간에서부터 수공업 공작기구에 이르기까지 사물 사치

「검은금」을 아끼는 사람들. 방앗간에서부터 수공업 공작기구에 이르기까지 사물 사치. 이 글은 1972년 3월 29일 로동신문 6면에 실린 기사이다. 이 기사는 당시 소비주의와 사치주의를 비판하며, 노동자들이 자급자족의 정신으로 생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방앗간에서부터 수공업 공작기구에 이르기까지 사물 사치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검은금」을 아끼는 사람들. 방앗간에서부터 수공업 공작기구에 이르기까지 사물 사치. 이 글은 1972년 3월 29일 로동신문 6면에 실린 기사이다. 이 기사는 당시 소비주의와 사치주의를 비판하며, 노동자들이 자급자족의 정신으로 생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방앗간에서부터 수공업 공작기구에 이르기까지 사물 사치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방앗간에서부터 수공업 공작기구에 이르기까지 사물 사치

심전적응모형으로

심전적응모형으로. 이 글은 심전적응모형에 대한 설명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심전적응모형은 인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모델로, 다양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글은 심전적응모형의 구성 요소와 적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심전적응모형으로. 이 글은 심전적응모형에 대한 설명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심전적응모형은 인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모델로, 다양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글은 심전적응모형의 구성 요소와 적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림을 임제강도높음을 이렇게 그려냈다

그림을 임제강도높음을 이렇게 그려냈다. 이 글은 그림의 강도를 높이는 기술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그림의 선명도와 대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이 글은 그림의 강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을 임제강도높음을 이렇게 그려냈다. 이 글은 그림의 강도를 높이는 기술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그림의 선명도와 대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이 글은 그림의 강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을 아껴주세요

우리의 생활을 아껴주세요.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의 절약과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급자족은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글은 자급자족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을 아껴주세요.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의 절약과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급자족은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글은 자급자족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TRAVEL
 한국여행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1-1
 전화: 4433

여행사 정보와 예약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입니다.

<그림 14> 로동신문 1972. 3. 29. 6면 : 우리말 다듬기



<그림 15> 로동신문 1972. 6. 7. 6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443회



<그림 16> 로동신문 1973. 10. 28. 6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554회 마지막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554회의 필자는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 그 다음 회부터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갑자기 중단된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었는지 로동신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당국은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내막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당시 북한당국이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던 김일성 우상화 작업 및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이나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 확보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사회상과 로동신문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예고 없는 중단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2)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과 김일성의 관계 변화

로동신문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게재하기 시작한 뒤 가장 큰 변화의 조짐은 1967년 11월 8일 제124회에서 나타난다.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제1회부터 제123회까지 철저하게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말 다듬기 작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⁶⁸⁾ 그런데 제124회는 예전과 달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첫 부분을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암시하고 있다. 제124회는 건설과 경공업 부문의 용어를 다듬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며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다층집이 줄지어 늘어서고 있다. 특히 영웅적평양시민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설하는데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68) 초창기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며칠에 한 번씩 독자들의 의견이나 독자의 편지를 게재함으로써 독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제11회 (1966년 8월 11일), 제14회 (8월 19일), 제22회(9월 13일), 제25회 (9월 24일), 제31회 (10월 17일), 제36회 (11월 15일), 제37회 (11월 18일), 제41회 (12월 9일) 등을 참조하세요.



<그림 17> 로동신문 1967. 11. 8. 6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 124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 김일성의 이름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의 이름이 한 번 등장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나왔던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의 이름이 처음 나온 뒤 다시 등장한 것은 이듬해인 1968년 2월 21일의 일이다. 3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1967년 11월 당시 북한 전역에서는 몇 달 전에 나온 5·25교시의 여파로 대대적인 도서정리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주민들은 누구나 김일성의 “초상회장을 가슴에 모시고” 각종 우상화 예식을 치르는 한편, 분단 이후 한동안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면서 금기로 삼아왔던 표현인 신앙심, 충효, 군신, 의리와 같은 낱말을 동원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단계에 놓여 있었다.⁶⁹⁾ 말하자면 당시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5·25교시 이후 당의 순결성이 완성되고 온 사회에 수령의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내면화하는 중이었다.⁷⁰⁾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으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지면에서는 1967년 11월 8일 제124회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름이 한 번 등장했을 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과정이 나왔고 독자들의 의견이 게재되곤 했다.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인 만큼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겠으나 이런 현상은 당시 북한의 국어사정위원회 내부에서 활동했던 학자들의 태도를 시사해 주는 자료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김일성의 이름을 앞세우는 일에 소리 높여 반대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이런 자료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 김일성의 이름이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1968년 2월 21일 제148회에 이르렀을 때였다. 1967년 11월 8일 처음 김일성의 이름이 나온 뒤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의 일이었다. 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뒤

69) 성혜량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1, 312-317쪽

70) 성혜량, 앞의 책, 2001, 317쪽

사이공 함순누르비행장과미제침략 군사행부를포격하여 많은 적을살상

남부방위군연세동무장대가 오거서서 계속 전과를 올리고

남부방위군연세동무장대가 오거서서 계속 전과를 올리고



남부방위군연세동무장대가 오거서서 계속 전과를 올리고

조선에서의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경계하 상의

일련연속으로 미제침략자들의 전쟁 도발책동에 경계하 상의

일련연속으로 미제침략자들의 전쟁 도발책동에 경계하 상의

〈생신유격대〉 운동

생신유격대 운동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글

북남예비자들이 요구된 때에는 언제나 남남 연인과 함께 남남 반대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북남예비자들이 요구된 때에는 언제나 남남 연인과 함께 남남 반대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북남예비자들이 요구된 때에는 언제나 남남 연인과 함께 남남 반대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된 각종 운동과 성과에 대한 보도

Advertisement for a product, possibly a book or a set of materials, with a price tag of 1400. The text is dense and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duct's features and availability.

세계인민들의 감격천 만대성

세계인민들의 감격천 만대성 - 국제적 연대와 지지의 표현

속곡성 위대한 승리

속곡성 위대한 승리 - 군사적 성과와 그 의미에 대한 보도

<그림 18> 로동신문 1968. 2. 21. 6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148회

공속의 보물창고는 <최후의>들

공공보유가 되어가는 국유재산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상토론이 중요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래도 일일 수확

이래도 일일 수확... (Text describing agricultural or economic conditions)

오직 환파를 혁명을 위하여

노동운동의 단결과 투쟁을 위하여
노조 투쟁을 위한 단결과 투쟁을 위하여

노동운동의 단결과 투쟁을 위하여... (Text about labor union solidarity)



오직 환파를 혁명을 위하여... (Main body of the article discussing labor revolution)

노동운동의 단결과 투쟁을 위하여... (Continuation of the labor movement article)

수선차량을 건군총력운동으로 보호총성하여 벌이 오는 모든 차에서 불교가 복합받은 거 같다

수선차량을 건군총력운동으로 보호총성하여 벌이 오는 모든 차에서 불교가 복합받은 거 같다... (Text about vehicle maintenance and Buddhist activities)

대한항공 (KTC)

항공 운송 서비스 안내

주요 노선: 서울 - 부산, 서울 - 인천, 서울 - 대구

예약 및 문의: 02-1234-5678

<그림 19> 로동신문 1968. 5. 25. 6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170회

두 번째로 등장할 때 김일성의 이름은 제148회에서 글의 첫 머리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었다.

예로부터 된장이나 간장과 같은 것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특히 사랑을 받고 있는 식료품의 하나로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아름다운 고유한 우리 말들이 많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우리 말을 되도록 찾아써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말을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시대의 말답게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자.

그로부터 다시 3개월 가량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예전의 형태로 돌아가 우리말 다듬기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 김일성의 이름이 두 번째 나온 뒤 세 번째 그 이름이 등장할 때까지 다시 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 것이다. 1968년 5월 25일, 제170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마지막 부분에 김일성의 이름이 세 번째 등장했다.

우리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시대의 말답게 우리 말을 한층 더 활짝 꽃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3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오던 김일성의 이름이 제174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이후 제177회까지 연속 4회 등장하여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 김일성의 이름이 나오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6월 8일 제174회 마지막 부분에 이어 6월 10일 제175회에는 첫 머리를 장식했다. 그 이후 다시 6월 12일 제176회에는 김일성의 이름이 뒤로 갔다가 6월 15일 제177회에 앞으로 나온다. 174회 이후 연속 4회 김일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을 직접 인용해 보자.

고유한 우리 말에는 건설과 관련되는 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조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름답게 가꾸었고 특히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유격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 말을 더욱 주체성있게 다듬는 사업에 우리 건설부문 일군들도 한결같이 참가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968년 6월 8일 제174회)

농사에서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좋은 씨앗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육종 및 채종 관계의 용어를 토론에 내놓는다....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과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알곡을 정당 500키로그램씩 더 내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일떠선 전

국의 협동농민들과 더불어 농학용어를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잘 다듬는데 모두다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1968년 6월 10일 제175회)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농학용어를 농민들 자신이 잘 아는 훌륭한 우리 말로 다듬기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기 바란다. (1968년 6월 12일 제176회)

오늘 온 나라의 붉은 협동농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10대 정강에서 제시된 과업과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주신 그이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새기고 알곡 정당 500키로그램 이상씩을 더 내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1968년 6월 15일 제177회)

그러나 1968년 6월 17일 제178회 이후 같은 해 9월 28일 제195회까지 3개월 이상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찬사가 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김일성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68년 10월 2일의 일이다. 그 날 로동신문은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196회 기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어휘정리에 대한 정확한 방침에 따라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고유말로 다듬는 것은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어휘구성을 보다 풍부화시키고 발달시킨다. 이것은 우리말의 발달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영예롭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3개월 가량 공백기가 지난 뒤 1968년 10월 2일 제196회 첫머리에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라는 호칭이 다시 등장한 뒤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김일성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름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시작하는 표현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이때부터 다시 6개월 이상 지난 뒤의 일이었다.

당시 북한 전역을 휘몰아치던 김일성 우상화의 영향을 감안하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자리잡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좀더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시 북한의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학자들이 나름대로 김일성 우상화가 진행되는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모든 곳에서 연합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라격을 가하자!

남부철남인민해방무장력 시이공 불비웃린 여러지역에서 계속 공격

남부철남인민해방무장력은 시이공 불비웃린 여러지역에서 계속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무장력은 최근 몇 주 동안 남부철남의 여러 지역을 공격하여, 미제침략자들의 보급로와 통신망을 파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 무장력은 또한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미제침략자들의 공포심을 떨쳐내는데도 크게 공헌했다. 이 무장력은 앞으로도 계속 공격을 진행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남부철남인민해방무장력은 시이공 불비웃린 여러지역에서 계속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무장력은 최근 몇 주 동안 남부철남의 여러 지역을 공격하여, 미제침략자들의 보급로와 통신망을 파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 무장력은 또한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미제침략자들의 공포심을 떨쳐내는데도 크게 공헌했다. 이 무장력은 앞으로도 계속 공격을 진행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국형선거를 반대하여 참정국통일 승격

국형선거를 반대하여 참정국통일 승격을 주장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국형선거가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 운동은 참정국통일 승격을 주장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다각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농촌경리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촌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농촌경리개발사업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농촌경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편 중앙우체국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농촌수리사업

우편 중앙우체국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농촌수리사업에 대해 보도한다. 이 사업은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인민들의 무장투쟁 상황

인민들의 무장투쟁 상황에 대해 보도한다. 이 운동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적들에게 계속 호전공격

적들에게 계속 호전공격을 하는 운동에 대해 보도한다. 이 운동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풀코스담이 세계가 무서워
실학적인 시발력공의 경계를
경고한다**고 할커스관남이 언급

풀코스담이 세계가 무서워 실학적인 시발력공의 경계를 경고한다. 할커스관남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

나사의 거습적 행동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오랑해크인민들

나사의 거습적 행동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오랑해크인민들에 대해 보도한다. 이 운동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상토론 (174) 속사상의 지평

지상토론 (174) 속사상의 지평에 대해 보도한다. 이 토론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집트인민들의 활약의 무장투 반도시 승리할것이다

이집트인민들의 활약의 무장투 반도시 승리할것이다. 이 운동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인민들의 투쟁 상황

인민들의 투쟁 상황에 대해 보도한다. 이 운동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남부철남인민혁명군주장력이 5월말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적군 7만명을 심심

남부철남인민혁명군주장력이 5월말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적군 7만명을 심심



남부철남인민혁명군주장력이 5월말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적군 7만명을 심심

약 2만 5천명의 인민학생들이 전국적인반미동맹행동을 벌였다

약 2만 5천명의 인민학생들이 전국적인 반미동맹행동을 벌였다

라오스에국군배의 전과

라오스에 국군배의 전과

백두산의정령을 지키는 인민군에 대한 인민의 애정

백두산의정령을 지키는 인민군에 대한 인민의 애정

최고의 불나하시래

최고의 불나하시래

병제나라를 격

병제나라를 격

백두산의정령



백두산의정령

백두산의정령의 특질

백두산의정령의 특질



정예보병에서 4백여 명이 인민혁명군으로

정예보병에서 4백여 명이 인민혁명군으로

Advertisement for '지상토론 (175)' (Ground Discussion 175), featuring a list of names and topics.

<그림 21> 로동신문 1968. 6. 10. 6면 :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175회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이것이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열심 어려운 모퉁이를 도맡아

열심 어려운 모퉁이를 도맡아

열심 어려운 모퉁이를 도맡아

열심 어려운 모퉁이를 도맡아

열심 어려운 모퉁이를 도맡아

열심 어려운 모퉁이를 도맡아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자! 수령계 무한히 출직할 열념으로! 혁명열투가 사명하는 기동호 피억로계! 지방 당부회하여 로동적정당행습의 사명하 서행에서

지상토론 (176)

충성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

것에 대해 저항했던 흔적이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표 20]은 제1회부터 제123회까지 우리말 다듬기 운동에 전념하던 기사의 논조가 1967년 11월 8일 제124회에서 갑자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찬사로 시작한 뒤 김일성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매 2개월 단위로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변화의 추이를 살펴 본 기간은 1967년 11월 이후 1969년 6월에 이르는 시간이다. [표 20]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중에서 10% 미만의 기사가 김일성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 비율은 곧 30% 선으로 올라간다. 그 뒤 전혀 언급이 없다가 다시 60% 가까이 비율이 높아졌지만 곧 주저앉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일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기사의 비율이 90% 이상 나타나는 것은 1969년 5월 이후의 일이다. 그 시점이 지나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사실상 매회 김일성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0] 로동신문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 나타나는 김일성 이름의 빈도

시기	김일성 이름이 등장한 회수 (A)	총 회수 (B)	백분율 (A/B)	해당 회수
67년 11-12월	1	16	6.3	122-137회
68년 1-2월	1	12	8.3	138-149회
68년 3-4월	0	14	0.0	150-163회
68년 5-6월	5	15	33.3	164-178회
68년 7-8월	0	15	0.0	179-193회
68년 9-10월	7	12	58.3	194-205회
68년 11-12월	3	13	23.1	206-218회
69년 1-2월	6	13	46.2	219-231회
69년 3-4월	10	13	76.9	232-244회
69년 5-6월	12	13	92.3	245-257회

3. 당시 북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

로동신문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주기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하던 1966년 무렵 북한당국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중소분쟁의 여파로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소련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할 것을 선언했고 남쪽의 대한민국은 반공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발전 가도에 들어간 상태였다. 반면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던 경제분야에서도 어려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북한당국은 1967년에 끝낼 예정이었던 7개년 인민경제계획을 3개년 연장하여 1970년에 마무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때부터 로동신문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예고 없이 중단하는 197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사회에서는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대두하는 한편 조선로동당 내에서 김정일이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 위치를 확립하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북한당국이 당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위기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그 당시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그 무렵 북한사회 전역에 걸쳐 당국이 주도하여 폭넓게 진행되던 말 다듬기 운동은 북한당국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권에 호응하게 만들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의미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당국이 추진하던 말 다듬기 운동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주민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 형태를 바꾸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쪽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앞에서 지적한 사건들이 북한주민의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구체적으로 말 다듬기 운동에 어느 정도 변화를 초래했는지 관찰해 보고자 한다.

1) 주체사상의 본격화

1997년 4월 서울에 온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 1960년대 말엽이었다고 증언했다.⁷¹⁾ 당시 황장엽을 비롯한 북한의 철학자들은 김일성의 직접적인 배려 아래 3년 반 동안 전적으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황장엽 자신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었지만 주체사상 이론화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 행정적인 업무는 부총장에게 맡겨 두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황장엽을 비롯한 학자들의 공동연구 결과는 1972년 9월 일본의 마이니찌 신문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여 김일성의 이름으로 로동신문에 발표되었다. 북한당국이 최초로 주체사상의 정의를 규정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다고 황장엽은 지적한다.

북한에서 주체·주체성 확립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의 일이었다.⁷²⁾ 그 날 조선로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 참석한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었다. 그런데 1960년대 말엽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을 시작하여 1972년 최초로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당시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말 다듬기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로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제목에 “주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5년을 기준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⁷³⁾ 1952년 이후 1964년 이전에는 1956년과 58년, 64년을 제외하고 다른 해에는 1년 내내 단 한 차례

71)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년, p.107

72)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은 물론 이와 다르다. 북한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1926년 14세의 나이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함으로써 훗날 새로운 주체형의 당이 창건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1930년에는 약관 18세로 만주 길림성 장춘현 카툰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 지도 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혔다고 한다. 방찬영 『기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영사, 1995; 이재홍 외 『북한의 통치이념 주체사상의 본질』 문우사, 1989;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5

73) Seok-Hyang Kim, *The Juche Ideology of North Korea: Socio-Political Roots of Ideological Chan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93

도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1965년 이후 로동신문에서는 이런 형태의 기사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65년 2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조약에 가조인을 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 6월 22일에 양국의 외무장관은 정식으로 국교정상화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된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과 대학생들은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민족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하여 밤낮 없이 데모에 열중했다.

다음에 제시한 그림은 국교정상화 가조인을 하루 앞 둔 1965년 2월 21일자 로동신문이다. 그 당시 로동신문은 “남조선의 애국적인 시민과 학생들”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여기에 덧붙여 북한주민의 심금을 울리는 설명을 제시했다.

로동신문이 게재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60년 전 1905년 을사년에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 5적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는데 60년이 지난 오늘의 을사년에는 제2의 리완용 박정희가 전후보상금을 받고 우리 땅의 남쪽 절반을 일본에 넘기려 하니 모두 일어나 민족주체성 되찾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⁷⁴⁾

당시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식의 설명은 자신들이 한반도의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산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었다. 대

다수 북한주민들은 남쪽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 제공하는 보상금 명목의 돈을 받고 민족주체성을 일본에 팔아먹는 역도인 반면 북쪽의 수상 김일성은 민족주체성을 수호하려는 인물로 받아들였고 이 점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과시하는 만족감을 누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언어생활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워서 우수한 우리말

74) 로동신문이 이와 같은 논리를 개진해 온 것이 어디에 유래를 두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놓은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6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가 한 컷짜리 시사만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풍자하는 만화를 게재했다는 점이다. [한 컷짜리 만화, 그림으로 제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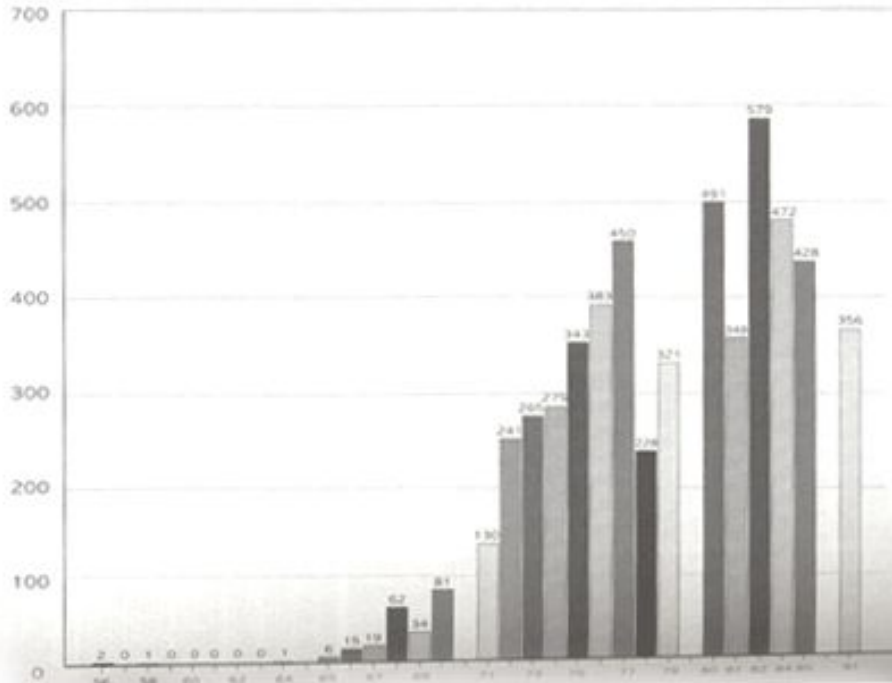


<그림 25> 로동신문 1972. 9. 19. 1면



<그림 26> 로동신문 1972. 9. 19. 2면

chart 1.2
Annual Number of Articles on Juche
1952-1982, 1984-1985, 1991



표현을 살려 써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외래어와 한자어를 배격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을 다듬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1964년과 1966년 두 차례의 교시를 통해 한자어와 외래어 표현을 제거하고 방언과 고유어에서 좋은 말을 찾아 쓰면서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를 대신하여 평양말을 기준으로 삼은 문화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장했다. 그 뒤를 이어 김정일은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요소를 극복하고 말과 글이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을 위하여 잘 복무할 수 있으며 사회에 건전한 언어생활기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⁷⁵⁾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처럼 언어생활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사실은 당시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75) 최정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언어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0, p.85

로동신문 1965년 2월 21일 1면



로동신문

1965년 2월 21일
제 10,000호

강철 지지 점형물 위한 아금 설비를 제때에 집적으로! 설비의 80%를 만들었다

핵심 기술자 동원
혁신 기술자 동원

강철 지지 점형물 제조에 필요한 아금 설비를 제때에 집적으로 완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설비의 80%를 완성했다. 혁신 기술자 동원, 핵심 기술자 동원



혁신 기술자 동원, 핵심 기술자 동원. 강철 지지 점형물 제조에 필요한 아금 설비를 제때에 집적으로 완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작업장 안전정황을 보고

작업장 안전정황을 보고. 안전정황을 보고. 안전정황을 보고. 안전정황을 보고.

핵심 기술자 동원

핵심 기술자 동원. 혁신 기술자 동원. 핵심 기술자 동원. 혁신 기술자 동원.

<이웃의 후예>들과 <제 2 리 원용>의 우 리 를 쓸 어 버 리 라 !

<이웃의 후예>를 위해 희생하는 혁명사관 장수 세력 강화

북반구 평화협상사관 국제 조직을 결성하여 힘으로

북반구 평화협상사관 국제 조직을 결성하여 힘으로. 평화협상사관 국제 조직을 결성하여 힘으로.

<이웃의 후예>들과 <제 2 리 원용>의 우 리 를 쓸 어 버 리 라 !



<그림 27> 로동신문 1965. 2. 21. 1면



<그림 28> 동아일보 1965. 1. 1. 10면

독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북한당국은 당시 남쪽에서 쓰는 말을 “영어와 일어·한자어 표현으로 토씨 이외에는 우리말을 찾을 수 없는 잡탕말”로 규정함으로써 언어생활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을 촉구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망탕 쓰는” 남쪽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이야말로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운” 우리말을 쓰고 민족주체성을 지킨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곤 했던 것이었다.

당시 로동신문의 독자들은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을 두고서 어렵고 딱딱한 한자어나 외래어를 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성에 기초한 것도 아니며 언어학의 여러 사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이 쓰는 말들이 될수록 듣기 좋고 알기 쉬우며 간편하게 다듬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⁷⁶⁾ 이와 같은 의견을 읽어보면 그 무렵 북한주민들이 말 다듬기 운동을 통해서 남쪽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 나타난다.

2) 김정일의 후계자 등장과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예고 없는 게재 중단

로동신문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예고 없이 중단했던 시점은 1973년 10월 29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앞서 민주조선의 <우리말 다듬기 토론>이 359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다.⁷⁷⁾ 이와 같은 사실은 로동신문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중단했던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76) 로동신문 1966년 8월 19일자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제14회

77)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과 비교해 볼 때 민주조선의 <우리말 다듬기 토론>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중단되지만 사전에 예고가 없었고 사후에 중단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민주조선은 1973년 9월 21일 제359회 <우리말 다듬기 토론>을 게재한 이후 해가 바뀐 뒤 1974년 1월 11일 제360회 기사를 내보낸다. 그 뒤 같은 해 2월 12일 제364회 기사를 실을 때까지 <우리말 다듬기 토론>을 계속하지만 여기서 또 중단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려 2년 여의 시간이 흐른 뒤 1976년 5월 14일 민주조선이 제360회 <우리말 다듬기 토론>을 다시 내보냈다는 점이다. 그 이후 같은 해 6월 1일 제361회와 6월 18일 제362회 기사를 또 내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필자는 민주조선에서 <우리말 다듬기 토론>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이 말 다듬기 토론을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했던 그 무렵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일이 일어났다. 1973년 9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김정일을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선출했던 것이다.⁷⁸⁾ 그 일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정치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뒤 곧 조선로동당 당사 업무를 시작했다. 1967년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과장이 된 후 1969년 선전선동부장을 거쳤고 1971년에는 문화예술부장을 지냈다. 2년마다 한 직급씩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 김정일에게 당의 주요 직위를 맡기기로 결정했던 것은 1973년 9월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그 뒤 1974년 2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 결정을 전후하여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국가정치보위부를 창설했다.⁷⁹⁾ 또한 그 무렵 김정일이 창안한 것으로 전해지는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은 주민들의 행동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⁸⁰⁾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은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원칙 아래 수령의 영도를 따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김정일은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을 북한주민 전체의 생활지침으로 만드는 일을 직접 주도해 나갔다. 1973년 8월 김정일은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전당으로 일반화할 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작성해 배포한 뒤 11월에는 “항일 유격대식 학습방법으로 김일성주의 학습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배포했다.⁸¹⁾ 이런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지침을 담은 문서를 배포한 뒤 김정일은 1974년 이후 소위 생활총화 제도를 도입하고 당 간부는 물론이고 일반당원과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시작

78) 통일부 정보분석실 『주간북한동향』 제387호, 1998년 6월 13일 - 6월 19일

79) 고태우 『한 권으로 보는 북한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6, pp.233-236

80)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은 1967년 당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처음 만들었으나 1974년에 김정일이 그 내용을 다시 정비하여 제시하였다고 한다. 1967년 당시에는 김영주가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곧 김정일이 북한의 정치무대에 급격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김영주는 그 뒤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오랫동안 칩거생활을 했다.

81)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토지, 1999, pp.137-139

했다.⁸²⁾ 그 이후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2일·주간·월간 생활총화에 참여하여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점검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자 위치 확립 이후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어를 사용하고 소위 김일성의 혁명적 문풍을 그대로 답습하는 언어생활을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조선로동당이 김정일에게 주요 직위를 맡긴 일과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예고 없는 중단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석한다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2월 귀순해 온 황장엽이 1974년 무렵 이미 북한의 정치와 군사·외교 분야의 실무를 지도하는 인물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었다고 증언한 점이나⁸³⁾ 김일성 우상화를 직접 지휘했던 인물이 사실상 김정일이었다는 점, 1973년을 전후해 2-3년 동안 로동신문이 김정일을 가리켜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점, 그 당시 북한사회 전역에서 김정일이 주도하는 3대혁명 붉은기 소조 운동이 조선로동당 주도 아래 확산되어 가던 점⁸⁴⁾ 등

82) 정경완, 앞의 책, pp.139-141

83) “황장엽씨 국회 정보위 간담회 참석, 무슨 말 오갔나,” 내일신문 1997년 11월 5일자, P.51

84)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의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하다고 한다. 다음에서 3대혁명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은 그 사람의 증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주로 3대혁명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북한당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3대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한편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통해 사상·기술·문화의 3대 분야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3대혁명이론은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정식화되었고 그 후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당 대회와 1982년 3월 31일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및 1992년 1월 3일 발표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당의 총노선”을 통하여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졌다. 3대혁명은 오늘날 북한이 공산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1970년대 당시 북한당국은 3대혁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당에 별도로 3대혁명만을 조직지휘하는 부서인 청년 및 3대혁명 소조사업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통하여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1973년 2월부터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당시 북한주민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김정일의 정치적 지도에 따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정치적 특색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중단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하겠다.

추진해 나갔다. 3대혁명 소조원은 해당 단위에서 당 조직이 3대혁명을 잘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방조하는 한편 중앙당의 정책이나 지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별도의 보고선을 통하여 아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앙당에 직접 보고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동안 3대혁명 소조원은 북한사회 전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었다.

그런데 1994년 말엽, 김정일의 지시로 3대혁명 소조운동이 중단되었다. 당시 4만 명에 달하는 3대혁명 소조원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하여 안일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엄청난 부정부패로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김정일은 비록 자신이 주도하여 시작했던 운동이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3대혁명소조를 완전히 해체하고 대신 사회주의 노동현장 체험생 제도를 내놓았다. 그 이후 감독과 지시를 하던 3대혁명 소조원은 사상단련과 노동단련을 하는 사회주의 노동현장 체험생으로 바뀌었다. 또한 3대혁명을 총괄하던 부서인 청년 및 3대혁명소조 사업부도 해체되었고 이 부서의 기능 중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부분은 선동선전부에 넘어갔고 사회주의 노동현장 체험생에 대한 관리는 행정간부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당·국가·군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공장은 의무적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시·군·중앙당의 청년 및 3대혁명소조사업부가 주관하는 3대혁명 붉은기 판정시험에서 합격한 기관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된다. 그런데 3대혁명 붉은기 판정에 합격하려면 사상·기술·문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 사상혁명부분에서는 판정에 임하는 작업반과 공장, 기관 안의 모든 구성원이 수 십 가지 이상의 김정일, 김일성 발언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야 하며 기술혁명부분에서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배당한 생산계획을 100% 수행해야 하며 한 두 건의 기술발명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혁명 부분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며 판정에 임하는 조직의 전체 구성원이 무대에 출연하여 한 시간 이상 공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모든 성원들이 100미터 달리기와 높이뛰기 등에서 국가체력 검정기준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

제5장 맺음말

얼마 전 통일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으시던 공무원 한 분과 분단 이후 북한당국이 추구해 온 언어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필자는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요즘 최대의 관심사인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사용 습관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남쪽=외래어 남용 vs. 북쪽=순수한 우리말 지키기] 관념에 사로잡혀 이 논리를 굳게 믿으면서도 막상 자신들이 사용해 온 고뿌나 벵또가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과 통일을 하면 어렵겠어요” 하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절망감이 밀려 왔다. 분명히 통일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필자는 이렇게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렵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통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귀찮고 어려워서 통일을 미루면 자라나는 세대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겠지요.”

어떤 경우에도 이번 연구의 결과가 통일이 어렵고 힘드니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전개할 때 동원되는 일이 없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이제 맺음말을 통해 마무리하고자 한다. 맺음말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약 남쪽의 우리가 북쪽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말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⁸⁵⁾

우선 북한이탈주민과 면담한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남쪽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다음으로는 남쪽 사람의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할 때 어떤 점에서 이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85) 물론 이미 밝힌 것처럼 북한주민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근거로 추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북한주민을 직접 면담한 자료를 근거로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기회가 주어질 날이 올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곧 남쪽의 우리들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주민 전체를 향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 표현하는 교육의 필요성

[표 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면접 대상자였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남쪽의 언어예절이나 억양·말하는 방법 등을 배우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또 실제로 기회가 주어지면 배우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면접 과정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간혹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1) 존대어·언어예절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

또래 친구 만나서 모임 갔을 때 존칭 같은 것 잘 모르겠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등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것, 인사하는 법, 이런 것 배우고 싶다.

선생님이나 어른 나이, 어떻게 물어 보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배우고 싶다. “나이가...” 하기도 어렵고 뭐라 해야 할 지 모르겠다.

한 번은 “늙으신 분”이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나이드신 분”이라고 해야 한 다면서 면박 당한 일이 있다. 이런 것 배웠으면 한다.

2) 남북한 언어사용 습관의 차이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

북한에서 이런 말은 여기서 이렇게 쓴다...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북한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말이 여기서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 바로 잡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육교사가 될 거니까 아이들 가르치려면 억양을 많이 배우고 싶다. 어디 가서 배우는 건 시간이 너무 없고 문장 하나 말하면 내가 따라 하고 하는 태일이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불편한 건 없다. 그대로 “일 없다” 같이 틀린 용어들을 배우고 싶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정확히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젠 친구들과 친해지니까 말 고치라고 하고 놀림도 받는다....아직도 내가 말씨가 많이 틀리구나 생각돼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3) 일상생활 · 전화예절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

딱딱한 거 말고 지금 생활과 관련있는 것, 역사 등을 알고 싶다. 어떤 여자분이 하나원에 와서 일상생활에서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을 이야기해줬다. 이게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인사예절, 전화 받을 때 예절 등을 배웠는데 초보적인 거지만 도움이 많이 됐다.

영업계통에 있어서 전화상담 해야 하는데 리듬이 틀려서 잘 알아듣기 힘들다. 1년 지나니까 괜찮은데 외래어는 많이 어렵다. 하나원에서 전화상담 배워줬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 나가면 경리일 많이 하니까... 자원봉사자들과 전화통화로 대화해서 말을 배웠으면 한다.

전화상 업무가 어렵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도 말이 틀리다. 남북 사람을 연계해서 말 배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북한에서는 토대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필요 없어서 공부 안했다. 그러니 하나원에서 앞으로 진로 같은 것 개인상담도 많이 필요하다. (대학생이 된다고 해도) 북한에서처럼 무조건 대학가면 졸업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동아리하고 술 마시고 다 하는 아이들이 있다. 다른 애들은 수능에서 점수 많이 받고 대학 들어갔는데 이 애들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졸업 못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으면 한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로 억양을 듣는다. 또 우린 사투리로 하는 걸 문화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주의 깊게 듣는다.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 정보도 중요한데 연예인, 노래, 연예인 활동 등을 알아야 대화에 끼일 수 있다. 하나원에서 이런 걸 알려줘야 한다.

4)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견

하나원에서 한국의 근대, 현대력사 해 줬으면 좋겠다. 고조선 이런 건 남북한 다같이 교육하니깐 안 배워도 되는데 1800년대 말에서 해방 직후까지는 북한에 역사가 뚜렷이 없으니까...1800년대 말 “대한제국”이 있더라, “임시정부”가 있더라, 이런 건 몰랐다. 북한에서 배우지 못한 공백기간을 배워줬으면 좋겠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런 건 다 안다. 북에서는 근대역사에서 김일성 항일투쟁 역사만 배웠다. 지금도 역사를 알고 싶어 많이 쓴다.

처음에는 전혀 노력 안 했는데 강연 다니면서 배우야겠다고 느끼고 텔레비 보면서 익히려고 노력한다. 14살짜리 애가 있는데 내가 알아야 자식을 가르치겠어서 한국역사 한 눈으로 보기 같은 책을 사서 봤다. 또 애 가르치려다 보니 사전을 많이 들여다본다.

우리는 일제시대 열사 같은 것 잘 안 배웠다. 일제시대에 김형직, 김일성에 대한 것만 배운다. 그래도 나는 유관순에 대해서는 알지만...

5) 배우고 싶지만 어렵다는 의견

남한 말 배우야겠지만 혼자 있어 배워지지도 않고...

가끔은 여기 말씨로 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동무기간에 말할 때 내 말 듣고 막 웃거나 잘못 알아들을 때 여기 말 배우고 싶다. 하지만 너무 늦었구나 안 되는구나 생각한다. 30대 초반은 여기 말씨 금방 배우는데 40대 이상은 어렵다.

누구한테 가서 말하재도 말 몰라 못 물어본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가만히 서 있다.

사고 싶은 것만 사고 그냥 나온다. 더 물어봐야 알아 못 듣는다. 기분이 많이 나쁘다. 언제 한국사람처럼 말할 수 있겠나...병어리 냉가슴 앓는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검토해 보면 적어도 면접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남쪽 사회의 상식을 배우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움에 대한 이들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었던 것이 아니라라는 점도 나타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남쪽에 사는 우리가 어떤 점을 감안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북한주민을 상대할 때 배려해야 할 부분

분명히 배움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면접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주민 스스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은지, 어디에 가면 그런 내용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다니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사는 우리가 노력하고 배려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필자는 대다수 남쪽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들이 배우려는 욕구는 있어도 배움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이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려면 어떤 점을 배려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 면접 대상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인데 북한이탈주민이 모를 가능성이 많은 사항

“빨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사이드에 있다” 해서 당황했다. “사이드”가 뭔지 몰라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두 개가 헛갈린다. 디자인, 스타일, 찬스, 이런 말도 잘 몰랐다. 싸가지, 뽕친다, 이런 말도 몰랐다.

어디 나갈 때 처음엔 어떻게 입고 신어야 하는지 물어보곤 한다. 아는 한국 언니한테 “나, 잘 입었냐” 하고 물어본다. 옷 같은 게 다르다.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내 옷차림 보는 것 같아 신발도 신경 쓰인다.

처음 햄버거집 맥도날드에 가서 어떻게 주문하는지 몰라 사람들 많이 있을 때만 들어가서 주문했다. 사람 적을 때는 안 가고 있다가 많이 줄 서 있을 때 다시 들어간다. 사람들 많이 줄 서 있을 때 뒤에서 메뉴, 가격 외우고 주문한다.

은행 북음도 처음 봤는데 북한에는 은행나무가 있어도 우리 고향에서는 은행을 맘대로 못 뺐다. 그래서 은행 열매는 보지 못했다.

특히 신발이나 옷 살 때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하면 싫다. 사이즈 잘 모른다. 235가 어찌고... 신발 사이즈를 미리 많이 물어보고 사러 갔다. 반지 사이즈도 몰라 “그거 아리비아 숫자 섞인 것” 하는 식으로 설명하다가 “젊은 나이에 왜 그러냐” 이런 말 하는 것 같았다.

전혀 모르겠다. 코너킥 같은 거... 양념에서도 마요네즈, 케첩 등등. 엄마는 보관방법도 모른다. 우리 언니는 바나나를 냉동실에 넣었다. 가정시간에 배워 알려주면 그대로 잘하는데 모르는 건 못한다.

마요네즈 같은 소스 정확히 분별이 힘들고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다. 음식은 뭘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 먹어 볼 수도 없고...

상표, 브랜드 같은 것은 뜻을 이해 못한다. 애들이 많이 입는 글자 모양을 기억해서 산다. 그래야 입고 가도 떳떳하다.

미팅, 소개팅, 데이트가 사람 만난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뜻 구별 안간다. 지금도... 주로 먹는 것과 관련된 이름을 잘 모르겠다. 돈까스 먹자고 하면 맛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 먹었다.

한자를 잘 모르는데.....신문에 나온 한자 해석하는 것은 앞에 문장 읽어보고 뒷 문장 읽어보고 이게 어떤 말이다 추측한다.

음식점에 가서 주문할 때가 제일 어렵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못간다.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처음 왔을 때 무슨 슈퍼라고 써 있으면 뭐 파는 곳인지 몰랐다.

준비물 살 때 준비품 이름을 모르겠다. 하드보드지 등등...

“동안이야” 하는 말이 뭔지 몰랐다. 나중에 어려보이는 얼굴이라는 걸 알았다.

담배사러 가서 “미국 담배 주소” 했는데 미국 담배가 세 가지 있더라. 그런데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이름 말 못하고 “담배 약한 거, 가늘고 긴 거 주소” 했다. 어떤 때는 주는대로 가져 온다.

레스토랑이 어떤 형태인지 모른다. 생활을 직접 겪어 봐야만 알 수 있는데 단란주점, 레스토랑이 왜 단란주점이고 레스토랑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하나원에서는 레스토랑을 음식점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다. 술도 먹는 곳 같은데 술 먹는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

병원에 가서 “남자화장실” 글 써 있으면 일 없는데 남녀 화장실이 똑같은 그림에 영어로 써 있으면 당황한다.

오프라이스의 뜻을 몰랐는데 이번 여행 가서 배웠다. 라이스 자꾸 나오니까 오프라이스에서 라이스가 밥이구나 생각됐다. 라이스가 밥인지 몰랐다. 4년이나 한국에서 살았는데...

애들이 음식 이름 영어로 된 것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 듣겠다. 맨날 따져 물을 수도 없고....

2) 북한이탈주민이 느끼기 쉬운 심리적 위축감의 양상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배운 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지식 수준이 여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 못 사는 데서 왔다고 생각한다. “나라 잃은 설움”이라고 할까... 상대방 표정을 보고 깔끔한 성격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든다. 많이 배워 보여서 그런지... 허물없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도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한다.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낮추어 보는구나 하는 예감이 많이 든다. 영 낮추보는 것 같아 우려된다.

남한 사람한테는 애당초 뭘 묻지 않는다. 북한 사람과는 이야기해도...그저 묻는 말에나 대답한다.

어디 가나 상대가 한국사람으로 보면 좋은데 조선족으로 봐서 위축감이 들어
기분이 안 좋다. 자신있게 말하기 힘들다. 말하면 척 “조선족”이라 한다. 한 두
마디만 벗어나면... 첫 인상이 그렇게 비춰서 위축된다.

북한사람이 말하기 싫어 조선족이라고 한다. 조선족이라는 게 편하다. 북과 남
이라는 것이 그냥 싫다.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조선족이라고 말하면 무시해도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
다. 북에 대해 못이 박히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 번은 북한사
람이라고 말하니까 긴장하면서 거리 두는 걸 느꼈다.

서해바다 그랬을 때 회사 나가서 얼굴 못 들겠더라. 뉴스 나오면 사람들은 “○
○씨 나라가 왜 저래” 한다.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말한다. 마음이
가뜩이나 얼굴을 못 들겠는데... 나는 원래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래도 힘
들다.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한다. 이력서 내고 면접 볼 때 두렵다.
신랑이 벼룩시장 보고 전화했는데 이력서랑 자기 소개서 내라고 하니까 절대
포기하더라. 누가 북한에서 온 사람, 무역시키겠냐고 하면서...

처음에 몇 마디 물어보는데 두 번, 세 번 넘어가서 계속 물어보면 신경질 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 같이 하고 넘어간다.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땐
내가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남과 북이 생활수준이 다르니 말도 다르다. 남에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말 때문에 창피하다.

처음보는 사람은 상대방 심리 보고 그 사람이 이해할 것 같으면 해명한다. 친
구는 다 이해하지만 처음보는 사람은 중국사람으로 이상하게 본다. 중국에서는
중국어 잘 모르고 숨어살아야 하니까 목소리 작아지고 말 끝맺음이 약해졌다.
습관이 되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지금 남한에 와서도 말에 자
신이 없어 이 습관이 더욱 굳어졌다.

처음보는 사람이 조심스럽다. 또 못 알아 듣는 소리 할까봐... 신중에 또 신중
을 기해서 말한다.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처음 북한사람인지 모를 때 태도 좋다가 술자리에 가서
말하게 되면 태도가 바뀐다. 몇 명 접촉한 것 같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특히 여

자들 태도가 달라진다. 통일이 되면 다시 많은 사람이 북한으로 갈 것 같다. 그게 편하잖아요? 같은 수준에서 사는 게 있으니까...“서울 사람 같다”고 하면 제일 기분 좋다.

북쪽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르게 볼까봐 걱정된다. 대부분 북한에서 왔다고는 안 하는데 한번은 금방 이사 가서 물건 사러 갔는데 북한 사람이라고 했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북한과 한국은 갈라져 있어서 서로 다르게 보는 건 당연하기는 하다. 어차피 자기 처지인데 거기에 대응해야지 주눅 들 필요는 없다.

생각 없이 여기 말로 면도했어 하고 물어 볼 걸 수염 깎았어 했더니 이상하게 본다. 억양 때문에 어려웠다. 성질 났을 때, 급할 때 북한 억양이 나온다. 이 말 나오면 위축감 든다. 나를 북한에서 온 존재로 드러내기 싫은데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게 더 편하다. 북에서 왔다 하면 못 사는 데서 왔다고 생각하고 굶어 죽는 사람 많냐고 하며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한다.

남한에 온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 대면 어렵다. 같은 남한 친구라 생각 안 한다. 우리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는 나중 통일되면 남북한 모두에서 총 맞을 지 모른다고 이야기 한다. 소외감을 갖게 되면서 점차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경계한다. 진짜 남한 친구는 없다.

말이 이상하니까 초면일 때 말 이상하다,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묻는데 그럴 때 소외감 느껴서 말이 안 나간다. 오히려 북한 말이 나간다. 그러면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

북한 사람은 초조해지고 의심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아예 살아보지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자멸감 생겨서 말 안한다. 모욕의 표시 같다.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주민을 상대하는 태도는 각자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배려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가능하면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의 경

우에는 본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점을 조심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학습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가 남북한의 관계가 앞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북쪽 사람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한다면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성인들은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정리한 내용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3. 북한이탈주민·북한주민을 향해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북쪽에서 순수한 우리말을 지켜 왔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우리말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내용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북쪽에서 순수한 우리말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을 인정하되 우리말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게 만든 요인으로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의 역사도 함께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훈민정음을 언제, 누가, 어떤 뜻으로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우리말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키운다고 해도 그 자부심은 모래위에 쌓아놓은 성과 같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의 역사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세종대왕과 성삼문·정인지·신숙주 등 집현전 학사들의 역할을 모르는 채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구호만 반복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을 향유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그 동안 이렇게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을 배울 기회를 빼앗겼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을 상대로 우리말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민족공동체 구성 단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둘째,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의 역사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로 이어져 온 조선어학자들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하는 점도 반드시 북쪽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1926년 훈민정음 반포 8회갑을 기념하여 가가날을 제정하고 다시 이 날의 명칭을 한글날로 정하는 등 꾸준히 한글을 기념하는 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이나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을 발표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말 맞춤법의 기초를 다듬어 놓은 사실 등은 북쪽에서도 남쪽과 함께 기념해야 마땅한 일이다. 지금처럼 이런 사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그만큼 북쪽 주민들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북쪽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현상은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니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도 한 몫을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을 상대로 북한당국이 분단 이후 우리말에 대해 어떤 정책적 기초를 바탕으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그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쪽에 대해 남쪽 주민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분단 이후 북한당국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이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등 주요 일간신문에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게재해 온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언제 시작하여 끝을 냈는지, 주로 어떤 내용을 토론했는지, 1973년 10월에 왜 갑자기 중단했는지,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관련 사항에 대해 남쪽 주민과 함께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을 상대로 김일성·김정일 두 사람이 우리말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한 치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김일성이 언제나 우리말의 우수성을 자랑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상 김일성은 1964년과 1966년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당시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한글이 라틴문자보다 뒤떨어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음 인용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오늘 나는 우리 나라 언어학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동무들에게 좀 말하려 합니다. 지난 날 언어학문제, 특히 문자개혁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개혁을 곧 하자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문자개혁론을 반대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지금 남조선 사람이나 북조선 사람이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같은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주장대로 문자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조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되면 편지를 써 보내도 모르게 되고 신문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도 서로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964년)

김일성이 반대한다고 하는 문자개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966년 담화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

지금 우리 글자는 네모난 글자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글이 보기 좀 어렵고 쓸 때에 조금만 획을 달리 써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자는 인쇄의 기계화에도 불리합니다. 우리 글자를 가지고 타자를 하기도 힘듭니다. 글을 보는데 험하게 하려면 단어를 형태화하여 한 눈에 환히 안겨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한자가 결합이 있지만 매 글자가 뜻을 가지고 눈에 안겨오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글을 한자 모양으로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글자를 가지고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을 보기 쉽게 만든다고 하여 라틴문자를 받아들려고 하여도 안됩니다. 라틴문자로 하면 우리말 소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글자를 풀어서 타자하기도 쉽고 단어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금부터 글자 개혁안을 준비하여 조국통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1966)

한 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은 한글자모 24자를 초성·중성·종성의 형태로 배열해 놓은 오늘날과 같은 우리글의 모양은 타자를 치거나 기계화하는 면에서 라틴문자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영어를 타자로 치는 것보다 한글을 타자로 치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려웠던 사실을 기억하는 독자들은 김일성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김일성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글은 기계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영어를 비롯한 라틴문자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패배의식은 1980년대에 들어 서울대학교 재학생 몇 명이 뜻을 모아 한글 1.0이라는 위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김일성은 한글의 현재 모양이 뒤떨어졌으니 “갑자기 글자를 바꾸면 이미 글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문맹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글자형태를 고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1980년대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금은 볼 수 없는 구형 컴퓨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글 1.0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쾌거를 올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우리말과 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남북한의 주민 누구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모든 문제를 이룬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나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이 해결해 주었다는 관념 속에 북한주민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방치해 두는 것은 민족사의 발전을 위해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주민과 북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고 올바른 내용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주민에게도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는 과정에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의 역할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현재의 북한 실정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듣게 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자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을 상대할 때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되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목표를 정해 놓고 너무 몰아붙이는 방식을 지양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쪽에 사는 우리가 같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북한이탈주민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북한 사람은 몰라도 잘난 척 한다. 하나원에서 북한 사람 심리 알고 먼저 파악하고 뭘 가르쳐 주면 좋겠다. 북한 사람 고집적이고 자존심 세다. 낮추어 보는 거 싫어한다. 나는 더 심해서 모르는 거 묻지 않고 책 보거나 인터넷으로 찾는다. 제일 친한 친구한테는 묻는다.

하나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자꾸 알려줘야 한다. 나는 외래어 힘들다는 것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 듣고 또 책이나 텔레비 보면서 외래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

노력하려 하다가 그만 됐다. 노력하는 게 본성이 편하지 않다.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다. 편하게 말 나가는 대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방식대로 한다.

처음에는 노력하려고 했는데 노력하면 피곤하다. 하고 싶으면서도 내 모습대로 살고 싶다. 정확하게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겠지만 안 배워도 될 것은 배우지 않겠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익힌 것을 바꾸려면 나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기 싫다. 여지껏 너무 힘들게 살았다.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다. 집단생활하면서 무조건 바꾸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바뀌야 되겠지만....

부록 1. 질문지

부록 2. 한글마춤법통일안 (1933)

부록 3. 1964년 1월 3일 김일성의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부록 4.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

부록 5. 시대별 노동신문 제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 노동신문을 한 부씩 전면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음.)

안녕하십니까? 통일교육원 김석향 교수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우리말에 관한 상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적 분석과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결과물에도 개인적인 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중의 많은 사람이 남쪽에서 살면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①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다
- ②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다
- ③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슷비슷하다
- ④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
- ⑤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는 전혀 없다

2. 처음 남쪽에 왔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① 처음보다 지금이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 ② 처음보다 지금이 말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
- ③ 처음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의 어려움은 비슷하다
- ④ 처음보다 지금은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 약간 줄어들었다
- ⑤ 처음보다 지금은 말하는 것이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었다

3. 다음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경우 다음 내용 중에서 어떤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
- ①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 ② 남쪽 사람들이 영어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
 - ③ 존대말 사용방법이 달라서
 - ④ 한자를 잘 몰라서
 - ⑤ 남쪽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을 몰라서 (예: 호치키스, 엘리베이터 등)
 - ⑥ 생활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 때 담화하자는 뜻인지 몰라서 거절하는 등)
 - ⑦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어서
 - ⑧ 기타 _____

4. 다음 항목을 보시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인물에 모두 표시하신 뒤 언제 그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또 그 인물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인물	① 이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② 언제 이 인물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까				③ 이 인물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다	모른다	북쪽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하나원에서	남쪽에서	
1) 세종대왕							
2) 성삼문							
3) 신숙주							
4) 정인지							
5) 주시경							
6) 유열							
7) 김두봉							
8) 최현배(외술)							
9) 이극로							
10) 이회승							
11) 이광수(춘원)							
12) 한용운(만해)							
13) 김소월							
14) 방정환(소파)							
15) 최승희(무용가)							

5. 남쪽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6.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또 남쪽 사람이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7. 남쪽 사람이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끝까지 내 뜻을 전달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② 몇 번 더 말해서 내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③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호의적이면 더 시도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다
- ④ 한 두 번 더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포기한다
- ⑤ 한 번 말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그냥 포기한다

8. 남쪽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서도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거나 직장에서 동료라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9. 남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아주 가까운 태도로 서로 반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10. 다음 문장을 읽고 자신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내 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북쪽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쓰는데 남쪽에서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많이 쓴다 외래어의 예: 컴퓨터, 키보드, 오야붕 한자어의 예: 문자(文字), 자동차(自動車)					
2) 남쪽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염려스럽다					
3) 물건을 사려고 해도 말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까봐 망설이게 된다					
4) 우리말을 지키고 교육하는 것에 관한 한 북쪽이 남쪽보다 앞서 있다					
5)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북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서 따져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만 입을 다물게 된다					
6) 남쪽 말은 영어와 일본어를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잡탕말이라는 느낌이 든다					
7) 남쪽에서 쓰는 존대말이나 예절바른 말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면 그 곳에 가서 배우고 싶다					
8) 북쪽에서도 노어와 일본어 등 외래어와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다					
9) 혹시 내 말을 듣고 북쪽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알면 나를 속이고 물건값을 비싸게 받지 않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10) 남쪽 사람들이 “레절”을 “예절”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싶다					
11) 남쪽 사람처럼 말하려고 하면 어쩐지 내 고향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12) 남쪽의 존대말 사용법이 북쪽과 달라서 상황에 맞게 존대말을 잘 하는 것이 어렵다 예: ~ 집에 있어요?					
13)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남자한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14) 남자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여자한테 반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5) 남자는 아무래도 좀 거칠게 말해야 남자다운 패기가 있어 보인다					
16) 영어로 된 약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거나 당황한 경험을 한 일이 많다 예: KAL(대한항공) KT(한국통신) POSCO(포철)					

11. 남쪽에 온 뒤 남쪽에서 쓰는 말을 배우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셨습니까?

- ①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
- ② 조금 노력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 ⑤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11-1. (문제 11에서 ①·②에 표시하신 분은 대답해 주세요) 남쪽 말을 배우려고 노력하실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 ①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
- ② 신문과 책을 많이 읽는다
- ③ 인터넷에서 채팅을 한다
- ④ 남쪽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 ⑤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할 때 주의해서 듣는다
- ⑥ 남쪽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봤다가 나중에 혼자 거울보고 입 모양을 흉내낸다

11-2. (문제 11에서 ③·④에 표시하신 분은 대답해 주세요) 남쪽 말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북쪽 말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 ② 말이란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따로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 ③ 남쪽 말은 지나치게 부드럽고 간사스럽게 들려서
- ④ 남쪽 말을 배우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 ⑤ 말을 할 때마다 주변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되어서

12. 현재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우리말 교육이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원 수료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대답해 주세요)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⑥ 하나원에서 우리말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3. 하나원에서 받은 우리말 교육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 한 가지와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 ① 가장 도움이 되는 것:
- ②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

14. 하나원에서 우리말 교육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바라는 점과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고쳐야 할 점을 말씀해 주세요)

15.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외래어와 한자어, 순수한 우리말로 구분한 뒤 자신은 그 말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물	① 외래어, 한자어, 우리말 구분			② 언제 이 표현을 알게 되셨습니까				③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외래어	한자어	우리말	북쪽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하나원에서	남쪽에서	
1) 고뿌								
2) 뜨락또르								
3) 직승기								
4) 우라카이								
5) 노르마								
6) 뽀트								
7) 이신작척								
8) 교시								
9) 로작								
10) 총화								
11) 벤또								
12) 깜빠니아								
13) 테제								
14) 원문통달								
15) 강연제강								

16 다음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항목을 찾아서 모두 다 표시한 뒤 자신은 그 항목을 언제 알았는지, 또 그 항목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항목	① 이 항목을 알고 계십니까		② 언제 이 항목을 알게 되셨습니까				③ 이 항목은 무슨 뜻입니까
	안다	모른다	북쪽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하나원에서	남쪽에서	
1) 한글날							
2) 조선어학회							
3) 한글마춤법통일안							
4) 국어사정위원회							
5) 집현전							
6) 우리말다듬기지상토론							
7) 조선말대사전							
8) 흘소리							
9) 닿소리							
10) 두음법칙							
11) 자음							
12) 모음							
13)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14) 올림말							
15) 다듬은 말							

17 남쪽에 정착한 뒤 하나원이 아닌 곳에서 우리말 언어예절이나 존대말 사용법 등 남쪽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언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원 출신이 아닌 분도 대답해 주세요)

- ① 있다
- ② 없다

17-1. (문제 17에서 ①에 표시하신 분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그 교육을 시행한 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 시간과 장소, 누가 강사로 나왔는지,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 관련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17-2. (문제 17에서 ②에 표시하신 분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만약 존대말과 예절 바른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 있으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참여하겠다
- ② 참여하지 않겠다

18. 다음 내용을 보고 자신이 존대말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존대말을 쓸 때 어떤 표현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존대말 사용여부		존대말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		
	O	X	인사하거나 안부를 물을 때	식사했는지 물어 볼 때	나이를 물어 볼 때
1) 선생님과 대화할 때					
2) 어르신과 대화할 때					
3)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4) 자신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또래로 보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19. 화가 났거나 마음이 급해서, 어떤 일로 흥분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말 때문에 남쪽 사람들이 버릇없다고 말하거나 기분이 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 늙은이, 늙은 분들이, 여자가 무슨....)

- ① 있다
- ② 없다

20. 만약 19번과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북쪽에서 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떤 느낌을 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너무 분해서 화를 낸다, 북쪽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쓴다고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그냥 참는다, 북쪽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1.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자신이 말을 하면 남쪽 사람들이 중국에서 왔느냐, 조선족이냐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22. 문제 21과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① 못 들은 체 한다
- ② 말 없이 그냥 웃는다
- ③ 말은 하지 않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표시를 한다
- ④ 조선족이 아니라고 말해 준다
- ⑤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준다
- ⑥ 기타 _____

23. 자신을 중국에서 왔다거나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 ① 기분이 무척 나쁘다
- ② 기분이 조금 나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다

24. (문제 23에서 ①·②에 표시하신 분은 대답해 주세요) 남쪽 사람들이 자신을 중국에서 왔다가나 조선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왜 기분이 나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25. 남쪽에서 생활하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
- ② 없다

26. (문제 25에서 ①에 표시하신 분은 대답해 주세요)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찾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단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어서 제대로 찾을 수 없다.....)

27. 다음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나이: _____세
 - 2) 성별: 남() 여()
 - 3) 북쪽에서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 _____
 - 4) 태어난 곳과 북쪽에서 주로 생활하던 지역: ()시·도
()군·구
 - 5) 북쪽에 있을 때 직업 _____
 - 6) 북쪽을 떠난 시기 _____년 _____월
 - 7) 대한민국 입국 시기 _____년 _____월
 - 8) 북쪽을 떠난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어느 곳에 계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_____
-
- 9) 지금 사는 곳 _____
 - 10) 지금 하는 일 _____

〈한글 맞춤법 통일안(조선어 학회, 1933)〉

* 이 문서는 조선어 학회(지금의 한글 학회)에서 1933년에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서, 일부분은 당시의 표기 형태를 오늘날의 표기 형태로 바꾼 것도 있음을 밝혀 두며,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朝鮮語綴字法統一案)

머리말

본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여, 이에 일반 사회에 발표한다.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 경과의 개략을 말하면, 1930년 12월 13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맞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인(권 덕규, 김 윤경, 박 현식, 신 명균, 이 극로, 이 병기, 이 윤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열모, 정 인섭, 최 현배)으로써 2개년간 심의를 거듭하여 1932년 12월에 이르러 맞춤법 원안의 작성을 마치었다. 그리고, 또 위원 6인(김 선기, 이 갑, 이 만규, 이 상춘, 이 세정·이 탁)을 증선하여 모두 18인의 위원으로써 개성에서 회의(1932년 12월 25일~1933년 1월 4일)를 열어 그 원안을 축조토의하여 제1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위원 10인(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윤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었다. 그 후 6개월을 지나 대체의 수정이 끝났으므로, 또 위원 전체로써 다시 화계사에서 회의(1933년 7월 25일~8월 3일)를 열어 그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여 제2독회를 마치고, 또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위원 9인(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윤재, 이 희승,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어 최종의 정리가 다 마치었으며, 본년 10월 19일 본회 임시총회를 거치어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완성을 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통일안이 완성하기까지에 3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소요의 시간수로는 실로 433시간이란 적지 아니한 시간에 마치었으니, 과연 문자 정리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우리는 이렇듯 가장 엄정한 태도와 가장 신중한 처리로써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제 이 통일안을 만들어서 우리 민중의 앞에 내어 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 까지 혼란하게 써오던 우리글을 한번 정리하는 첫 시험으로 아나니, 여기에는 또한 불비한 점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울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진보로 여러가지 학술이 날로 달라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없지 아니할것이다. 그러므로 본회는 앞으로 더욱 이에 유의를 더하고저 하는것이니, 일반 사회에서도 때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통일안이 완성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내지 물질적으로 많은 성원과 두터운 양조를 주신 경향 유지인사에게, 특히 공 탁, 송 진우, 김 성수 기타 제씨와 각 보도기관 및 한성도서주식회사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글 반포 제487회 기념일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1. 한글 맞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옷 말에 붙여 쓴다.

각론

제1장 자모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제1항 한글의 자모의 수는 24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부기] 전기의 자모로써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기로 한다. 적기로 한다.

ㅍㅍ ㅊㅊ ㅅㅅ ㅈㅈ ㅊㅈ ㅈㅊ ㅊㅊ ㅈㅈ ㅊㅊ ㅈㅈ ㅊㅊ ㅈㅈ ㅊㅊ

제2절 자모의 이름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귤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음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의 ㅣ 이

[부기]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정한다.

ㅍ 쌍기역 ㅊ 쌍디귤 ㅅ 쌍비음 ㅈ 쌍시옷 ㅊ 쌍지읒

제2장 성음에 관한것

제1절 된소리

제3항 한 단어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아빠	압바
	오빠	옵바
	어깨	엇개
	토끼	툃기
	새끼	쌈기
	깨끗하다	깻긋하다
	어떠하다	엇더하다
	어찌하다	엇지하다
	여쭙다	엇줍다
	나부끼다	나붓기다
	아끼다	앗기다
	부끄럽다	붓글업다
	거꾸루	깃구루

제2절 설측음 ㄹ

제4항 재래에 설측음 ㄹ을 ㄹㄴ으로 적던것을 ㄹㄹ로 적기로 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걸레	걸네
	날린다	날닌다
	흘러	흘너
	빨리	빨니
	얼른	얼는

제3절 구개음화

제5항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ㄷ, ㄷ, ㄷ, ㄷ, ㄷ’를 ‘자, 저, 조, 주, 지’로, ‘타, 터, 토포,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기 1]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적에는 그 ㄷ ㅌ이 구개음화되는것을 예외로 인정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밭이	바치
	굳이	구지
	훤이다	할치다
	견히다	거치다
	묻히다	무치다
	닫히다	다치다

[부기 2] ㄴ은 ㄹ(ㄴ ㄹ ㄹ ㄹ) 우에서 구개음화되는것을 인정한다.

예: 저녁 바꾸니 누구뇨 가더냐

제4절 ㄷ 바침 소리

제6항 아무 까닭이 없이 ㄷ 바침으로 나는 말 가운데 ㄷ으로만 나는것이나 ㅅ으로도 나는 것이나를 물론하고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1. ㄷ으로만 나는 바침

예: (1) 부사적 접두어

갑	을
짓밟다	진밟다
짓물다	진물다
덧붙이다	던붙이다
엇먹다	언먹다
빚나다	빈나다
헛되다	현되다

(2) 관형사

옷	운
옛	옌
첫	첸
햇	환

(3) 부사

그릇	그른
무릇	무른
사릇	사른
얼핏	얼핀
걸핏하면	걸핀하면
자칫하면	자친하면

2. ㅅ으로도 나는 바침

따뜻하다	따뜩하다
빙긋빙긋	빙근빙근
반듯하다	반듣하다
잘못하다	잘몬하다

제3장 문법에 관한것

제1절 체언과 토

제7항 체언과 토가 어우를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끓이	끓시
밭이	밭치

꽃에

꼬체

제2절 어간과 어미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은	먹을
할고	할가	할지			

[부기]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어원이 분명한것은 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고,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것은 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그 어원이 분명한것

갑	을
넘어지다	너머지다
늘어지다	느러지다
떨어지다	떠러지다
돌아가다	도라가다
들어가다	드러가다
엎어지다	어퍼지다
흠어지다	흐터지다

(2)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것

나타나다	날아나다
불거지다	붉어지다
부러지다	불어지다
자빠지다	젓바지다
쓰러지다	쓸어지다

제3절 규칙 용언

제9항 다음과 같은 동사는 그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그 뜻을 바꿀적에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말기다	맞기다
쫓기다	쫘기다
솟구다	소꾸다
갈리다	갈니다
걸리다	걸니다
먹이다	머기다
보이다	보히다
낙이다	낙기다
활이다	활치다

돌우다	도두다
달히다	다치다
잡히다	자피다
묻히다	무치다

제4절 변격 용언

제10항 다음과 같은 변격 용언을 인정하고,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변한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ㄴ 비과 ‘오’ 우에서 주는 말

- 예: (1) ㄴ 우에서
울다 우나 우니
길다 기나 기니
- (2) ㅂ 우에서
놀다 놀니다
갈다 갑니다
- (3) 오 우에서
놀다 노오니
갈다 가오니

[부기] ㄹ ㄷ ㅅ ㅈ 우에서도 주는 일이 있지만은 안 주는것으로 원칙을 삼되, 존경의 ‘시’와 미래의 ㄹ 우에서는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 예: 놀다(遊) 노시다 놀사람
알다(知) 아시다 알사람

2.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모음) 우에서 줄어질적

- 예: 잇다(續) 이어 이으니
낫다(癒) 나아 나으니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적.

- 예: 하얏다 하야니 하안 하야면

4.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적

- 예: 듣다(聽) 들어 들으니
묻다(問) 물어 물으니

5.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적

- 예: 돕다(助) 도와 도우니
곱다(妍) 곱와 곱우니
눅다(臥) 누워 누우니
춡다(寒) 추워 추우니

6.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적

- 예: 하다 하여 하여도 하여야 하였으니 하였다

[부기] ‘하야’의 경우 하나만은 또한 ‘야’도 인정한다. (갑형은 인정 하되 을형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 갑 을
 그리하야 하야도 하얏으니 하얏다

7.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리’나 ‘렸’으로 날적

예: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8. 어간의 끝 음절이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적에
가 줄고 르이 르르로 날적.

예: 고르다 골라 골랐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누르다 눌러 눌렀다
 흐르다 흘러 흘렀다

제5절 받침

제11항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ㄹ ㄷ ㄹ ㅁ ㅂ의 열 여덟 받침을 더 쓰기로 한다.

ㄷ받침

견다(捲) 곧다(直) 굳다(固) 난(穀) 닫다(閉) 돋다(昇)
뜯다(摘) 만(昆) 묻다(埋) 묻다(埋) 믿다(信) 받다(受)
뻗다(伸) 쏟다(瀉) 얻다(得)

ㅈ받침

갖다(備) 꽃다(插) 굶다(凶) 꾸짖다(叱) 낮(晝) 낮다(低)
늦다(晩) 맞다(迎) 버릇다(爬) 부르짖다(吡) 빚(債) 빚다(釀)
맺다(結) 애꽃다 잊다(忘) 잣다(濶) 잣다(頻) 젓(乳)
젓다(濕) 짓다(吠) 찢다(裂) 찾다(尋)

ㅊ받침

갸(皮膚) 꽃(花) 낮(顏) 닳(錨) 돛(帆) 몇(幾)
빛(光) 숯(炭) 옷(漆) 좃다(從) 좃다(逐)

ㅋ받침

녁(方) 부엌(廚)

ㅌ받침

갈다(如) 곁(表) 곁(傍) 끝(末) 날(個) 돌(猪)
맡다(任) 머리맡(枕邊) 물(陸) 밑(底) 밭(田) 밭다(迫)
배알다(吐) 별(陽) 부를다(腫) 붙다(付) 살(股間) 솥(鼎)
술(量) 얕다(淺) 열다(淺) 팔(豆) 흩다(散)

ㅍ받침

값다(報) 깊다(深) 높다(高) 늪(沼) 덮다(蓋) 무릎(膝)
쉴(薪) 숲(林) 싶다(欲) 앞(前) 엮다(覆) 옆(側)
잎(葉) 짚(藁) 짚다(杖) 헝겊(布片)

ㅎ받침

낱다(産) 넣다(入) 놓다(放) 닿다(接) 땅다(辯) 뺑다(碎)

- 쌓다(積) 좋다(好) 쫓다(春)
- ㄱ바침
 깎다(削) 꺾다(折) 꺾다(經) 낚다(釣) 닦다(拭) 뒤다(添垢)
 묶다(束) 밖(外) 볶다(炒) 섞다(混) 습다(抄) 엮다(編)
- ㄴ바침
 겹다(未來) 았다(過去) 었다(過去) 있다(有)
- ㄷ바침
 녀다(魄) 몫(配分) 샀(賃) 섰(결)
- ㄹ바침
 끼었다(撤) 았다(坐) 었다(置上)
- ㄺ바침
 꿰다(訂) 팬찮다 귀찮다 꿰다(絶) 많다(多) 언짢다
 짐찮다 하찮다
- ㄻ바침
 굽(向方) 돌(碁) 움(代償)
- ㄼ바침
 꿰다(未滿) 꿰다(跪) 끓다(沸) 닳다(耗) 뚫다(穿) 싫다(厭)
 았다(病) 옳다(可) 잃다(失)
- ㄽ바침
 핥다(舐) 훑다
- ㄾ바침
 읊다(詠)
- ㅁ바침
 굽(穴) 났(木)
- ㅂ바침
 값(價) 가없다(憐) 실없다(不實) 없다(無)

제6절 어원 표시

제12항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되고, ‘음’이 붙어서 명사로 전성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간의 원형을 변하지 아니한다.

예: 먹이 벌이 길이 같이 울음 웃음
 걸음 미닫이 개구멍받이 쇠붙이 굳이 같이

제13항 어간에 ㅣ나 ‘음’ 이외의 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마개 주검 무덤 올개미 귀머거리 너무 비로소

제14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명사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집집이 곳곳이 샅샅이 곰배팔이 애꾸눈이

제15항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탄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끄트머리 지프래기 지붕

제16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로 첫 소리를 삼는 음절이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본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낚시 옆맹이 앞사귀
 읊기다 꺾적하다 넓적하다 엷둑엷둑하다 엷죽엷죽하다

[부기] 아래(엷은이: 원문에서는 세로쓰기로 했기 때문에 ‘좌기’라 표현했음.)의 말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악죽악죽하다 각작각작하다 멀숙하다
 멀숙하다 널직하다 말숙하다

제17항 어간에 ‘브’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슬프다 숲브다
 아프다 앓브다
 고프다 굶브다
 미쁘다 믿브다
 나쁘다 낮브다
 구쁘다 굶브다
 바쁘다 밧브다
 기쁘다 깃브다
 이쁘다 잇브다
 가쁘다 갠브다

제18항 동사의 어간에 ‘치’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 병을 버린다.)

예: 갑 을 병
 받치다(支) 받치다 바치다
 뺨치다 뺨치다 뺨치다
 옆치다 업치다
 덮치다 덮치다
 놓치다 놓치다 노치다

제19항 형용사의 어간 ‘이’나 ‘히’나 또는 ‘후’가 붙어서 동사로 전성한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잣히다 자치다
 낮히다 나치다
 좁히다 조피다
 밝히다 발키다
 넓히다 널피다
 높히다 노피다
 갓후다 가추다
 낮후다 나추다
 늦후다 느추다

맞후다 마주다

제20항 어원적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토로 전성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조차 부터 마저

제21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될적에는 그 어원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답답히	답다피
	답답이	답다비
	곰곰이	곰고미
	반듯이	반드시
	반듯반듯이	반듯반드시

[부기]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나 또는 다른 소리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로 될적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군더더기 오라기

제22항 어원적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말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착하다 딱하다 급하다 속하다

제23항 동사의 어간에 ‘이, 히, 기’가 붙을 적에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그 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먹이다	맥이다
	박이다	백이다
	속이다	석이다
	죽이다	척이다
	뜨이다	띠이다
	잡히다	좨히다
	먹히다	맥히다
	말기다	맬기다
	벗기다	벧기다
	쫓기다	쫘기다
	숨기다	섬기다
	뜯기다	띯기다

[부기] 이 경우에 둘이 합하여 아주 짠 음절로만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 병을 버린다.)

예:	갑	을	병
	내다	내이다	나이다
	깨다	깨이다	까이다
	재다	재이다	자이다

제24항 의성 의태적 부사나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아니 되는 어근 아래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될적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기러기 꾀꼬리 빼꾸기 따짜구리 귀뜨라미 개구리
코끼리

가마귀 살사리 더퍼리 빼꾸기 얼루기 떠버리

제25항 어원적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움죽이다 움즈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번적이다 번저기다

제26항 용언의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변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바치다(納) 드리다(獻) 부치다(寄) 이 루
다(成)

제27항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근이나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될적에는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양다(양다)
갑 을
발강다 밝양다
노랑다 놀양다
파랑다 팔양다
가망다 감양다
벌경다 벉양다
누렁다 눌양다
퍼렁다 펄양다
거멧다 검양다

(2) 엷다(읍다)
미엷다 민엷다
무첩다 못엷다
우습다 웃읍다
드럽다 들엷다
간지럽다 간질엷다
서느럽다 서늘엷다
부드럽다 부들엷다
무겁다 묵엷다
부끄럽다 부끌엷다
시끄럽다 시끌엷다
징그럽다 징글엷다
어지럽다 어질엷다

[부기] ‘없다’만은 갈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객없다	개없다
시름없다	시르없다
부질없다	부지없다
숭없다	
상없다	

제7절 품사 합성

제28항 둘 이상의 품사가 복합할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각각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1. 변하지 아니할적

예: 문안 집안 방안 독안 밤알 닭의알
 집오리 물오리 속옷 손아귀 홀아비

단 어원이 불분명할적에는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오라비

2. 변할적

예: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밥물 국물 맛먹다 반내다 옆문 젓몸살

(2) 닿소리와 홀소리 ‘이’(야여요유) 사이 (이 경우에는 아래의 홀소리의 첫 소리로 구개음화한 ㄴ 소리가 덧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갓양	갓냥
жатyet	жатye년
담요	담뇨
편웃	편눗
밭일	밭닐
앞일	앞닐
집일	집닐
공일	공닐(거저 하는 일)

[부기] 그 웃 품사의 독립한 소리 ㄴ이 변할적에는 변한대로 적되, 두 말을 구별하여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할아버지	한아버지
할머니	한어머니

제29항 ㄹ바침이 있는 말과 ㅍ 말과 어우를적에는, (1) 나기만 하는것은 나는대로 적고, (2)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예: (1) 물새 불꽃

(2) 무자위 부삽

제30항 복합명사 사이에서 나는 사이 ㅅ은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ㅅ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예: 홀소리 밑

뒷간 곳집 나룻배 담뱃대 잇몸 것발
 제31항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좁쌀	조비쌀
	참쌀	차비쌀
	멤쌀	메비쌀
	햐쌀	해비쌀
	수캐	승개
	암캐	얹개
	조팍	중밥
	안팍	얹밖

제8절 원사와 접두사

제32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려서 한 단어를 이룰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 각각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깃이긴다	깃니긴다
	엇나간다	언나간다
	셋노랴다	센노랴다
	싯누렁다	신누렁다

제4장 한자어

한자음은 현재의 표준 발음을 좇아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따라서 종래의 한자 자전에 규정된 자음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제1절 흘소리만을 변기할것

제33항 · 자 음은 죄다 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간친(懇親)	곤친
	발해(渤海)	벌희
	사상(思想)	스상
	자녀(子女)	즈녀

제34항 · ㅈ 자 음은 모두 ㅉ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개량(改良)	기량
	내외(内外)	넢외
	대용(代用)	디용
	매일(每日)	미일
	색채(色彩)	식채

애석(愛惜)	이석
재능(才能)	지능
책자(冊子)	칙즈
태모(胎母)	티모
해변(海邊)	히변

제35항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삼는 ㅅ ㅈ ㅊ ㅊ를 ㅅ ㅈ ㅊ ㅊ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 버린다.)

예:	갑	을
	사회(社會)	샤회
	서류(書類)	서류
	소년(少年)	쇼년
	수석(水石)	슈석
	장안(長安)	장안
	정중(鄭重)	정중
	조선(朝鮮)	쵸선
	중심(中心)	중심
	차륜(車輪)	차륜
	처자(妻子)	쳐즈
	초부(樵夫)	초부
	추수(秋收)	츄슈

제36항 ‘계, 례, 메, 폐, 헤’는 본음대로 적고, ‘세, 제, 체’의 ㅈ는 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갑	을
	계수(桂樹)	게슈
	폐부(肺腑)	페부
	혜택(惠澤)	헤택
	연매(連袂)	런매

예: (2)		
	세계(世界)	세계
	제도(制度)	제도
	체류(滯留)	체류

제37항 ㅈ ㅊ ㅊ을 첫소리로 삼는 ㅈ를 가진 자음은 그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예:	슬하(膝下)	습관(習慣)	승리(勝利)	즉시(即時)
	증인(證人)	증조(曾祖)	측량(測量)	층계(層階)
예외:	금실(琴瑟)	질책(叱責)	편집(編輯)	법칙(法則)
	친의(襯衣)			

제38항 ㅁ ㅂ ㅍ으로 첫소리를 삼는 ㅈ를 가진 자음은 그 모음을 ㅊ로 내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	---	---

묵화(墨畵)	묵화
북극(北極)	북극
붕우(朋友)	붕우
품질(品質)	품질

제39항 ‘의 회’의 자음은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예: 의원(醫員) 주의(主義) 희망(希望) 유희(遊戱)

제40항 ‘기 비 식 칩’의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기차(汽車)	기차
일기(日氣)	일기
곤비(困憊)	곤비
시탄(柴炭)	식탄
치중(輜重)	치중

제41항 ‘쉬 취’의 자음은 ‘쉬 취’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쉬려(淬礪)	쉬려
취객(醉客)	취객
예외:	
수연(擘宴)	수연

제2절 당소리만을 변기할것

제42항 ‘냐 녀 뇨 뉴 니 네’가 단어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여자(女子)	녀자
영변(寧邊)	녕변
요도(尿道)	뇨도
육혈(衄血)	낙혈
이토(泥土)	니토
예묘(禰廟)	네묘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남녀(男女) 부녀(婦女) 직뉴(織紐)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계집녀(女)

제43항 ‘랴 려 료 류 리 례’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양심(良心)	량심
역사(歷史)	력스
요리(料理)	료리
유수(流水)	류슈

이화(李花) 리화
 예의(禮義) 례의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서 날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본음대로 적는다.

예: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재료(材料) 염료(染料)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桃李) 행리(行李) 사례(謝禮) 혼례(婚禮)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어질량(良)

제44항 ‘라 로 루 르 래 뢰’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발음대로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낙원(樂園) 락원
 노인(老人) 로인
 누각(樓閣) 루각
 능묘(陵墓) 룡묘
 내일(來日) 래일
 뇌성(雷聲) 뢰성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쾌락(快樂) 극락(極樂) 부로(父老) 연로(年老)
 고루(高樓) 옥루(玉樓) 구릉(丘陵) 강릉(江陵)
 거래(去來) 왕래(往來) 지뢰(地雷) 낙뢰(落雷)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다락루(樓)

제3절 당소리와 흘소리를 함께 변기할것

제45항 ‘더 도 듀 디 데’의 자음은 ‘저 조 주 지 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저급(低級) 더급
 전답(田畓) 던답
 조수(鳥獸) 도슈
 조정(調停) 도딩
 주광(黠續) 듀광
 지구(地球) 디구
 제자(弟子) 데즈
 질탕(佚蕩) 덜탕

제46항 ‘터 투 튜 테’의 자음은 ‘처 초 추 체’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천지(天地) 턴디
 철도(鐵道) 털도
 청중(聽衆) 텅중
 초미(貂尾) 토티

촉루(觸虜)	촉루
체재(體裁)	테재

제4절 속음

제47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속음 한가지로 읽는 자음은 그 발음을 따라 속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취미(趣味)	츠키
	인쇄(印刷)	인살
	부모(父母)	부무

제48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1) ㄴ이 ㄹ로만 나는 것은 ㄹ로 적고, (2) ㄹ이 ㄴ으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갑	을
	허락(許諾)	허낙
	대로(大怒)	대노
	회령(會寧)	회녕

예: (2)	의논(議論)	의론
--------	--------	----

제49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기념(記念)	기렴
	기능(技能)	기릉

제50항 한자음이 연발될적에 ㄴㄴ이 ㄹㄹ로도 나는 것은 본음을 원칙으로 하고, ㄹㄹ도 허용하되, ㄴㄹ로 적는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예:	갑	을
	관념(觀念)	관렴
	곤난(困難)	곤란
	안녕(安寧)	안령
	본능(本能)	본릉
	만년(萬年)	만련

제51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본음과 속음으로 읽는것은 그 발음대로 적는다.

예:	본음	속음
	당분(糖粉)	사탕(砂糖)
	팔월(八月)	파일(八月)
	목근(木槿)	모과(木瓜)

제5장 약어

제52항 말의 끝 음절의 끝 홀소리가 줄어들고 닿소리만 남은것은 그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 버린다.)

예:	본말	갑	을
	아기야	악아	아가
	기러기야		기러가
	애꾸눈이야	애꾸눈아	애꾸누나
	어제저녁	엇저녁	어찌녁
	가지고	갓고	갓고
	미치고	밋고	밋고
	디디고	딛고	딛고
	온가지	온갓	온갓

제53항 토만이나 또는 토와 명사가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본말	준말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무얼
	무엇은	무언
	그것은	그건
	그것을	그걸

제54항 어간의 끝 홀소리 ㄱ이 ‘어’ 소리를 만나서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예:	본말	준말
	건느어	건너
	크어	커
	기쁘어	기뻐
	건느었다	건넜다
	크었다	켰다
	기쁘었다	기뻐다

제55항 홀소리로 끝난 어간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예:	(1)	본말	준말
		뜨이다	떡다
		쓰이다	씩다
		보이다	뵈다
		건느이다	건넬다
	(2)	가아서	가서
		오아	와
		부어	뵈
		그리어	그려

제56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어질적에는 ㅎ을 중간에 놓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씬도 허용한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하고 병은 버린다.)

예:	본말	갑	을	병
----	----	---	---	---

개어	개었다	개여	개였다
베어	베었다	베여	베였다
되어	되었다	되어	되었다
쉬어	쉬었다	쉬여	쉬였다
의어	의었다	의여	의였다

4. 어간의 끝 음절이 닿소리 ㅅ ㅈ ㅊ의 바침으로 끝났을적에는 어미의 ㅡ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ㅡ로 통일한다. (갹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갹 을
 갹은 갹인
 있으니 있이니
 좃으니 좃이니
 앓으니 앓이니
 곳은 곳인

5. 한자어나 순 조리어나를 물론하고 부사의 끝 음절이 ‘이’나 ‘히’로 혼동될적에 한하여 그 말이 어원적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수가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로 한다.

예: 히-심히 자연히 감히 심심히 덤덤히
 이-헛되이만가이

[부기 1] 분명히 ‘이’나 ‘히’로만 나는 것은 나는대로 적는다.

예: 이-적이
 히-극히 작히

[부기 2] 분명히 ‘히’나 ‘이’의 두가지가 다 있는 것은 상기 규칙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쪽의 말은 허용한다. (갹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한다.)

예: 갹 을
 답답히 답답이
 똑똑히 똑똑이

6. ‘이요’는 접속형이나 종지형이나 전부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통일한다.

예: 이요-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지요-갈 사람은 가지요.

7. 다음의 말은 갹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하고 병을 버린다.

예: 갹	을	병
삭이다		삭히다
시기다	시키다	식히다
박이다(사역)		박히다

박히다(피동)

박이다

[주의] 단순한 능동 ‘박다’의 뜻으로 ‘박이다’, ‘박히다’들을 씀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8. 다음의 말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갑만 취하고 그 밖의 말들은 다 버린다.
(갑란의 병기 괄호는 허용을 뜻하고, 하기 괄호는 주석을 뜻한다.) (음순)

갑	을	갑	을
가까스루	가까스로	(가)	
가로(橫)	가루	거꾸루	거꾸로
가루(粉)	가로	거두다	건우다
가슴	가심	(건다)	
가로되	가르대	거든	거던
가만히	가마니	겉(表)	것
가운데	가운데	겨우	겨오
가진(各色)	가즌	겉(傍)	것
갈모	갓모	계시다	계시다
갓(邊)		계집	계집
고루(均)	고로	너희	너이
고저	고자	넋	넉
골고루	골고로	농치다	노치다
곳(處)	곧	다음	다암
꽃(花)	꽃	(담)	
구름	구름	닷(錯)	닷
끝(末)	꼳	더니	드니
나누다	노느다	더라	드라
(논다)		더라도	드라도
난(穀)	낫	더러	다려
낫(顏)	낫	던	든
낯(個)	낫	덜치다	덥치다
너무	너모	대(處)	데
(넘어)		데리고	다리고
데치다	뎛치다	(맘)	
도루	돌오	마저	마자
도리어	도로혀	마주	마조
동곳(男簪)	동곧	마춤법(綴字法)	마침법
돛(帆)	돛	마침(適)	마춤
돌(猪)	돛	만나다	맛나다

되우(심히)	되오	만(昆)	맛
든지	던지	매우	매오
뜻(志)		머리맡(枕邊)	머리맛
려(보러 가다)	라	먼저	몬저
마땅히	맞당이	며느리	며누리
마디	마디	며칠(幾日)	몇일
마음	마암	몇(幾)	멧
모두	모다	벼(稻)	베
몫(配分)	목	뼈(骨)	빼
물(陸)	뭇	벼(犁)	변
밑(底)	밋	벌(陽)	벗
바늘	바늘	보리(麥)	버리
배우다	배호다	비다(空)	뷔다
밭(田)	밭	비로소	비롯오
뺨	뺨	비추다(타동)	빛우다
뼈선	보선	비취다(괴동)	빛외다
뺨치다	뼈치다	비치다(자동)	빛이다
벗(友)		빗(梳)	
베다(枕)	비다	빋(債)	빋
베다(斬)	버히다	빋(光)	빋
베(布)	뵤	사뢰다	살외다
사슴	사삼	숯(炭)	숯
싸우다	싸호다	술(量)	숯
삿	삭	심다(植)	
살갓(皮膚)	살갓	(시르다)	
살(股間)	삿	아래	아래
새로	새루	아뢰다	알외다
서다(立)	스다	아버지	아버지
섬기다(事)	성기다	아직	아즉
세로(縱)	세루	어디	어딴
소금	소곰	어머니	어마니
소서	쇼셔	어찌	으찌
송곳(錐)	송곳	얼굴	얼골
솥(鼎)	솥	없다	웁다
여덟	여덟	자주	자조
여우	여호	자취	자취

오늘	오날	저희(저의 복수)	저의
오줌	오좁	전혀	전여
오직	오죽	절루	절로
오히려	오이려	젓(醃)	
외다(誦)	오이다	젓(乳)	젓
옷(漆)	웃	종이(紙)	조희
위(上)	웅	처음	처엄
(우)		(참)	
읍니다	읍니다	캐	캐
(습니다)		키(높이)	키
이루	이로	팥(豆)	팻
자루(柄)	자로	하는	하난
하늘	하날	하매	함애
하랴(반문)		하므로(‘하다’의 접속형)	함으
로			
하루	하로	(하는)데	대
합니다	함니다	행여	행혀
홀로	홀루	혹여	혹혀

부록 2. 문장 부호

문장에 쓰는 중요한 부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문장의 끝난것을 나타낼적에 그 끝에 쓴다.
2. • 서양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기로 한다.
3. 、 정지하는 자리를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4. : 대체로 대등의 말을 병렬할적에 그 사이에 쓴다.
5. ; 한 문장이 끝났으나 다음 문장과 의미상 연결이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쓴다.
6. 『』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7. 「」 이중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8. ! 감탄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9. ? 의문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10. = 단어의 중절된것을 나타낼적에 쓴다.
11. — ‘곧’(卽)의 의미로 쓴다.
12. - - 우의 말을 다시 해석하고 넘어갈적에 쓴다.
13. ……말은 끝내고 뜻을 말 밖에 나타낼적에 쓴다.
이 밖에도 () [] { } 등 부호를 쓴다.

14. 고유명사를 표시하고자 할적에는 종서에서는 좌방에 단선을 긋고, 횡서에서는 하선을 긋는다.
15. 첩용을 표시할적에는 필기에 한하여 쓰되, 종서에는 ː를 쓰고, 횡서에는 ˘를 쓰기로한다.
16. 장음표는 두 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되, 다만 자전이나 성음론 같은대에 성음 부호로만 쓴다.

예: ː발 ː팔 ː경성(鏡城)

단 행문에서는 장음 부호를 특별히 표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외래어나 모방어등을 특별히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홑소리를 거듭 쓴다.

1964년 1월 3일 김일성의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본문 제시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 본문 제시